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제주지역 농작물의 재배 변천과  
농정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ultivating Changes of Farm Produce in Jeju and  
Perspective of Agriculture Policy Development

濟州大學校 大學院

農學科

尹 彰 完

2012年 2月



# 濟州地域 農作物의 栽培 變遷과 農政發展 方向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姜 榮 吉

尹 彰 完

이 論文을 農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12月

尹彰完의 農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副委員長	_____	印
委員	_____	印
委員	_____	印
委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1年 12月

# 목 차

표 목 차 .....	ii
Abstract .....	iv
<b>I. 서 론 .....</b>	<b>1</b>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방법 .....	3
<b>II. 제주지역 농작물의 재배변천 분석 및 농업의 연대별 특성 .....</b>	<b>4</b>
1. 제주농업의 여건 .....	4
2. 주요작물 재배현황의 변천 및 분석 .....	14
3. 제주농업의 연대별 특성 .....	34
<b>III. 제주농업의 문제점과 농정발전 방향 분석 및 고찰 .....</b>	<b>41</b>
1. 제주농업의 문제점 .....	41
2. 감귤산업 생산·유통의 문제점 .....	51
3. 제주농업의 문제점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분석 .....	53
4. 제주지역 농정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분석 .....	59
5. 제주지역 농업과 농정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	87
<b>IV. 결 론 .....</b>	<b>94</b>
1. 제주도 주요 농작물의 재배 변천 현상 .....	94
2. 제주농업과 농정의 발전방향 고찰 및 제언 .....	95
참 고 문 헌 .....	97
부 록 .....	99
부 표 .....	115

# 표 목 차

< 표 1 > 면적, 해안선 길이, 경지면적 .....	5
< 표 2 > 연평균 기상개황 .....	6
< 표 3 > 제주도의 농가 현황 .....	9
< 표 4 > 업태별 농가 .....	10
< 표 5 > 제주도의 영농형태별 농가 추이 .....	11
< 표 6 > 연령별 농가인구 .....	12
< 표 7 > 농가구당 경지면적 .....	13
< 표 8 > 경영규모별 현황 .....	13
< 표 9 > 수도·육도 재배면적 및 생산량 .....	16
< 표 10 > 맥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17
< 표 11 > 잡곡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18
< 표 12 > 두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20
< 표 13 > 서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21
< 표 14 > 유지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22
< 표 15 > 채소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23
< 표 16 > 주요월동 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	24
< 표 17 > 감귤재배 일반현황 .....	26
< 표 18 > 품종별 재배 및 생산 현황 .....	27
< 표 19 > 작형별 조수입 현황 .....	28
< 표 20 > 감귤유통 명령제 발령상황 .....	29
< 표 21 > 연도별 폐원실적 .....	30
< 표 22 > 연도별 간벌실적 .....	31
< 표 23 > 연도별 감귤원 휴식년제 실적 .....	31
< 표 24 > 감귤가공공장 현황 .....	32
< 표 25 > 기타 과실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	33
< 표 26 > 감귤이 농산물 조수입에 차지하는 비율 .....	44
< 표 27 > 비료 공급현황 .....	45

< 표 28 > 농약 공급현황 .....	45
< 표 29 > 연도별 연령별 농가인구 .....	46
< 표 30 > 연도별 농가 및 인구 .....	47
< 표 31 > 한·미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제주농업의 향후 전망 .....	60
< 표 32 > 제주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선결과제 .....	61
< 표 33 > 제주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	62
< 표 34 > 제주농업 사안별 평가 이유 .....	63
< 표 35 > 제주농업 선진화를 위한 노력 주체 .....	64
< 표 36 > 제주농업 정책 지원의 중요 분야 .....	65
< 표 37 > 제주농업 정책변화를 위한 해결과제 .....	66
< 표 38 > 새로운 농업정책의 도입 필요성 .....	67
< 표 39 >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물과 사업 .....	69
< 표 40 > 2010년산 감귤가격이 좋았던 이유 .....	70
< 표 41 > 향후 고품질 감귤 안정시책 추진주체 .....	71
< 표 42 > 감귤분야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 .....	72
< 표 43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 .....	74
< 표 44 > 감귤 유통명령제에 대한 의견 .....	75
< 표 45 > 감귤원 폐원사업에 대한 의견 .....	76
< 표 46 > 감귤원 간벌사업에 대한 의견 .....	77
< 표 47 > 감귤 휴식년제 사업에 대한 의견 .....	78
< 표 48 > 감귤복합가공공장 운영에 대한 의견 .....	79
< 표 49 > FTA 대응 감귤산업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	80
< 표 50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책 불참 이유 .....	81
< 표 51 > 시장원리에 맞는 감귤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필요성 .....	84
< 표 52 > 시장원리에 맞는 감귤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	86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circular emblem. It features a stylized flame or torch in the center, with the year '1952' below it.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is written around the top inner edge of the circle, and '제주대학교' is written around the bottom inner edge.

**《Abstract》**

**A Study on Cultivating Changes of Farm Produce in Jeju and  
Perspective of Agriculture Policy Development**

Chang-Wan Yoon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griculture

This thesis researched and analyzed the changes in arable land and farming output annual progress to forecast future main crop cultivation. This paper also includes the data from a survey conducted among the 130 farmers and 50 agriculturalists about the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considered future agricultural policy direction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wing to an expansion.

While the cultivation area for paddy rice has decreased, the cultivation area for upland rice has increased due to the rice crop rotation system and self-sufficiency. Due to the rise in importing of barley and various grains, it is expected that cultivation areas for millet, sorghum, sweet potato and oil crops like sesame and rapeseed will gradually decrease.

On the other hand, crops such as buckwheat, corn, soybeans, red beans and mung beans are gaining in popularity as demand healthier food for their dietary life. As a result, the cultivation land for these crops will be maintained or increase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second major economic crop is the potato and as it can overwinter in the outdoor farm,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ts cultivation area will be stable and maintained safely.

In the case of vegetable cultivation, Jeju has a relatively warmer climate than other regions of Korea and hence Jeju has a good environment for vegetable farming.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vegetable farming will become the main income source for farming households. The cultivation area for Jeju mandarin will be extended due to the demand for high-quality mandarins from its customers and it is anticipated that the cultivation for new tropical fruit crops such as dragon fruit, atemoya and mango will be accelerated to improve the mandarin-oriented income system.

The development directions to cope with an expansion of the market will be discussed in this paper.

First, it will be desirable to promote and respect the independent opinion and creativity of the farmers' and growers' associations.

Second, the administration must opt out of those areas which the farmers and their own union or association can handle. Preferential intervention is only necessary when the market needs financial support to vitalize its function.

Third, the differential support for farmers on the basis of their own forms of farming, scale of business and age is important to customize the support to meet the different demands from individual farmers.

Four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agricultural policy must not be agreed upon only by the administration itself but through the parallel work distribution between the farmers and their associations



Finally, it is essential to avoid any isolation of individual farmers from gaining practical benefits by granting more importance for the promotion of intangible factors such as policy reform and improvement for the supporting system.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agricultural specialists are as follows :

- ① A Jeju agriculture has potential for further development in the future.
- ② Positive outlook was given by experts that Jeju agriculture has a prospective for advancement like Holland.
- ③ The most systematic and effectively managed agricultural field in Jeju is the mandarin industry.
- ④ The most effective and prosperous policy in recent years was the citrus orchard spacing and cutting, and high-quality mandarin optimal production.

The measurement of the current agricultural problems confronted by Jeju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① Extensive transition of paradigm for the revolution of Jeju agriculture.
- ② Agricultural promotion to prepare for the *South-North Reunification* as North Korea can become a new market for agricultural products of Jeju.
- ③ Introduction of a observation system to adjust the demand for winter seasonal vegetables.
- ④ Introduction of community business to agriculture and promotion of local farming.
- ⑤ Creation of jobs through agriculture and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health tourism and stabilization of income for farming households.
- ⑥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Jeju mandarin industry are:
  - Need for structural improvement to deal with an expansion of

market and to pursue the Jeju mandarin industry's development.

- Need for introduction of new systems to strive for the stabilization of income for rural low-income households
- Need for the breeding of new cultivars and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the Jeju mandarin production management.
- Need for innovation and expansion of the Jeju mandarin distribution organization and exportation.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제주농업은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전작을 중심으로 식량작물 위주의 자급적 농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차츰 소득이 높은 유채, 감귤 등 특용작물과 채소류 중심으로 전환 되었다. 또한 온난한 기후여건을 최대한 농업에 이용하여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소득을 증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농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였고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의 농가인구는 2010년 기준 114,752명으로 전체인구의 19.8%를 차지하며, 농산물(축산제외)은 1차 산업 생산액의 51.9%를 차지하는 등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농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타 시·도에 비하여 매우 높다(제주도, 2011b).

그러나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 한·칠레, 한·EU, 한·미 등 동시다발적인 FTA(Free Trade Agreement)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존의 농업생산과 유통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조성,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 지원확대, 친환경농업 실천, 감귤원 폐원·간벌·품종갱신, 만감류 및 시설재배 확대 등 생산구조조정과 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시설 등 산지유통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고, 품목도 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시설농업의 발달로 육지부의 시설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의 생산량 증가는 제주감귤은 물론 사과, 배, 단감 등 겨울철 과실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주지역의 정채된 작물재배 형태는 새로운 소득 보완 작목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에도 한

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불안정한 가격, 농산물의 수입확대 등에 대응한 근본적 대책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2차 산업 발전이 불리하여 어쩔 수 없이 농업의 중요성을 불가피하게 강조하기 보다는 농업이 관광 등 타 산업과 상호보완·병행으로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제주 지역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주농업의 현황과 제주지역 주요 재배 농작물의 작물별 재배면적, 생산량, 조수입 등 변천과정을 살피고, 제주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인의 의식과 제주농업과 농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학계, 언론, 행정,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농업전문가 설문조사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분석하는 등 제주농업과 농정의 발전 방안에 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통계연보, 농림통계연보, 제주도 주요 농축산 현황 등 농업통계 및 현황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감귤을 비롯한 제주지역 주요 농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량, 단위면적당 수량, 조수입 등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재배추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인용된 작물의 생산량은 정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 4월 1~20일까지 감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97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농업인의 농정시책 참여정도, 만족도 등 농업인 의식과 농정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1년 8~9월까지 도내 거주 농업인을 임의 선정 본 논문 연구자가 직접 농가를 방문 설문을 배포하고 회수하여 103부의 유효표본을 확보 분석하였다.

제기된 제주농업과 농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2011년 9~10월까지 제주도내 농업관련 연구원과 학계, 언론사의 농업관련 기자, 농·감협 등 생산자단체 임직원, 농업관련 공무원, 농업인 대표자 등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제주농업의 문제점과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을 배포하고 회수하여 이를 분석·고찰(考察)하였다.

## Ⅱ. 제주지역 농작물의 재배변천 분석 및 농업의 연대별 특성

### 1. 제주농업의 여건

#### 1) 입지조건

##### 가. 지정학적 조건

###### (1) 위 치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단, 한국, 중국, 일본 등 극동지역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동단(성산읍 성산리)은 동경 126°56' 49", 북위 33°27' 24", 서단(한경면 고산리)은 동경 126°09' 38", 북위 33°17' 33", 남단(대정읍 하모리)은 동경 126°17' 23", 북위 33°11' 42", 북단(구좌읍 김녕리)은 동경 126°45' 56", 북위 33°33' 58" 이고, 본도의 경선에 같이 위치한 주요도시들은 목포, 군산, 인천, 만포 등이다(제주도, 2011a).

제주도의 동서간 거리는 약 73.3km, 남북간 거리는 약 41.0km로 동서간의 거리가 남북의 거리보다 1.79배에 달한다.

육지부 목포와의 거리는 154km, 부산과의 거리는 304km, 일본 대마도와는 255km나 떨어져 있으며, 동으로는 남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대하고 서쪽으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본토와 남은 동중국해와 면하고 북은 남해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대하고 있는 절해의 고도(孤島)이다.

###### (2) 면 적

제주도의 총면적은 1,848.728km<sup>2</sup>로 전국의 1.86%에 해당되며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977.936km<sup>2</sup>(53%), 서귀포시가 870.792km<sup>2</sup>(47%)이다.

해안선(Coastline Length)의 길이는 307km로 제주시가 147km, 서귀포시가 160km 이며, 도서는 63개(제주시 51, 서귀포시 12) 이며 이중 유인도가 8개 무인도가 55개이다(표 1).

제주도의 지형상 고도 200m 이하의 해안지대 면적은 1,015.3km<sup>2</sup>로 전체면적의 54.8%로 주로 농경지와 거주지로 이용되며, 200~600m의 중산간 지대는 588.9km<sup>2</sup>로 전체 면적의 31.8%를 차지하여 주로 목야지나 유희지로 이용되고 있다.

600m이상 산간지대는 244.5km<sup>2</sup>로 전체면적의 10.4%를 차지하며 산림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중앙부 1,000m이상의 고산지대는 81.3km<sup>2</sup>로 전체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다(제주도, 2011e).

2009년 현재 농경지 면적은 59,485ha로서 제주시가 30,711ha(51.65%), 서귀포시 28,774ha(48.4%)차지하고, 답(畓)이 58ha, 전(田)이 59,427ha이다.

< 표 1 > 면적, 해안선 길이, 경지면적

구 분	면 적 (km <sup>2</sup> )	해안선길이 (km)	부속도서(유인도) (개)	경지면적 (ha)
계	1,848.728	307	63(8)	59,485
제 주 시	977.936	147	51(6)	30,711
서귀포시	870.792	160	12(2)	28,774

자 료 : 제주도, 주요농축산현황, 2011.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2010

## 나. 기상적 조건

### (1) 기 온

2010년도 제주도의 연평균 기온은 제주시 지역이 15.6℃, 서귀포시 지역이 16.9℃이며(표 2), 최고기온은 제주시 지역이 35.8℃, 서귀포시 지역이 33.0℃이고 최저기온은 제주지역이 -2.30℃, 서귀포 지역이 -2.70℃를 기록하였다(제주도, 2011b).

### (2) 강 수

2010년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제주시 지역이 1,584.9mm, 서귀포시 지역이 2,393.3mm로 1995년에 비하여 제주시 지역은 112.0mm, 서귀포시 지역은 112.9mm가 더 많다(표 2).

### (3) 일조시수

우리나라 일조시수의 연 분산상태를 보면 전국평균은 2,200~2,700시간인데, 제주도의 경우는 사면 환해의 고도인데다 중앙에 1,950m의 한라산이 솟아 있기 때문에 기상변화가 다양하여 연간 일조시수는 1,900~2,200시간 정도로 내륙에 비하여 적다.

또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남과 산북 간에도 계절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고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심하다. 2010년도인 경우 연간 총 일조시수는 제주시가 1,681.8시간, 서귀포시가 1,833.5시간이다(표 2).

< 표 2 > 연평균 기상개황

연 도	평균기온 (℃)		강 수 량 (mm)		상대습도 (%)		일조시간 (h)		풍 속 (m/s)	
	제주시	서귀포	제주시	서귀포	제주시	서귀포	제주시	서귀포	제주시	서귀포
'61~'90	15.3	15.9	1,423.6	1,771.4	-	-	1,935.5	2,068.0	-	-
1995	15.6	16.0	1,472.9	2,280.4	72.0	67.0	1,945.8	2,214.3	3.5	2.7
2005	16.2	16.2	872.5	1,390.6	64.0	66.0	1,770.1	2,150.0	3.5	3.0
2010	15.6	16.9	1,584.9	2,393.3	66.0	69.0	1,681.8	1,833.5	3.3	2.7

자 료 : 기상청, 한국기후표, 1991.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제주지방기상청 기후팀. 제주도, 주요농축산현황, 2011

### 다. 지형 및 토양조건

#### (1) 지 형

제주도는 주로 신생대 제 4기에 형성된 화산도로서 화산지형 특성상 침식윤회 단계에서 유년기에 해당하며 화산 원지형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

평면도상의 모양은 타원체(장축인 동서간 거리의 길이 73.3km, 단축인 남북간 거리의 길이 41.0km)이며 지세는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여 동서사면은 매우 완만한 경사(3~5°)를 이루나 남북사면은 급한 사면(5~10°)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보아 쉴드화산체(Shield Volcano)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스피테(Aspite) 화산(순상화산)이다(제주도, 2011e).



## (2) 토 양

제주도 토양은 대부분 전형적인 화산회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토양의 주된 모재는 현무암이며, 일부는 조면암 및 퇴적암이다.

그리고 화산과 용기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토양마다 모재인 화산회(火山灰)의 집적양식 및 생성시기가 각각 다르다. 또한 토양의 생성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기후·식생·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화산회에서 유래된 토양이라 할지라도 토양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토양에 대한 정밀토양조사는 1975년에 완성되었으며 조사결과를 Soil Texonomy 분류법으로 분류하면 66개의 토양통, 75개의 토양구 그리고 178개의 토양상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전국에 존재하는 토양통이 375개인 점을 고려 할 때 제주도 토양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제주도, 1993).

일반적으로 토양도에서 토양의 특성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목, 아목, 대군, 아군, 속, 통의 6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토양분류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통이다. 1976년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작성한 토양도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밝혀진 중요한 토양통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토양통 몇 개를 한 데 모아 암갈색토, 농암갈색토, 흑색토, 적황색토 등 4개의 토양군으로 구분하였다(제주도, 1993;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0).

### a) 동귀-구엄-용흥 토양군(암갈색·비화산회토)

제주시 해안변에 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경사는 대체로 30% 미만이다. 이 토양군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동귀통은 28.28%인 8,759ha로서 배수가 양호하고 전층을 통하여 자갈이 35% 미만 산재되어 있다.

구엄통은 이 토양군 가운데 10.26%인 3,179ha의 면적을 차지하여 배수가 양호한 미사식양토로서 대개 40~50cm 토층하부에 풍화가 안된 견고한 암반들이 놓여 있다.

용흥통은 서귀포시에 분포되어 이 토양군 가운데 8.51%인 2,636ha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배수가 양호한 식질계 토양으로 토양 단면내에 자갈이 35% 미만 산재되어 있다

그 밖에 가파, 강정, 고산, 낙천, 대정, 대흥, 동흥, 무릉, 사라, 석토, 애월, 영락, 온평, 용강, 용당, 용수, 월령, 월평, 이도, 조천, 지산, 하원 및 해안통 등이 이에 속한다.

#### b) 중문-오라-구좌 토양군(농암갈색·화산회토)

중문통은 주로 중산간 지대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배수가 양호하고 토층은 돌과 둥근 바위가 산재해 있고 급경사지를 제외하고는 간이초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양통인데 2~3%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라통은 배수가 양호한 미사식양질로서 전층을 통하여 15% 미만의 자갈이 산재해 있으며 전 또는 과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양통으로 토심이 깊고 2~7% 경사를 이루고 있다.

구좌통은 배수가 매우 양호하며 표토로부터 10~20cm 토층하부에 풍화가 안된 암반이 놓여 있고 표토에도 곳곳에 암반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경지로 활용은 부적당하며 자연초지가 대부분이다. 그 밖에 감산, 산방, 인성통도 이에 속하나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 c) 평대-행원-민악토양군(흑색화산회토)

제주도의 동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경사는 0~100% 범위이다. 이 토양군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평대통은 24.06%인 9,474ha로 배수가 양호하고 표토로부터 흑색층의 두께는 20~30cm 범위이다.

행원통은 이 토양군 가운데 11.64%인 4,585ha로서 전층을 통하여 50% 이상의 분석이 있는 양질계 토양으로 배수가 양호하다.

민악통은 이 토양 가운데 11.06%인 4,353ha로서 토층 내에 돌 혹은 둥근 바위가 산재해 있으며 배수가 양호한 미사식양질토이다.

그밖에 금악, 김녕, 남원, 녹산, 미악, 송당, 신엄, 위미, 이호, 토평, 표선, 한경, 하모통 등이 이에 속하나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금악, 녹산 및 미악통은 주로 분석구(Cindercone)에 분포하여 야생초가 자생하고 있다.

#### d) 흑악-노로-적악토양군(농암갈색 산악지)

현무암을 모재로 한 토양으로 해발 700m 이상인 삼림지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경사는 2~100% 범위이다. 이 토양군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 흑악통은 43.44%인 10,851ha로 배수가 양호하고 전 층에 돌과 둥근 바위가 산재한 미사식양질토이다.

노로통은 이 토양군 가운데 24.29%인 6,066ha로서 토색은 적갈색이며 토층내에 돌 혹은 둥근 바위가 산재하여 있으며 배수가 양호한 미사식양질토이다.

적악통은 이 토양군 가운데 9.97%인 2,490ha로서 삼림지대의 분석구에 분포하여 적갈색을 띠우며 토층 내에 자갈이 산재한 양질계 토양이다.

이밖에 균산, 논고, 토산통 등이 이에 속하나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생은 주로 임야인데 이들 토양 가운데 균산통의 일부가 용암통 평탄지에 분포하고 있다.

## 2) 농가 등 인적조건

### 가. 농가 및 농가인구

제주도의 농가 및 농가인구는 1938년 약 44,000농가에 농가인구는 약 176,000명으로 전체인구의 88%, 1970년 55,558농가에 248,000명으로 전체인구의 68%를 차지하였으나, 경제성장과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서는 농가인구가 전체인구의 50%이하로 감소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번기에 노동력 부족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제주도, 1957~2010).

2009년 기준 제주도의 총 농가 수는 3만 5,388호로 우리나라 전체 농가(119만 4,715호)의 2.9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농가 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1%의 감소율을 나타내지만, 전국 농가 수 연평균 감소율 1.6%에 비하면 감소 폭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전국 대비 농가 수 비중은 2000년 2.83%, 2005년 2.85%, 2009년 2.96%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표 3).

< 표 3 > 제주도의 농가 현황

(단위 : 천호,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전 국	1,383.50	1,272.90	1,245.10	1,231.00	1,212.10	1,194.70
제 주 도	39.10	36.20	36.50	35.70	34.60	35.40
비 율	2.83	2.85	2.93	2.90	2.86	2.96

자 료 : 통계청, 행정구역별 농가 및 농가인구, 2010

## 나. 업태별 농가현황

경제성장에 따라 농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경종양상도 다양하게 바뀌어 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보아 1960년 전반기까지는 대체로 식량작물 위주의 경종농업 즉 자급자족의 경영형태를 탈피하지 못한 단순경영 형태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때를 맞추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강력한 농업행정의 뒷받침으로 감귤, 유채, 고구마, 맥주맥 등 경제작물의 개발과 관련기관에서의 재배기술의 향상에 관한 시험과 기술보급에 힘입어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제주도, 1993).

전업농은 1985년 27,888농가에서 1995년 17,957농가, 2009년에는 13,363농가로 감소하고 있다. 1종 겸업농은 2009년 기준 9,583농가로 26.3%, 2종 겸업농이 12,424농가 34.1%를 차지하고 있다(표 4).

< 표 4 > 업태별 농가

(단위 : 농가)

연 도	업 종 별			
	계	전 업	1종겸업	2종겸업
1970	55,558	-	-	-
1975	55,736	44,015	7,086	4,635
1980	53,227	-	-	-
1985	42,278	27,888	7,138	7,252
1990	40,147	19,339	14,055	6,573
1995	39,781	17,506	11,966	10,309
2000	39,114	18,288	9,948	10,878
2005	36,218	16,385	9,263	10,570
2009	36,388	13,363	9,583	12,424

자 료 : 제주도, 제주도통계연보, 각년도

## 다. 영농 형태별 농가 현황

제주도의 영농형태별 농가 비중은 2009년 기준 과수와 채소 재배농가 87.6%, 일반 밭작물 재배농가가 7.8%를 차지하는데 과수와 채소 재배농가 비율은 각각 52.0%, 35.6%로 전국의 재배농가 비율 12.4%, 21.6%보다 높는데 이는 16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감귤은 전국 재배면적의 99.0%를 차지하며, 양배추, 무,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 월동 노지채소의 주산지이다(표 5).

< 표 5 > 제주도의 영농 형태별 농가 추이

(단위 : 천호,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09년 비중
전	전 체	1,383.5	1,272.9	1,245.1	1,231.0	1,212.1	1,194.7	100.0
	논 벼	787.5	648.3	639.1	610.3	598.4	571.5	47.8
	과 수	143.4	145.2	138.8	144.1	146.0	147.7	12.4
	채 소	238.3	230.0	261.1	264.6	260.3	258.5	21.6
	노 지	169.5	164.8	195.4	196.3	191.1	191.0	16.0
	시 설	68.8	65.2	65.7	68.3	69.3	67.5	5.7
	특용작물	37.6	27.9	37.1	37.4	40.3	44.4	3.7
	화 훼	8.1	10.2	10.4	10.8	11.3	12.5	1.1
	일반밭작물	91.9	125.5	78.4	77.1	73.1	75.6	6.3
	축 산	72.2	82.3	73.6	80.3	76.4	80.0	6.7
기 타	4.5	3.5	6.6	6.5	6.3	4.6	0.4	
제	전 체	39.1	36.2	36.5	35.7	34.6	35.4	100.0
	논 벼	0.0	0.0	0.0	0.0	0.0	0.0	0.1
	과 수	23.1	20.5	18.3	17.9	17.6	18.4	52.0
	채 소	9.2	8.7	13.3	13.4	12.5	12.6	35.6
	노 지	9.0	8.5	12.9	13.0	12.1	12.2	34.5
	시 설	0.2	0.2	0.4	0.3	0.4	0.4	1.1
	특용작물	0.7	0.4	1.0	1.0	1.0	0.7	2.0
	화 훼	0.4	0.3	0.2	0.1	0.1	0.2	0.6
	일반밭작물	4.9	5.3	2.9	2.5	2.4	2.8	7.8
	축 산	0.8	0.9	0.5	0.7	0.6	0.6	1.8
기 타	0.1	0.0	0.3	0.2	0.3	0.0	0.0	

자 료 : 통계청, 영농형태별 농가수, 2010

#### 라.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상황

농가인구의 연령별 구성상황을 보면 1969년에 60세 이상 구성 비율이 9.0%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 11.3%, 1991년 10.2%, 1992년 10.4%, 1993년 11.3%, 1995년 12.1%, 2005년 29.90%, 2009년에 31.40%로 매년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고령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농업의 발전과 연속성을 위하여 영농후계자 육성 등 새로운 농업인 육성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 표 6 >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 : 명)

연 도	계	0~19세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1969	271,903	136,109	88,968	-	-	22,430	24,376
1975	254,839	132,968	81,717	-	-	16,299	23,855
1979	233,526	116,974	76,857	-	-	17,327	22,368
1985	185,339	83,272	64,610	-	-	20,320	20,950
1990	164,014	61,826	57,980	-	-	23,075	21,133
1991	153,280	51,266	24,344	14,774	17,642	23,132	15,701
1992	152,093	49,288	25,197	17,053	17,587	21,491	15,832
1993	151,450	47,280	24,861	17,429	17,250	21,196	17,107
1994	147,400	43,081	25,239	16,568	17,005	21,100	17,725
1995	145,579	39,581	27,816	16,343	16,692	21,451	17,680
2000	129,152	31,843	18,526	15,929	16,279	19,381	27,194
2005	110,281	23,718	12,007	12,908	13,505	15,170	32,973
2009	104,802	22,793	8,436	11,962	13,505	15,170	32,936

자 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 마. 경영 규모별 현황

##### (1) 농가당 경지면적

1960년 농가구당 경지면적은 0.87ha, 1980년 0.94ha, 1995년 1.42ha로 정부의 농지보전정책과 중산간지역의 산림개간 등으로 꾸준히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안변인 경우는 도시개발에 따른 주택부지 등으로 상대적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 기준 농가구당 경지면적은 1.68ha이며 지역별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은 서귀포시가 1.73ha로 제주시 1.64ha보다 높다.

이는 전국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 1.45ha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전북 1.84ha, 전남 1.71ha에 이어 3번째이다. 이처럼 제주도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이 전국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 보다 높은 이유는 농가수의 감소와 감귤원 대규모 재배농가 증가 등의 원인으로 경지면적이 1.0ha 이상인 농가 비율이 전국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되는데, 1.0ha 이상인 농가 비율은 37.7%로 전국 비율 34.3%보다 3.4%포인트가 높다(표 7).

< 표 7 > 농가구당 경지면적

(단위 : ha)

연 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9
경 지 면 적	43,176	35,810	50,116	54,788	59,207	56,812
농가당경지면적	0.87	0.64	0.94	1.36	1.51	1.68

자 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2) 경영규모별 농가 수

경영규모별 경지면적이 1.0ha미만 농가 수는 1969년에 38,986농가로 67.1%, 1985년에 27,286농가 64.5%, 2000년에 22,761농가로 58.27%, 2009년 22,029농가로 60.5%이며 3.0ha 이상 농가는 1985년 482농가 1.1%에서 2009년 3,237농가로 8.9%로 증가하였다(표 8).

< 표 8 > 경영규모별 현황

(단위 : 호)

연 도	계	경지없는 농가	0.1ha미만	0.1h이상~ 0.5ha미만	0.5h이상~ 1.0ha미만	1.0h이상~ 1.5ha미만	1.5h이상~ 2.0ha미만	2.0h이상~ 3.0ha미만	3.0h이상
1969	58,090	-	10,316	11,046	17,624	15,994	-	2,767	636
1979	53,162	2,672	130	17,045	17,110	8,834	4,662	2,165	544
1980	53,227	-	-	-	-	-	-	-	-
1985	42,278	639	30	11,976	14,641	8,050	4,101	2,359	482
1990	40,147	315	228	11,424	12,371	6,769	4,291	3,181	1,568
1995	39,781	386	403	11,817	11,412	5,809	4,252	3,337	2,365
2000	39,114	285	483	10,552	11,441	5,029	4,487	3,321	3,516
2005	36,218	417	586	10,613	10,350	4,144	3,908	2,796	3,404
2009	35,388	305	409	10,600	10,715	4,635	3,203	2,282	3,239

자 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2009년 기준 경지면적이 3.0ha 이상인 농가 비율 8.9%는 전국 비율 7.5%보다 1.4%가 높은데 이는 농가수의 감소와 감귤, 감자 등 대단위 재배가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재배형태의 요구로 타 지역에 비해 영농의 규모화를 추구하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경지가 없는 농가 비율은 0.9%로 전국의 1.2%에 비해 다소 낮으며,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인 농가 비율은 30.2%로 전국 39.3%보다 9.1%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요작물 재배변천 및 분석

제주도는 척박한 토양과 강한 바람 등은 다양한 기상조건은 작물재배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제주농업의 발달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제주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지적작 재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재배기술의 고도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주도는 현재 감귤과 밭작물 위주의 재배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60년대 이전에는 맥류, 조, 두류, 서류 등이 주요 재배작물이었다(부표 1, 2).

지력은 낮아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전국 단위생산량의 70~80%에 불과하여 자급자족경영의 영세농민에게는 큰 어려움을 주었다. 8.15 광복 이후에는 수년 동안 사회의 혼란과 4.3사건, 6.25 등 혼란한 시대상으로 제주도 농업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195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 농촌운동이 전개되는 등 농업의 꾸준한 기반을 다졌으며, 1960년대 초반부터 경지확장, 토양개량, 지역적 작물의 적응시험과 재배기술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과 함께 1980년대부터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경제작물재배가 확대됨에 따라 맥류, 조, 육도, 대두, 소두, 녹두 등 과거 자급자족 식량작물 생산형태의 경영에서 과수, 시설농업 등 소득이 높은 경제작물 생산으로 영농형태가 전환되었다(부표 1, 2).

### 1) 미곡류 재배현황

#### 가. 논벼

제주도는 무상기간이 270일 이상으로 고온작물인 논벼는 생육기간과 생육온도에서 유리한 조건이나 수잉기(穗孕期)인 7월 중하순경의 태풍으로 도복의 우려가 늘 상존하고 있다.

논벼의 재배면적은 1960년 961ha, 1970년 924ha, 1980년 810ha, 1990년 551ha, 1997년 129ha이었으며 1982년 1,112ha를 최대로 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산남(서귀포시 강정동, 법환동, 월평동) 지역의 논(畓)이 마나



나, 과인애플, 화훼 등 당시 수익성이 높은 특용작물 재배로 상당 면적이 전환된 것이 주요 원인이며, 2009년 기준 논벼의 재배면적은 25ha이다.

10a당 수량은 1960년 152kg, 1990년 369kg 이었으며, 1997년도인 경우 444kg으로 1950(1957년 이후)년대 평균 160kg에 비하여 17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품종 개량,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개발과 재배기술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1970년대 이후는 1986년도에 10a당 수량은 231kg으로 가장 낮는데 이는 태풍 낸시호(6.24~6.25), 베라호(8. 27~8. 28) 내습 등 기상영향으로 임실율(稔實率)이 떨어진 때문으로 사료된다(표 9).

2000년대에 들어 10a당 수량은 427~472kg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품종개량을 비롯하여 비료, 농약, 재배기술 등 영농의 발달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전체 생산량은 통일벼 재배가 장려되던 1977년도에 989ha에서 4,109M/T을 생산하여 최대를 기록하였다.

#### 나. 밭벼

논 면적이 한정된 지역적인 여건으로 198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찰벼를 재배하는 밭벼는 매우 중요시되었다.

재배면적은 1960년 1,141ha, 1970년 1,077ha로, 1970년대 까지만 하여도 1,000ha 이상 재배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 재배면적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0년 246ha, 1996년도에는 41ha가 재배되었다.

그 후 찰벼는 거의 재배되지 않았으나 2000년대에 들어 농지의 윤작체계와 농가의 쌀 자급자족을 위해 논벼를 밭에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재배가 확대되어 2000년 71ha, 2005년 1,157ha, 2009년 1,3081ha로 증가하였다.

10a당 수량은 1960년 56kg, 1980년 125kg, 1990년 184kg, 2005년 229kg, 2009년 298kg이다.

재배가 다시 확대된 2000년대 들어 10a당 수량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생산량이 높은 논벼를 밭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며, 2000년 이전 최고의 수량은 1992년 193kg으로 이는 50(1957년 이후)년대 평균45kg에 비하여 329%가 증가한 것이다(표 9).

< 표 9 > 수도·육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연 도	논 벼			밭 벼		
	재배면적 (ha)	수 량 (kg/10a)	생 산 량 (M/T)	재배면적 (ha)	수 량 (kg/10a)	생 산 량 (M/T)
1960	961	152	1,458	1,141	56	1,219
1995	143	387	553	-	-	-
1970	924	214	1,980	1,077	67	723
1980	810	320	2,590	1,227	125	1,536
1985	901	361	3,257	257	172	442
1990	551	369	2,035	246	184	453
1995	143	387	553	-	-	-
2000	134	427	572	71	194	138
2005	51	418	213	1,157	229	2,650
2009	25	472	118	1,308	298	3,900

자 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 2) 맥류 재배현황

### 가. 쌀보리

1980년대까지 1,000ha이상 재배되었던 작물로 1965년에는 재배면적이 24,553ha로 최대를 기록하였으나 소득이 높은 감귤, 감자 등 경제작물 재배가 증가하면서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연도별 재배면적은 1960년 17,358ha, 1980년 6,930ha, 1990년 432ha, 2000년 58ha, 2009년 232ha이다.

10a당 수량은 1957년도 84kg, 1970년 189kg, 1990년 259kg, 1995년 326kg, 2000년 362kg 2009년 260kg이다(표 10).

### 나. 맥주보리

맥주원료로 수매하면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한 맥주보리의 재배면적은 1990년대 들어 지속적인 감귤원 조성과 감자가 감귤다음 제 2의 소득 작물로 부상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재배면적은 1960년 10,379ha, 1980년 8,596ha, 1990년 8,890ha, 1961년에는 11,477ha로 최대를 기록하였고 2009년은 2,722ha이다(표 10).

10a당 수량은 1960년 87kg, 1990년 281kg, 1997년도인 경우 348kg이며, 1995년도 414kg, 2009년 334kg이다.

< 표 10 > 맥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연 도	쌀 보 리			맥주보리		
	재배면적 (ha)	수 량 (kg/10a)	생 산 량 (M/T)	재배면적 (ha)	수 량 (kg/10a)	생 산 량 (M/T)
1960	17,358	110	19,622	10,379	87	9,090
1970	22,264	189	42,063	2,760	189	5,201
1980	6,930	259	17,949	8,596	262	22,520
1985	2,949	246	7,255	9,816	276	27,092
1990	432	259	1,119	8,890	281	24,981
1995	9	326	29	5,965	414	24,695
2000	58	362	210	2,518	495	12,464
2005	28	315	88	2,210	386	8,531
2009	232	260	603	2,722	334	9,078

자 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 다. 밀

밀은 1957년 1,540ha에 651M/T, 1960년 1,444ha에 835M/T, 1965년 425ha에 654M/T, 1970년 8ha에 8M/T, 1972년 17ha에 12M/T이 생산되었다.

10a당 수량도 1957년 42kg, 1960년 57kg, 1965년 154kg, 1971년 149kg으로 쌀 보리(260~360kg)에 비하여 낮으며 밀가루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1960년대 중반이후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이후에는 거의 재배가 되고 있지 않다.

### 3) 잡곡류 재배현황

#### 가. 조

자급자족의 영농에서는 발작물 위주의 경종양식과 제주도의 척박한 농경지 여건상 조와 보리는 2대 식량작물로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다.

재배시기도 보리가 동계작물인데 반하여 조는 하계작물이므로 농경지 이용면에서나 작부체계상 빼놓을 수 없는 작물이었다.

재배면적은 1960년대 까지 5,000ha이상이었으나 1970년대 들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 984ha, 1995년 591ha, 2000년 283ha, 2005년 403ha, 2009년 90ha이다.

이렇게 조 재배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10a당 수량이 적어 소득이 낮고 제조작업이 어렵고 태풍 등의 피해를 받기 쉽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0a당 수량은 1957년 35kg, 1960년 62kg, 1970년 80kg, 1980년 151kg, 1990년 142kg, 1995년 167kg, 2000년 103kg, 2005년 107kg, 2009년 115kg이다(표 11).

#### 나. 메밀

메밀은 생육기간이 매우 짧은데다 기후에 대한 적응성이 비교적 크므로 재배범위가 넓다. 재배면적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1,000ha이상 재배되었으나, 그 후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100ha내외가 재배되었고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거의 재배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 바람을 타고 재배면적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작물 중 하나이다.

연도별 재배면적은 1960년 1,830ha, 1980년 433ha, 1990년 317ha, 1997년 88ha이고, 2000년에 1ha까지 감소한 이후 2001년 284ha, 2006년 340ha, 2009년 230ha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10a당 수량은 1960년 27kg에서 1990년 67kg로 증가되었고, 1995년 67kg, 2000년 50kg, 2005년 93kg, 2009년 103ha이다(표 11).

< 표 11 > 잡곡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연 도	조			메 밀		
	재배면적 (ha)	수 량	생 산 량 (M/T)	재배면적 (ha)	수 량 (kg/10a)	생 산 량 (M/T)
1960	17,540	62	10,864	1,830	27	489
1970	7,235	81	5,886	1,191	21	253
1980	984	151	1,485	433	57	247
1985	1,083	139	1,505	227	48	109
1990	1,340	142	1,903	317	67	212
1995	591	167	987	357	67	239
2000	283	103	291	1	50	83
2005	403	107	431	63	93	59
2009	90	115	104	230	103	237

자 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 4) 두류 재배현황

##### 가. 콩

콩은 농작물 재배의 작부체계나 윤작면에서 토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지력 향상을 위하여 재배되어 왔다.

연도별 재배면적은 1960년 3,151ha, 1970년 9,610ha, 1980년 7,748ha, 1985년 6,330ha, 1990년 8,722ha, 1995년 7,970ha, 2000년 5,597ha이었으며, 2005년 5,432ha, 2009년 7,639ha이며 1974년은 10,986ha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콩이 타 작물에 비해 재배면적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두부, 콩나물 소비 증가에 따라 콩 수요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가격이 비교적 좋았고 재배가 쉽기 때문이며 특히 제주산 콩은 콩나물 재배용으로 전국수요에 대부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0a당 수량은 1957년도 29kg, 1960년 40kg, 1970년 42kg에서 1980년대에 100kg을 넘었고, 1990년대에는 190kg을 넘어섰는데 1995년 199kg, 2000년 128kg, 2005년 168kg, 2009년 192kg이다(표 12).

##### 나. 팥

연도별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하였는데 1960년 623ha, 1990년 231ha, 1995년 96ha, 2005년 55ha, 2009년 45ha이다. 1973년 재배면적은 841ha로 최고를 기록 기록하였다. 10a당 수량은 1957년 25kg, 1960년 30kg, 1980년 52kg, 1990년 109kg, 2000년 61kg, 2009년 103kg이다(표 12).

##### 다. 녹두

연도별 재배면적은 1960년 81ha, 1970년 394ha, 1980년 75ha이며, 1990년 1,332ha로 크게 증가 하였다가 1995년 240ha, 2000년 152ha, 2005년 135ha, 2009년 300ha로 감소하였다. 1981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 된 것은 가격이 팥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0a당 수량은 1957년 23kg, 1980년 42kg, 1985년 45kg, 1990년 99g로 증가하였고, 1995년 90kg, 2000년 76kg, 2009년 101kg이다(표 12).

< 표 12 > 두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연 도	콩			팥			녹 두		
	재배면적 (ha)	수 량 (kg/10a)	생 산 량 (M/T)	재배면적 (ha)	수 량 (kg/10a)	생 산 량 (M/T)	재배면적 (ha)	수 량 (kg/10a)	생 산 량 (M/T)
1960	3,151	40	1,286	623	30	188	81	28	23
1970	9,610	42	4,011	523	32	165	394	35	140
1980	7,748	94	7,283	424	52	226	75	42	31
1985	6,330	112	7,090	311	42	131	1,062	49	520
1990	8,722	190	16,572	231	109	252	1,332	99	1,319
1995	7,970	199	15,860	96	118	113	240	90	216
2000	5,597	128	7,164	127	61	77	152	76	116
2005	5,432	168	9,126	55	78	43	135	96	130
2009	7,639	192	14,637	45	103	46	300	101	303

자 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 5) 서류 재배현황

### 가. 고구마

고구마는 양분 흡수력이 강하여 척박지에서도 생육이 잘 되고 환경조건에 적응력이 강하므로 예로부터 흉년에 대비하여 구황작물 즉 농가의 대용 식량작물로 재배되어 오다가 주정 및 전분의 원료로 재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주정원료로는 당밀과 타피오카가 싸게 수입되기 시작하자 고구마 가격이 하락되어 재배면적이 감소되었다.

연도별 재배면적은 1960년 7,094ha, 1970년 12,178ha, 1980년 10,580ha, 1990년 3,790ha, 1995년 1,295ha, 2000년 1,095ha, 2009년 140ha이며, 1966년 재배면적은 17,346ha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10a당 수량은 1970년 540kg, 1980년 667kg, 1985년 754kg, 1990년 761kg, 2000년 779kg, 2005년 2,150kg(조곡), 2009년 2,043kg(조곡)으로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표 13).

### 나. 감자

감자는 감귤을 제외한 주요작물 중 1970년대 이후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난

작물이며, 감자의 소비증가에 힘입어 제주에 있어서는 감귤다음 제2의 경제작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감자의 고품질 유지를 위하여 씨감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도별 재배면적은 1960년 306ha, 1970년 146ha, 1980년 1,105ha, 1985년 1,187ha, 1990년 2,779ha, 1995년 5,757ha, 2000년 4,923ha이며, 2005년 6,174ha, 2009년 2,413ha이다(표 13).

10a당 수량은 1970년 362kg, 1980년 321kg, 1985년 295kg, 1990년 359kg, 1995년 448kg, 2000년 325kg, 2005년 2,165kg(조곡), 2009년 2,099kg(조곡) 이다.

제주도에 감자재배 작형은 봄감자, 가을감자, 겨울감자 등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중 가을감자의 작부체계를 보면 대정, 안덕, 한경, 애월, 구좌 등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까지 파종하고 11월 중순부터 익년 4월까지 출하한 후 봄감자, 채소류 등을 재배하고 있다.

< 표 13 > 서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연 도	고 구 마			감 자		
	재배면적 (ha)	수 량 (kg/10a)	생 산 량 (M/T)	재배면적 (ha)	수 량 (kg/10a)	생 산 량 (M/T)
1960	7,094	1,024	72,672	306	791	2,422
1970	12,178	540	83,909	146	362	529
1980	10,580	667	70,582	1,105	321	3,546
1985	5,569	754	41,990	1,187	295	3,503
1990	3,790	761	28,842	2,779	359	9,977
1995	1,295	792	10,256	5,757	448	25,790
2000	1,095	779	8,530	4,923	325	15,990
2005	104	2,105	2,189	6,174	2,165	133,685
2009	140	2,043	2,860	2,413	2,099	50,641

자 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1960, 2005, 2009년은 조곡기준)

## 6) 유지작물 재배현황

### 가. 유채

유채는 1960년대 이후 경제작물로서 재배하기 시작하여 재배면적이 급증하였으나, 기름 착즙용 콩 수입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하락 1980년대 중반이후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연도별 재배면적은 1961년 1,199ha, 1970년 10,440ha, 1980년 8,150ha, 1990년 3,789ha, 2000년 1,737ha, 2005년 976ha, 2009년 718ha이며, 1977년은 14,512ha가 재배되어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재배면적의 감소에 따라 유채꽃의 관광 상품화 차원에서 재배확대를 위한 행정적 지원시책도 시행하고 있다.

10a당 수량은 1961년도 75kg, 1980년 192kg, 1990년 180kg, 2000년 154kg, 2009년 99kg이다(표 14).

#### 나. 참깨

참깨는 조미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작물로서 제주도에서의 참깨 재배는 대두, 조, 옥도 등 하계작물과 간작 및 혼작형태로 재배되어 오다가 1970년대 들어서 경제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작형태의 재배양식을 취하여 재배면적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연도별 재배면적은 1960년 77ha, 1970년 1,314ha, 1980년 6,329ha, 1990년 2,792ha, 2005년 1,982ha, 2009년 1,719ha이다.

10a당 수량은 1961년 20kg, 1980년 20kg, 1990년 62kg, 2000년 72kg, 2009년 36kg으로 태풍 등 기상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표 14).

< 표 14 > 유지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연 도	유 채			참 깨		
	재배면적 (ha)	수 량 (kg/10a)	생 산 량 (M/T)	재배면적 (ha)	수 량 (kg/10a)	생 산 량 (M/T)
1961	1,199	75	899	77	20	15
1970	10,440	93	9,718	1,314	29	381
1980	8,150	192	15,648	6,329	20	1,294
1985	6,251	157	9,827	7,286	25	1,850
1990	3,789	180	6,820	2,792	62	1,731
1995	1,957	196	3,836	1,724	54	931
2000	1,737	154	2,675	1,597	72	1,150
2005	976	165	1,610	1,982	72	1,427
2009	718	99	711	1,719	36	613

자 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 7) 채소류 재배현황

채소류는 제주의 온후한 기후와 농경지 이용상 육지부에 비하여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채소류 중 당근은 거의 일정면적을 재배하고 있으나, 마늘과 양과는 1990년 대 후반부터 재배면적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특히 무, 당근, 양배추 등 월동채소류는 지역별 주산지를 이루며 농가의 주요한 소득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채소류(근채류, 조미채류, 엽채류 등)는 육지부의 작황 등 생산량에 따라 연차별로 심한 가격편차를 나타내고 있어 적정생산, 안정적 출하조절 등의 유통 처리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제주도의회, 2011).

재배면적은 과채류(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호박 등)가 2000년 1,186ha, 2009년 846ha이며, 엽채류(배추, 시금치, 상추, 양배추 등)는 2000년 3,116ha, 2009년 2,812ha, 근채류(무, 당근 등)는 2000년 3,522ha, 2009년 6,108ha, 조미채류(고추, 파, 양파, 마늘 등)는 2000년 6,780ha, 2009년 5,665ha이다(표 15).

2009년 생산량은 과채류 15,129M/T, 엽채류 170,138M/T, 근채류 336,622M/T, 조미채류 142,158M/T이며, 무, 당근 등 근채류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 표 15 > 채소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연 도	계		과 채 류		엽 채 류		근 채 류		조미채류	
	재배면적 (ha)	생산량 (M/T)	재배면적 (ha)	생산량 (M/T)	재배면적 (ha)	생산량 (M/T)	재배면적 (ha)	생산량 (M/T)	재배면적 (ha)	생산량 (M/T)
2000	14,604	499,465	1,186	31,097	3,116	156,978	3,522	155,935	6,780	155,455
2005	16,470	600,432	1,022	33,331	2,869	158,537	6,290	276,832	6,289	131,732
2006	15,639	610,809	977	20,786	2,903	156,771	6,268	309,581	5,491	123,671
2007	15,312	602,599	1,162	24,635	2,758	159,589	5,811	262,650	5,581	155,725
2008	15,504	665,319	958	16,879	2,880	175,464	6,065	336,065	5,601	136,911
2009	15,431	664,227	846	15,129	2,812	170,318	6,108	336,622	5,665	142,158

자 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채소류 중 무, 당근, 양파, 양배추 등 월동채소는 가을에 파종하고 다음해 봄까

지 수확·출하하는 작형으로 육지부의 저장채소보다 신선도가 높은 장점이 있으나, 부피가 크고 해상운송에 따른 물리적 손상 등 유통측면에서 불리하다.

또한 2010년인 경우 제주지역 월동채소류는 가을무인 경우 전국 재배면적의 49.2%, 당근은 53.1%, 양파는 4.7%, 양배추 36.9%를 재배하고 있어 겨울철 채소류 생산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2011).

제주지역 주요 월동채소의 재배현황을 보면 가을무는 2010년 3,675ha로 2009년 대비 6.4%가 증가하였으나 생산량은 205,770M/T으로 2.5%가 감소하였고, 제주 동부지역에 주산지를 이루고 있는 당근은 2010년 재배면적 1,440ha로 2009년에 비하여 3.9%가 감소하였고, 양파는 2010년 재배면적은 1,043ha로 2009년보다 15.1%, 생산량은 56,592M/T으로 12.9%가 증가하였다(표 16).

양배추는 2010년 재배면적이 1,673ha에 생산량은 99,246M/T으로 2009년에 비하여 각각 2.4%, 1.7%가 증가 하였다(표 16).

< 표 16 > 주요월동 채소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ha, M/T)

연 도	지역별	가을무		당 근		양 파		양 배 추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재배 면적	생산량
2005	제 주	2,970	182,461	2,122	93,095	848	49,286	1,546	89,959
	전 국	8,854	579,212	3,178	121,448	16,737	1,023,331	5,164	289,906
2006	제 주	3,249	202,211	1,965	86,887	921	53,302	1,654	96,385
	전 국	9,758	667,218	3,433	134,418	15,315	889,620	6,050	332,616
2007	제 주	4,000	230,938	1,107	46,955	865	49,115	1,476	84,455
	전 국	7,162	459,048	2,267	81,738	17,751	1,213,376	6,061	334,470
2008	제 주	3,260	200,876	1,441	67,650	985	56,347	1,706	102,226
	전 국	8,948	675,013	2,766	105,750	15,392	1,035,075	6,089	328,148
2009	제 주	3,454	211,050	1,499	69,600	906	50,147	1,633	97,626
	전 국	7,771	624,297	2,827	106,298	18,514	1,372,291	5,993	331,429
2010	제 주	3,675	205,770	1,440	66,650	1,043	56,592	1,673	99,246
	전 국	7,473	473,230	2,711	102,116	22,113	1,411,645	4,524	252,685

자 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 8) 과수 재배현황

### 가. 감귤

제주감귤은 그 시원이 분명치 않으나 선사시대부터 자생하여 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남해안 지역은 감귤의 자생지권에 속하므로 자생종이 있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도 되나, 과거에 남겨진 기록이 없어 알 길이 없으며, 현재 재배되고 있는 온주밀감은 1911년 일본에서 도입되어 재배되기 시작하였다(제주대학교, 2008).

감귤은 제주지역 농업발전과 경제안정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소득 작목이다. 그러나 사과, 배, 시설딸기, 참외, 토마토 등 국내산 과실 및 과채류의 생산량 증가와 품질고급화 오렌지 등 외국산 신선과일의 수입량 증가로 소비시장에 과일 공급량이 늘어나고 또한 연중 공급체제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감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제주도, 2008).

1990년대 중반이후 연속되는 가격하락으로 농가는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감귤이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하여 폐원, 1/2간벌, 품종갱신, 만감류 및 시설재배 확대, 작형조정 등 생산구조조정과 감귤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시설 등 산지유통 혁신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 (1) 재배현황

감귤은 1954년 17ha에 불과하던 재배면적이 1967년 1,111ha로 1천ha를 넘었고 1980년대 중반이후 폭발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다가 1998년 26,283ha를 정점으로 하여 적정생산을 위한 폐원 등에 힘입어 매년 감소 2010년에는 1998년 보다 5,536ha가 감소한 20,747ha가 재배되고 있다(표 17).

최고의 생산량은 2002년 788,679M/T이며 노지감귤인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감귤재배 농가를 비롯한 감귤산업 종사자들의 적정생산 노력으로 60~70만 M/T 내외가 생산되고 있다(제주농협지역본부와 사단법인제주감귤협의회 2010).

감귤재배 농가는 2010년 기준 30,950농가로 이는 전체 37,919농가의 81.5%로 농가에서는 대부분 감귤을 재배하고 있다.

< 표 17 > 감귤재배 일반현황

연 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M/T)	농 가 수 (호)
1953	17	6	-
1963	102	509	41
1967	1,111	1,621	173
1970	4,842	4,972	1,732
1980	14,095	187,470	19,996
1990	19,414	492,700	25,616
2000	25,796	563,341	36,590
2002	25,207	788,679	35,078
2010	20,747	568,478	30,905

자 료 : 제주도, 주요농축산현황, 각년도

### (3)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현황

최근 감귤의 연중 생산체계를 위하여 만감류 재배가 확대되고 있으며 연도별 만감류 재배면적은 1995년 428ha, 2000년 665ha, 2002년 975ha이며 2003년 1,396ha로 1천ha를 넘어섰고 생산량도 14,345M/T로 1만톤을 넘어섰다.

2010년 만감류 등 하우스감귤 재배면적은 2,825.9ha(가온 하우스 312.3, 무가온 하우스 812.9, 만감류 1,700.7)로 이는 전체 재배면적 20,747ha의 13.6%에 해당하며 생산량은 87,913M/T(가온 하우스 21,602, 무가온 하우스 23,485, 만감류 42,826) 으로 전체 생산량 568,478M/T의 15%를 점유하고 있다(표 18).

만감류 등 하우스감귤 재배면적이 2000년대에 들어 확대된 것은 노지온주밀감 출하시기가 저장성을 고려 할 때 10월 중순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정되어 온주밀감 단일 재배형태로는 홍수출하 등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소비자는 다양한 품종의 과일 요구에 따라 감귤도 품종 다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일본 등 외국산 품종을 도입 재배시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에 의한 로열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최, 2011).

< 표 18 > 품종별 재배 및 생산 현황

(단위 : ha, M/T)

연도	구분	계	온주밀감				만감류		
			소계	노지	하우스	월동	소계	노지	하우스
2003	면적	24,560.0	23,192.1	22,456.0	462.0	274.1	1,396.0	15.2	1,380.8
	생산량	645,587	631,883	597,373	26,620	7,890	14,345	142	14,203
2004	면적	22,048.2	20,584.2	19,725.0	429.5	429.7	1,464.0	46.8	1,417.2
	생산량	595,591	573,939	536,668	25,903	11,368	21,652	479	21,173
2005	면적	21,430.1	19,960.3	19,085.9	408.7	465.6	1,469.8	57.1	1,412.7
	생산량	661,992	637,696	600,511	23,751	13,434	24,296	475	23,821
2006	면적	21,382.4	19,888.4	19,034.6	352.1	501.3	1,494.0	48.2	1,445.8
	생산량	631,324	603,737	568,920	20,341	14,476	27,587	484	27,103
2007	면적	20,965.0	19,458.6	18,535.0	359.0	564.6	1,506.4	40.3	1,466.1
	생산량	747,376	718,129	677,770	22,895	17,464	29,247	359	28,888
2008	면적	20,938.7	19,406.8	18,456.6	312.6	637.6	1,531.9	34.4	1,497.5
	생산량	592,160	560,616	520,350	22,356	17,910	31,544	461	31,083
2009	면적	20,898.2	19,324.8	18,279.0	304.1	741.7	1,573.4	50.3	1,523.1
	생산량	741,014	702,102	655,046	22,636	24,420	38,912	616	38,296
2010	면적	20,746.7	19,046.0	17,920.8	312.3	812.9	1,700.7	74.0	1,626.7
	생산량	568,478	525,652	480,565	21,602	23,485	42,826	949	41,877

자료 : 제주도, 주요농축산현황, 각년도

#### (4) 연도별 조수입 현황

제주감귤은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감귤가격이 매년 하락 하였다. 이는 소비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으나 국내산 과일과 과채류의 생산량 증가와 품질향상, 시장개방에 따른 오펀지 등 신선과일의 수입량 증가 등 소비시장 적정수요를 초과하는 과일 공급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비자의 다품목 소량구매 추세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안정생산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2003년 이후 매년(2007년 제외) 조수입 6,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인 경우 감귤조수입은 6,685억원으로 이중 노지감귤은 61%인 4,052억원, 가온하우스 745억원, 월동온주 300억원, 기타 만감류 1,588억원이다(표 19).

< 표 19 > 작형별 조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85,858	627,904	621,381	693,342	457,406	656,238	626,865	704,392
감 굴	470,415	610,491	600,639	660,288	431,883	631,325	601,113	668,484
노 지	337,932	447,062	446,271	470,239	251,523	415,454	353,518	405,205
하우스	73,644	68,604	65,905	63,202	78,013	71,941	72,445	74,507
월 동	12,831	25,646	18,140	34,214	18,531	36,101	43,171	29,958
만감류	46,008	69,179	70,323	92,634	83,816	107,829	131,979	158,814
기타과수류	15,443	17,413	20,742	33,054	25,523	24,913	25,752	35,908

자 료 : 제주도, 주요농축산현황, 각년도

## (2)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정책

### a)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개정

1995년 WTO체제가 출범되면서 무한경쟁시대가 개막되었지만, 제주감귤은 시장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 등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기관단체, 농업인 등은 감귤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하고, 감귤조례 제정 기획단을 구성하여 감귤유통실태 분석, 설문조사, 각계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통하여 1996년 10월 14일 감귤조례 초안을 마련하였다(제주도, 2004).

1996년 12월 28일 감귤조례는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되어 1997년 1월 15일 제주도 조례 제2058호로 「제주도감귤생산조정및유통에관한조례」가 공포되었으며 동년 2월 26일 규칙 제1704호로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1999년에 전문 개정을 하였으며, 그 후 FTA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감귤정책 방향이 필요하게 되었고 감귤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감귤경쟁력 강화에 차질 없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

#### - 감귤조례 개정 상황

- 1999. 7. 5 : 전문개정(생산조정에 관한 사항 삭제, 감귤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 2000. 11. 29 : 휴식년제 추가 등 일부 개정
- 2002. 5. 8 : 과태료 부과규정 명문화 등 일부개정
- 2004. 7. 30 : 강제착색금지, 비상품 범위 확대, 선과장 등록제 등 일부개정
- 2005. 9. 24 : 한라봉 비상품 기준, 한라봉 품질우수 감귤기준 등 일부 개정
- 2005. 11. 2 : 감귤품질표시, 한라봉 품질기준 등 일부개정
- 2006. 10. 18 :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
- 2008. 7. 9 : 감귤표면 피막제 사용금지 규정 삭제 일부개정

### b) 감귤유통명령제 시행

감귤유통명령제는 2003년 10월 23일 제주감귤의 ‘현저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 농산물 중에는 처음으로 노지온주밀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유통조절명령’을 발령하였다.

유통명령제란 농수산물의 현저한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량·품질규제, 시장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제도이다.

감귤에 대한 유통명령은 2004년부터 2009년산까지 연속적(2008년산 제외)으로 발령함으로써 저급품 감귤의 출하 차단과 고품질 감귤 출하를 통한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제주대학교, 2010).

< 표 20 > 감귤유통 명령제 발령상황

연 도	시행기간	대상지역	단속건수 (건)	비 고 (생산량/천톤)
2003	'03. 10. 28 ~ '04. 4. 30	제주도내	602	646
2004	'04. 10. 14 ~ '05. 4. 30	전국일원	450	596
2005	'05. 11. 7 ~ '06. 3. 31	“	400	662
2006	'06. 10. 20 ~ '07. 2. 12	“	523	631
2007	'07. 10. 25 ~ '08. 3. 31	“	825	747
2009	'09. 10. 29 ~ '10. 3. 31	“	1,453	741

자 료 : 제주도, 감귤특작과 내부자료, 2010

### c) 감귤원 폐원사업

부적지 감귤원 폐원은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고급화를 위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해발 200m 이상 고지대 및 동해·한해·상습 침수지 등에 위치한 감귤원을 대상으로 700.5ha의 부적지 감귤원을 폐원하였다.

2003~2004년에는 WTO/DDA, FTA 등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품질 감귤 적정생산을 통한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감귤원 3,883.1ha를 폐원하였고, 2005~2009년까지는 감귤원 193.0ha를 폐원하여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사업비 1,339억원을 투입하여 4,776.5ha의 감귤원을 폐원 하였다(표 21).

< 표 21 > 연도별 폐원실적('97~'09)

(단위 : ha, 백만원)

연 도	사업량	사 업 단 가	사 업 비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기 금	자 담	
1997	31.4	30	899	629	270	-	-	52
1998	31.1	30	893	625	268	-	-	71
1999	20.7	30	600	420	180	-	-	45
2000	31.0	30	897	449	448	-	-	63
2001	377.7	30	10,779	1,795	5,031	1,797	2,156	785
2002	208.6	30	5,988	1,796	2,395	599	1,198	505
2003	1,323.9	30	37,980	2,700	24,784	2,900	7,596	2,857
2004	2,559.1	30	74,713	15,500	44,270	-	14,943	5,500
2005	6.5	6	39	20	19	-	-	18
2006	36.3	6	218	109	109	-	-	81
2007	38.2	6	229	114.5	114.5	-	-	109
2008	59.0	6	354	156	198	-	-	177
2009	53.0	6	330	150	180	-	-	123
계	4,776.5		133,919	24,463.5	78,266.5	5,296	25,893	10,386

자 료 : 제주도, 감귤특작과 내부자료, 2010

### d) 감귤원 간벌사업

고품질 감귤 적정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간벌사업은 1997년에 농가 자체에서 2,983ha를 실시하면서 시작하였으나, 2003년부터 지방비로 간벌에 소요되는 작업비를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1/2 간벌을 추진하였다.

2006년부터는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일부 지원되었는데 2007년 1,043ha, 2008년 1,148ha, 2009년 1,655ha의 감귤원 간벌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2003년~2009년) 전체적으로 9,787ha의 감귤원 1/2간벌을 실시하였다(표 22).



< 표 22 > 연도별 간벌 실적('03~'10)

(단위 : ha, 백만원, 호)

연 도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2003	2,019	1.0	1,953	-	1,953	-	3,350
2004	951	1.5	1,581	-	1,581	-	4,039
2005	1,689	2.0	2,886	-	2,886	-	2,542
2006	687	2.5	964	386	578	-	948
2007	1,043	2.5	1,813	583	1,230	-	2,263
2008	1,148	2.5	2,871	820	2,051	-	2,391
2009	1,655	2.5	4,110	292	3,818	-	4,683
2010	595	1.5	889	-	889	-	1,651
계	9,787	-	17,067	2,081	14,986	-	21,867

자 료 : 제주도, 감귤특작과 내부자료, 2010 ('97 ~ '02년 자율추진 : 13,487ha)

#### e) 감귤 휴식년제

감귤 휴식년제는 감귤나무를 인위적으로 격년결과를 유도하여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재배하는 방식이다. 감귤 휴식년제 사업은 2001년산 감귤이 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한 적정생산 차원에서 특별사업으로 2,310ha를 추진하여 7만여톤의 감산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면서 시작되었는데, 2003년 395ha, 2004년 154ha, 2009년 1,641ha 등 2009년까지 전체적으로 4,499ha의 감귤원에 대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하였다(표 23).

< 표 23 > 연도별 감귤원 휴식년제 실적('01~'09)

(단위 : ha, 백만원, 천톤)

연 도	사업량	사 업 비				방 법	농가수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2001	2,310	6,445	-	6,445	-	약 제	4,727
2003	395	586	-	586	-	약 제	638
2004	153	294	-	294	-	약 제	246
2009	1,641	3,317	-	3,317	-	인 력	3,872
계	4,499	10,642	-	10,642	-	-	9,483

자 료 : 제주도, 감귤특작과 내부자료, 2010

**f) 감귤복합가공처리 공장건립·운영**

WTO체제 출범이후 오렌지 농축액 수입개방으로 연간 최고 173천여 톤에 이르던 제주감귤 가공은 사실상 중단으로 가공처리 되던 저급품 감귤이 도매시장으로 출하하게 됨에 따라 상품감귤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감귤 생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저급품 감귤의 안정적 처리대책이 절실하게 되어 2001년에 남원읍 한남리에 제1공장을 시설 가동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한림읍 금능리에 제2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표 24 > 감귤가공공장 현황

구 분	제1복합가공공장	제2복합가공공장
위 치	서귀포시 남원 한남 산 5-6	제주시 한림 금능 산 17-3
규 모	부 지 99,170m <sup>2</sup> , 건축물 10,629m <sup>2</sup>	부 지 24,526m <sup>2</sup> , 건축물 4,670m <sup>2</sup>
공사기간	2000 ~ 2002	2002 ~ 2003
총사업비	256억원	143억원
처리능력	50,000톤/년	37,500톤/년
주요시설	농축·주스설비, 냉동창고, 건조시설 등	농축설비, 냉동창고, 건조시설 등

자 료 : 제주도, 감귤특작과 내부자료, 2010

**g) FTA 대응 감귤산업종합대책 수립 추진**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오렌지 등 수입 농산물이 급증하고 감귤 등 농산물 조수입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감귤산업 구조조정을 실천함으로써 감귤소득 안정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2007. 4.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 결과 감귤을 비롯한 제주의 농업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제주 감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로(ZERO)관세에 대응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2007년 7월 FTA 대응 감귤산업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후 이를 보완 감귤시장의 완전개방과 체질개선 등 생존차원의 한·미, 한·EU 등 FTA 대응전략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제주도, 2009).

## 나. 기타과수 재배 및 생산현황

제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과종은 감귤을 비롯한 열대 및 아열대 과수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제주의 농업구조와 영농형태를 바꾸어 놓은 감귤에 대한 소득을 보완할 작목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키위, 단감, 블루베리 등을 중심으로 타과일의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표 25).

키위 재배면적은 1985년 123ha, 1990년 157ha, 2000년 178ha, 2005년 189ha, 2010년 261ha로 확대되고 있고 생산량은 6,251M/T에 이르고 있다.

단감 재배면적은 1995년 60ha, 2000년 243ha까지 확대 되었으나 품질저하 등 경쟁력 문제로 2005년 147ha, 2009년 58ha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파인애플은 관광용으로 일부 재배되고 있고 아메모아, 망고, 용과 등의 열대과일이 새로운 소득작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배와 포도는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하우스 시설재배에 따른 유류 등 난방비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2010년 기준 배는 재배면적이 1.6ha 생산량은 25M/T, 포도는 2.5ha에 47M/T이 생산되었다.

< 표 25 > 기타 과실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 ha, M/T)

연도	파인애플		바나나		참다래		단감		배		포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3	14.6	268.0	-	-	141.3	2,210.0	213.3	1,711.0	31.9	283.0	9.4	156.0
2004	10.7	194.0	-	-	168.1	2,914.0	173.8	1,578.0	25.2	329.0	8.1	163.0
2005	7.8	133.0	-	-	188.6	3,686.0	146.5	1,595.0	22.7.0	248.0	7.6	159.0
2006	6.1	104.0	-	-	220.2	3,167.0	114.0	1,677.0	19.1	229.0	5.6	118.0
2007	6.1	107.0	1.6	23.0	223.7	3,871.0	105.0	1,323.0	18.3	236.0	4.8	92.0
2008	5.4	93.0	1.6	23.0	240.6	4,050.0	87.5	1,017.0	7.8	128.0	3.6	69.0
2009	-	-	1.0	19.0	238.4	5,074.0	58.4	647.0	2.6	35.0	2.8	64.0
2010	0.3	5.0	1.3	21.0	260.7	6,251	65.4	923.0	1.6	25.0	2.5	47.0

자 료 : 제주도, 제주도통계연보, 각년도. 제주도, 주요농축산현황, 2011

### 3. 제주농업의 연대별 특성변화

#### 1) 1945년 이후 1960년까지 제주농업

##### 가. 사회적 환경

1945년 8.15광복으로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와 미군정 실시, 정부수립, 4.3사건, 6.25 등을 거치면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주사회는 불안정한 시기였다. 이때의 제주농업은 최대의 침체기로서 정부의 농업정책도 제주까지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4.3 사건으로 중산간 지역의 농토는 완전히 황폐화 되었다, 도정방침에서도 산업부분에 대한 언급보다는 사회질서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1957년 축산발전 4개년계획을 발표한 것이 처음이다

1960년도까지는 도정의 목표를 사회질서 유지, 민생안정, 행정기강확립, 반공 등이 도정의 역점사업이었다. 산업의 진흥, 농업생산 등에는 도정이 힘을 기울일 여지와 정부의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아 매우 저조하였다.

식량작물의 증산일환으로 1953년부터 미맥(米麥)의 종자개량 및 우량종자 보급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우량종자 보급종으로는 논벼 품종인 중생신력(中生神力)·농림8호(農林8號)·은방주(銀坊主)·조대관(早大關), 보리 품종인 백동38호(白洞38號)·죽하(竹下)·도원(島原), 밀 품종인 농림9호(農林9號)·적달마(赤達磨)·강도(江島)·신력(神力) 등이 장려품종으로 지정 보급되었다(제주도, 2006).

##### 나. 농업인구와 경지면적

정부(후생부)에서는 8.15광복 이후 처음으로 1949년 5월말을 기준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제주도 총인구는 254,527명이고 농업인구는 214,167명으로 인구대비 84.1%였는데, 전국인 경우 총인구는 20,166,756명이고 총 농업인구는 14,416,365명으로 72%인 점을 감안하면 제주도가 전국평균보다 인구대비 농업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53년부터 농업에 대한 근대적 통계조사가 이루어져 농가인구, 호수, 경지면적 등이 통계적 수치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1953년 제주도의 □경지면적은 36,916ha로 총면적의 19.84%였으며, 1953년 1농가당 농업인구는 4.99명으로 전국평균 5.89명보다는 낮고 1농가당 경지면적도

0.80ha는 전국평균 0.87ha 보다 낮았다(제주도, 2006).

#### 다. 경작규모 및 업태별 농가호수

경작규모별로 보면 1960년까지 0.5ha 미만의 농가가 전체 농가의 44%를 점유하였는데 전국 점유율 44.2%와 거의 같다.

1953년 이후 식량자급 차원에서 저수지를 만들어 밭을 논(畓)으로 만들자는 정부정책이 한때 시행되어 한경면 일대에 논이 늘어나기도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8.15광복 이후 1960년까지 호당 경작규모의 변동은 거의 없는데 이는 농업소득에 의한 농가의 자본이 형성되지 못하여 농가 스스로 농지 구입력이 없기 때문으로 8.15광복이 되어 15년 후인 1960년까지도 1호당 경작규모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제주도, 2006).

#### 라. 비료의 생산 및 공급

비료는 농작물 생육과 생산량 증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화학비료의 사용은 1929년부터 시작되었다. 1953년에는 화학비료가 10,250M/T이 사용되어 농가 1호당 소비량 227.3kg, 10a당 27.8kg을 사용하였는데, 195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으로부터 원조액이 줄어들면서 비료공급량도 점차 감소하여 1960년에는 절반 수준인 5,685M/T이 사용되어 농가 1호당 소비량은 114.1kg, 10a당 사용량은 13.2kg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퇴비의 증산은 곧 식량의 증산이라는 등식으로 자급비료 생산운동을 적극 장려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화학비료의 공급량이 1953년의 50%정도 수준이었으나 자급비료의 생산과 공급량이 많아져 농업생산량은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제주도, 2006).

#### 마. 농약의 공급

1938년 DDT, 1942년 BHC가 개발되면서 본격적 유기합성농약의 시대가 열렸다. 1946년 이후 1952년까지 제주에서의 농약사용 공급량은 통계가 없어 알 수 없고 1950년 이후 순수 농약으로 사용되는 DDT, BHC 등이 사람의 기생충 구제에 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제주도, 2006).

## 바. 농업생산

### (1) 식량작물 생산

8.15광복 이후 제주농업의 작물별 생산성은 혼란한 사회적 환경과 비료, 농약의 공급 부족 등으로 극히 부진한 상태였다.

우리나라 미곡 생산이 1932년 이래 최저를 나타낸 연도는 1952년이고 맥류에서는 1945년과 1951년에 최저생산량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8.15광복과 6.25 영향으로 생산량이 극도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곡물생산 추이를 보면 1953년을 기점으로 점차 증가하고 1957년 21%, 1958년에는 30%, 1959년 47%, 1960년에는 61%를 증가하였다(제주도, 2006).

### (2) 특용작물 생산

제주도의 특용작물 재배는 농민 스스로가 손익계산에 의해 생산해 온 것이 아니라 관(官)에서 할당하여 생산하도록 하였거나 농가를 지정 생산하여 왔기 때문에 이시기에 농업인들은 특용작물 재배에서는 피동적이었다.

특용작물로서는 면화, 제충국, 담배가 주로 재배되었는데, 원면 수입량이 매년 급증하자 정부에서는 면화증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각도별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할당하여 적극 장려하였다. 면화의 생산량은 1947년에 1,084ha에 879M/T이었으나 그 후 점차 감소하여 1953년에 재배면적 598ha에 294M/T 생산되었고 1960년에는 재배면적 429ha에 230M/T이 생산되었다(제주도, 2006).

### (3) 원예작물 생산

제주도에서 원예작물의 생산은 1950년도 이전까지는 도민식생활에서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이었으나 6.25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대정지역에 육군훈련소가 설치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부식의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어 채소류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3년 제주도의 채소류 총생산량은 15,382 M/T로 도민 1인당 61.8kg에 해당되는 양이 생산 공급되었으며, 1957년에는 도민 1인당 100.3kg에 해당되는 채소류를 생산하여 자가소비 이외 경제작물로 발전하게 되었다.

원예작물 중 과수분야의 감귤은 1960년 이후 농가와 경제구도를 변화시킨 중요한 작목으로 역할을 하였다.

1930년 이후 1950년까지는 감귤 생산량에 대한 통계가 없어 알 수 없지만 1951년부터는 농림통계연보(농림부간행), 한국농업연감(4288년간)에서는 농림부통계로 정식으로 감귤의 생산량에 대한 근대식 통계가 집계되었는데, 1951년 감귤 재배면적은 16.6ha에 생산량은 138.7M/T, 1955년에는 18.4ha에 171.6M/T이 생산되었다(제주도, 2006).

## 2) 1960년부터 1990년대 제주농업

### 가. 1960~1970년대 농업

1960년대가 되면서 보리와 고구마의 적극적 증산정책으로 이 두 작물은 제주도 농업의 주 작물로 재배가 되었다.

1966년 제주도 농업 총 조수입 52억 7천만 원 중 쌀보리 11억원으로 20.9%, 고구마 28억원으로 53.1%로 이 두 작물 조수입을 합치면 전체 조수입에 대한 점유율은 74%를 차지하였다.

제주도농업기술원(설립 1957년)과 제주대학 농학과 등의 농업분야 연구기관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유채 등 새로운 경제작물 재배가 적극 장려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제주도 농업생산에 주축이던 나뭇의 생산은 유채의 재배에 밀려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유채의 생산은 1970년대가 되면서 증가하여 1977년에 18,864 M/T을 생산, 최대 정점을 이루었고 1984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었다.

고구마의 생산은 1975년에서 1979년 사이 최대 성기에 해당되는데 1978년에 336,687M/T으로 사상 최대생산을 하였으나 198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1960년에는 5.16이 일어나고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에 감귤을 대대적으로 장려 생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1967년에는 감귤이 정부의 농특사업으로 지정 장려를 하게 되었는데 정부의 계획과 지원에 의하여 농업생산이 장려되기는 8.15광복이후 면화 생산계획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로 인하여 제주농업은 감귤의 재배육성에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 농업생산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로부터 제주의 농업은 자급자족의 식량작물 생산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상업적 농업이라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고구마, 유채, 감귤 등이 경제작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1973년부터 열대작물인 파인애플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였다(제주도, 2006).

새마을 운동은 제주도 농촌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농촌의 생활개선, 환경개선, 도로망정비, 수도, 전기보급 등 근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농업부문도 이에 맞는 발전을 하게 되었다.

농약, 비료, 농기계의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감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감귤이 우리나라 농업역사에 유래 없는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 제주감귤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됨에 따라 재배규모가 30ha 이상 되는 기업형 감귤원들이 조성되는 시기이다. 이시기에는 제주도의 농촌은 농업 노동력의 부족과 농업 노동력이 월급제 노동력으로 충당해야 하는 지경까지 유래가 없는 농촌의 대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감귤원에 종사하는 농업노동력은 타도에서 대량 유입되어 제주도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감귤산업이 발전하면서 타 작목에 비하여 높은 수익을 비유하여 ‘대학나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 나. 1980년대 농업

1980년대는 감귤이 제주도 농가소득의 50~60%를 점유하는 시기로 이때 제주도의 전통적 식량작물인 보리의 재배는 크게 감소되었으며, 맥주 원료인 맥주맥 재배는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하였다.

1970년대 제주농업 최대 소득 작물이던 고구마, 유채 재배도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제주도의 농업 또는 제주도의 경제는 감귤단일 작목 하나에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1980년대 후반기가 되면서 하우스시설 내에서 바나나 재배를 하기 시작하여 4~5년(1989년 443ha재배·20,881M/T 생산) 사이에 감귤 다음의 소득 작목으로 급격히 신장하였다. 1990년 바나나의 조수입은 544억원으로 전체농산물 조수입의



9.7%를 점유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바나나의 수입자유화로 바나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재배면적 감소하여 제주농업에서 가장 단기간 일시적으로 재배되었던 작물이 되었으나 바나나를 재배하기 위하여 시설한 하우스는 감귤의 가온 또는 무가온 재배와 망고 등 열대과일의 재배로 농업을 발달시키는데 큰 인프라가 되었다. 이시기에는 제주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감자재배가 확대되어 제주의 제2의 소득 작목으로 자리를 잡았다(제주도, 2006).

#### 다. 1990년대 농업

1990년대는 제주농정이 감귤산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시기이다.

이시기 감귤산업은 제주도 농산물 조수입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작목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해거리 현상으로 감귤가격은 작황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특히 1995년 WTO출범으로 외국산 오렌지 등 수입산 신선과일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때 감귤재배 농업인들이 행정기관에 집단적으로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품질을 고려치 않고 양 위주 생산으로 타 과일에 비하여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의 선호가 떨어지고 있고,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감귤을 경쟁산업으로 키워 나가기 위하여 1996년 8월 감귤조례 제정 기획단을 구성하고 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1997년 1월 15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다. 그러나 1997년산인 경우 최대의 가격폭락을 맞았는데 생산량에 비하여 소득이 감소되어 가격유지를 위하여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감귤의 분산 출하를 위하여 월동감귤 재배, 감귤의 출하정보를 통한 출하조절을 유도하고 출하신고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를 설치하여 소비지별 시장 수요에 맞는 안정적 감귤 출하를 시도하는 등 이시기에는 감귤이 농가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반드시 생존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는 제주인과 제주농업의 또 다른 개척과 도전의 의무와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이다(제주도, 2004).

## 라. 2000년대 농업

2004년 4월 한·칠레 FTA발효를 시작으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인도와 FTA가 발효되었고, 2006. 6월 협상을 시작한 한-미 FTA가 2007. 4. 2일 협상이 타결되는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생산·유통의 구조조정을 통한 제주 농업의 체질개선으로 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투자한 시기이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농산물 가공 산업을 통한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다.

감귤인 경우 만성적 해거리 현상 극복과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하여 대대적인 폐원과 1/2간벌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화훼류에 대한 수출 확대와 감귤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감귤가공 공장 2개소(남원 한남, 한림 금능) 시설되었다.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FTA기금 사업비가 지원되기 시작하여 품질고급화와 연중 생산·출하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하우스 등 시설재배 면적이 증가하였다.

웰빙 등 건강식생활 요구에 따라 그동안 매년 재배면적이 감소하던 기장 등 잡곡류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채소류 등 월동작물은 되풀이되는 가격폭락 사태를 해결해야하는 문제점도 대두되었다.

2000년 39,114농가에 129,514명이던 농가인구는 2100년에는 37,919농가에 114,752명으로 2000년에 비하여 농가 수는 3%, 농가인구는 11%가 감소하였는데 농가수보다 농가인구 감소율이 높은 것은 농가구당 농가인구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지면적은 2000년 59,207ha, 2010년에는 59,255ha로 그동안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을 감안 할 때 큰 변화가 없으나, 실제로는 도심지 인근 농지는 개발로 많이 잠식되었으나 제주의 광활한 중산간지대가 농지화한 결과이다.

감귤은 그동안 매년 되풀이되어온 해거리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과 재정적 지원을 하였는데 2004년도인 경우 감귤원 2,559ha에 대하여 폐원을 실시함으로써 과잉생산 구조를 그나마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그동안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지가 농가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 Ⅲ. 제주농업의 문제점과 농정발전 방향 분석 및 고찰

#### 1. 제주농업의 문제점

제주농업의 경영형태는 작물별 재배면적이나 농산물 조수입 규모로 볼 때 크게 일반작물과 과수(감귤)로 구분할 수 있다.

감귤인 경우 2010년 기준 재배면적이 20,747ha로 전체 농경지면적 59,255ha의 35.0%를 차지하며, 재배농가는 30,905농가로 전체 37,919농가의 81.5%, 생산량은 568,478M/T이다.

이는 전국의 2010년산 겨울철 주요과실 생산량(감귤, 사과, 배, 단감 등 1,517.4천톤)의 37.5%를 차지하며, 조수입은 668,484백만 원으로 제주지역 전체농산물 조수입 1,540,648백만 원의 43.4%를 차지하여 사실상 제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작물이다(제주도, 2011b).

이러한 감귤 중심의 경종형태는 단일 작물재배에 따른 유리한 점도 있으나 일반작물 재배면적 감축 등 작물간 재배 불균형으로 타작목이 상대적으로 위축을 가져왔으며, 시장수요를 넘는 과잉생산으로 감귤가격이 떨어져 농가와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제주농업의 문제점은 자연적 여건과 인위적 여건의 문제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섬이란 지리적 특수성으로 농산물 도외 출하시 해상 물류비 추가부담, 장기운송에 따른 농산물의 물리적 손상, 제한된 생산기반, 태풍 및 온화한 기후로 발생빈도가 높은 병해충 발생우려 등 농업뿐 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제약이 곧 장점이 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하다.

제주농업의 문제점과 농업인의 의식 및 농정에 대한 인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1년 8~9월까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임의 선정 농가를 방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3부(명)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 103명 중 44명인 44.7%가 농업정책의 정체, 42명인 40.8%가 젊은 영농인력의 부족, 11명인 10.7%가 농업인의 영농의지 부족, 6명인 5.8%가 제주의 자연환경이 제주농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제주농업의 문제점

구분	계	정책의 정체	젊은 농업인 부족	시장변화 대응부족	자연환경
응답자(명)	103.0	44.0	42.0	11.0	6.0
비율(%)	100.0	42.7	40.8	10.7	5.8

따라서 여기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제주농업의 정책과 구조문제, 후계 인력문제, 시장변화 대응 문제, 자연 환경적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1) 농업정책과 농업구조의 문제점

가. 소득안정·생산성 향상 등 장기정책 부재 및 농업인의 수용태세 부족

제주농업이 어렵다는 이유를 농업이 갖는 특수성과 제주가 섬이라는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다는宿命론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농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농업생산을 위한 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농정 개입정도와 지역사회의 수용태세, 그리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영농의지 등 역할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막을 옥토로 바꾼 이스라엘이나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가 화훼농업을 이룩해낸 성과를 볼 때 농업의 발전은 자연적 조건보다 이를 개발하기 위한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 2005).

지난 반세기 동안 제주농업은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숨은 기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고, 감귤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여왔다. 그러나 농업의 장기적인 소득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정책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가격대책, 소득대책, 부채대책, 수입대응 대책 등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사안별 대책은 현상유지 농정에 무게가 있어,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며, 농업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국제적 마인드나 전략적 유통구조에 취약하여 수용태세가 부족한 농업인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 나. 농업구조에 따른 문제

### (1) 경지면적 등 농업경영의 영세한 규모

농업생산에 있어 토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농경지의 개발, 이용, 소유관계가 농업발전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제주의 경영규모별 경지면적이 1ha미만 농가 수는 1969년 38,986농가로 67.1%, 1985년 27,286농가로 64.5%, 1997년 24,813농가로 61.7%이며, 3ha 이상 농가는 1985년 482농가 1.1%에서 1997년 1,688농가로 4.2%, 2009년 3,237농가로 9.1%로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미진한 상황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농업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영세경영구조는 장기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제주도, 1957~2010).

농가구당 경지면적은 1960년 0.87ha, 1980년 0.94ha, 1995년 1.42ha, 1998년 1.41ha, 2005년 1.61ha, 2009년 1.68ha로 정부의 농지 보전정책과 중산간 지역의 산림개간 등으로 꾸준히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인 경우 지역별, 영농형태별 따라 차이는 있으나 1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443에이커(약 180ha)에 달한다(김, 2005).

### (2) 감귤 중심형 영농 및 감귤편중 농가소득 구조

2010년 감귤 재배면적은 20,747ha 생산량은 568,478M/T으로 국내과일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배농가는 30,905농가로 총 가구의 1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수입은 품·품에 따라 차이는 2010년산인 경우 6,685억원이다.

특히 비료, 농약, 포장, 수송, 가공 등 감귤과 관련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고려할 때 생산유발효과는 1조 3,432억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다(제주대학교, 2007).

2010년도 제주지역 1차 산업 조수입은 2조9,645억원이며, 이중 1조5,406억원이 농산물 조수입으로 51.9%를 점유하며, 감귤은 6,685억원으로 농산물 조수입의 43.4%,를 차지하고, 식량작물(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등) 1,685억원, 채소류(마늘, 양파, 당근, 양배추, 무 등) 6,022억원, 유채, 참깨, 약용 등 특용작물이 469억원, 화훼류가 186억원이다(표 26).

또한 감귤이 식용작물이나 타 품목에 비해서 상품화가 크며, 현금 가득율이 높

을 뿐 아니라 비료, 농약, 농기구, 운송 등 수요시장으로서의 전·후방 연관산업 및 감귤산업으로 창출되는 고용효과까지 고려 할 때 그 규모는 제주도 지역경제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감귤에 대한 농업인 소득의 지나친 편중은 감귤가격 하락시 농가와 지역경제의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 할 수도 있는 것이다.

< 표 26 > 감귤이 농산물 조수입에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억원, %)

연 도	농산물 조수입	감귤 조수입	비 율
1990	5,580	3,151	56.5
1995	8,032	4,800	59.7
2000	7,909	3,165	40.0
2005	11,420	6,006	52.6
2010	15,406	6,685	43.4

자 료 : 제주도, 주요농축산현황, 각년도

특히 타 작목에 비하여 감귤우선 보호 및 육성 정책은 일부 비 감귤재배 농가로 하여금 농정차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제주도 농업구조상 기형적으로 비대한 감귤산업은 한정된 국내시장과 소비자의 기호도 변화에 따른 전체 농업인의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있고, 다른 작목의 육성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3) 제주 이미지에 맞는 환경농업 실천 필요

제주도는 섬이란 지리적 특수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훨씬 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역이다.

연도별 화학비료 사용량은 1995년 120,800M/T, 2000년 91,167M/T, 2005년 91,917M/T이며, 2006년 45,115M/T, 2007년 53,2345M/T, 2008년 45,835M/T, 2009년 43,362M/T, 2010년 27,631M/T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화학비료 사용량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7).

그러나 제주지역의 비료 사용량은 OECD국가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1ha당

311kg, 영국은 338kg, 프랑스 227kg, 일본 305kg이며, 2010년 제주 비료 사용량은 1ha당 446kg으로 육지부나 선진 농업국에 비하여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 (http://www.nongmin.com, 한국농업희망찾기, 2010).

< 표 27 > 비료 공급현황

(단위 : M/T, 백만원)

구 분	1995		2000		2005		2010	
	판매량	금 액	판매량	금 액	판매량	금 액	판매량	금 액
계	120,800	21,006	91,167	24,088	91,917	28,195	27,631	21,609
요 소	22,738	3,956	10,834	2,871	6,701	2,649	4,451	3,112
용성인비	10,678	1,350	5,572	1,016	5,014	1,166	1,090	689
용 과 린	2,010	257	2,097	382	1,121	267	210	134
염화가리	8,987	1,001	2,739	706	1,058	316	486	555
복합비료	76,385	14,441	69,902	19,110	77,776	23,789	21,304	17,092
유 안	2	1	23	3	47	8	90	27

자 료 : 제주도, 주요농축산현황, 각년도

농약 사용량은 1995년 5,071M/T, 2000년에 6,404M/T, 2005년 5,897(친환경제 7)M/T, 2010년 6,422(친환경제 43)M/T에 판매금액은 82,499백만 원으로 1995년 이후 매년 6천M/T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5M/T 화물 자동차 1,200대 분에 해당되는 양으로 2010년 현재 1ha당 108kg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표 28).

< 표 28 > 농약 공급현황

(단위 : M/T, 백만원)

구 분	1995		2000		2005		2010	
	판매량	금 액	판매량	금 액	판매량	금 액	판매량	금 액
계	5,071	36,644	6,404	62,953	5,897	67,845	6,422	82,499
수 소계	136	462	132	963	133	2,551	346	2,058
도 살균제	13	105	56	527	51	629	49	518
용 살충제	123	357	76	436	82	1,922	297	1,540
원 소계	3,511	28,025	4,774	52,871	4,048	50,813	4,142	63,314
예 살균제	1,602	12,215	2,439	26,883	1,712	27,318	1,606	32,566
용 살충제	1,909	15,810	2,335	25,988	2,336	23,495	2,536	30,748
제 초 제	1,149	5,021	1,304	8,233	743	8,670	1,187	9,610
친환경제	-	-	-	-	7	71	43	1,022
기 타	275	1,136	194	886	966	5,740	704	6,495

자 료 : 제주도, 주요농축산현황, 각년도

## 2) 젊은 농업인 등 영농 인적자원의 감소

### 가. 농업인의 고령화 등 영농후계 인력의 부족

경제성장과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농업발전의 제약 요소가 되어왔던 과잉농업인구의 부양압력과 실업문제가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농번기에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한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제주도인 경우 농업인구 및 농업 노동력의 감소과정은 상대적인 감소, 즉 총인구에 대한 농업인구 비율 감소단계와 절대인구의 감소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령별 농가인구 구성을 보면 60세 이상 농가인구가 1969년 9.0%, 1990년 12.9%, 2009년 31.4%로 젊은 새로운 영농인력의 유입이 적어 고령화되고 있다.

< 표 29 > 연도별 연령별 농가인구

연 도	계	(단위 : 명)					
		0~19세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1969	271,903	136,109	88,968	-	-	22,430	24,376
1990	164,014	61,826	57,980	-	-	23,075	21,133
2000	129,152	31,843	18,526	15,929	16,279	19,381	27,194
2005	110,281	23,718	12,007	12,908	13,505	15,170	32,973
2009	104,802	22,793	8,436	11,962	13,505	15,170	32,936

자 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인구에 대한 농가인구 비율의 변화율은 농가인구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의 차이로서 산업구조의 변화속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제주도인 경우 1938년 □인구는 49,200가구 200,000명에 농가인구는 44,000가구에 약 176,000명으로 농가는 89.4%, 농가인구는 약 88.0%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농가인구 비율은 1970년 44.7%, 1980년 28.4%, 1990년 15.5%, 1995년 10.8%, 2000년 8.6%, 2005년 7.1%, 2010년 6.4%로 점점 감소하고 있어 산업구조 변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인근 국가인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도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도 농촌인구 감소와 농업의 뿌리인 가족농이 감소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김, 2005).



< 표 30 > 연도별 농가 및 인구

(단위 : 호, %, 명)

연도	전체		농가		농가비율	농가인구 비율	호당 농가수
	가구	인구	가구	인구			
1960	64,352	281,712	49,723	231,617	77.3	82.2	4.7
1965	71,366	326,405	58,427	261,064	81.9	80.0	4.5
1970	82,992	365,522	55,558	248,000	66.9	67.8	4.5
1975	92,202	412,021	55,736	254,839	60.4	61.9	4.6
1980	105,532	462,755	53,356	243,260	50.6	52.6	4.6
1985	118,144	488,576	42,278	185,339	35.8	37.9	4.4
1990	131,387	514,608	40,147	164,123	30.6	31.9	4.1
1995	157,314	519,394	39,781	145,579	25.3	28.0	3.7
2000	177,600	543,323	39,114	129,152	22.0	23.8	3.3
2005	204,635	557,569	36,218	110,281	17.7	19.8	3.0
2009	217,711	567,913	35,388	104,802	16.3	18.5	3.0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1965년에는 인구 326,405명에 농가인구는 261,064명으로 80%를 차지하였고, 1980년에는 인구 462,755명에 농가인구가 243,265명으로 52.6%, 10년 후인 1990년에는 인구 514,608명에 농가인구는 164,123명으로 31.9%로 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인구 534,715명에 농가인구는 133,352명, 2001년에는 인구 547,964명에 농가인구는 131,404명으로 23.9%, 2010년에는 20.5%로 전국의 6~7%수준에 비하여는 완만하게 감소되고 있다(표 30).

이는 제주도 산업구조상 농업이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뜻하며, 감귤을 비롯한 고소득 경제작물 재배가 왕성하여 타 산업으로의 전환이 자연적으로 억제되었던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호당 농가 수는 1960년 4.7명, 1970년 4.5명, 1980년 4.6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90년 이후 급격히 감소 2009년 말 현재 3.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대학 등 고등교육을 받은 자녀가 서울 등 타 도시나 제주시 등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농촌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 나. 전업농가로 육성 할 수 없는 겸업농가가 많다

전업농은 1985년 27,888농가에서 1995년 17,957농가로 감소하였다가 1997년 전체농가의 44.8%인 18,041농가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감귤원 경영규모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사료된다.

제주도의 전업농가는 2009년 기준 35,388농가 중 13,363농가로 37.8%를 차지하는데 전국의 전업농가 비율 58.0%보다 낮으며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의 33.3%와 더불어 하위 지역에 속한다.

1종 겸업농가는 35,388농가 중 9,583농가로 27.1% 차지하고, 2종 겸업농가는 35,388농가 중 12,424농가 35.1%를 차지하고 있다.

1종과 2종 겸업농가 비율은 전체 35,388농가의 62.2%로 전국의 겸업농가 비율 42.0%보다 높고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의 66.7%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겸업농가는 농산물 가격하락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성도 있으나 우리도의 겸업농가는 전업농가로 갈 수 없는 경영의 영세성에 따른 겸업농가라는 데 문제가 있다.

### 3) 관행적 영농으로 시장변화 대응 부족

#### 가. 자급자족 전통농업 영향으로 경제농업 의식 결여

제주에는 오랜 세월 시련의 역사를 견디면서 형성된 중요한 정신적인 자산이 있는데 3무 정신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은 절약과 근면·성실의 정신이다.

그동안 제주가 겪어야 했던 역사적 상처들은 제주인의 의식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제주대동아시아연구소, 1996).

변방의식, 방어적의식, 자족의식, 냉소주의 등은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부정하는 잠재적 의식으로 소비자 기호도를 충족하는 경제농업으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 나. 웰빙, 안전성, 고품질 등 다양한 소비요구 능동적 대응 지남

소득계층이 다양화하고 소비자 구매의 합리화 성향으로 감귤을 비롯한 농산물

의 생산·유통전략도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어, 고가와 저가수요 소비자 집단의 욕구를 충족하는 등 농산물 생산·유통의 마인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감귤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생산된 감귤은 모두 판매되어야 한다는 사고로 소비시장이 요구하는 웰빙, 안전성, 고품질 등 소비시장 수요 패턴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

#### **다. 농업인의 행정 의존적, 무임승차 사고**

감귤농사는 행정에서 지어준다는 말이 있다. 이는 관(官)주도적 감귤정책에 대한 반론으로 농업인의 의존적, 무임승차 사고에 대한 간접적 표현일 것이다.

농산물 적정생산·유통조절 등 가격안정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노력이 농업인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우는 노력에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감귤원 1/2간벌, 열매따기 등과 같이 재정적 지원 없이 농업인 스스로 실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만큼 관(官)에 대한 의존과 무임승차 사고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라. 고품질 재배실천 미흡 및 생산·유통의 생산자 중심 사고**

농산물 경쟁력의 기본은 고품질 생산이다. 그러나 감귤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사업비 지원에 의한 하우스 등 만감류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노지감귤 품질향상을 위한 토양피복 등 고품질 감귤 생산은 관리가 불편하고, 일반재배 감귤과 가격차별화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유통이 소비자 중심으로 상당히 전환되었다고 하나, 감귤 및 월동채소류 등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생산된 농산물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아야 하며, 농가에서 전량 출하해야 한다는 생산자 중심의 사고가 상존하고 있다.

### **4) 환경적, 지리적 문제점**

#### **가. 농작물 생육에 어려운 자연환경**

농업은 자연을 이용하여 유기체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자연조건의 제약을 절대

적으로 받는다. 농작물은 기후, 토양 등의 여건에 따라서 생육과 품질이 결정 되는데, 제주는 작물생육에 어려운 자연적 환경을 갖고 있다(강, 2004).

토양의 구성상 화산회토가 많아 지력이 척박하고 빗물에 의한 비료성분의 유실로 육지부의 농경지보다 더 많은 비료시비량이 요구되며, 하절기의 습한 기후와 태풍은 병해충 발생에 좋은 조건으로 농약사용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강우량은 많으나 하절기 집중호우, 한해(旱害), 또한 많은 바람은 농작물의 정상적인 생육을 통한 높은 생산량과 품질고급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 나. 섬이라 지리적 위치에 따른 문제점

### (1) 해상운송 등 물류비 추가 부담

제주도인 경우 지리적인 특성으로 해상수송이 필요하여 생산에서 소비시장까지 도달시간이 육지지역 보다 오래 걸리고 물류비용도 더 많이 소요된다.

2010년산 감귤인 경우 최종 소비자 구매하는 가격을 100으로 볼 때 생산농가에서 받는 수취가격 비율은 45.9%이며, 유통비용은 54.1%나 된다

특히 제주산 노지감귤의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52.4%, 1999년 57.5%이며 2001년은 61.9%, 2010년 54.1%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과는 55.0%, 배 51.6%, 복숭아 63.6% 이며, 저장 배 40.7%, 저장 사과 42.4%으로 조사되었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 (2) 출하의 계절적 편중 및 장시간 운송으로 신선도 유지 곤란

농산물은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므로 수확, 선별, 포장, 수송 등 유통에 있어 타 분야에 비하여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해상수송을 위해 일정한 지역에 수집, 집하 등 별도의 보관 등 유통에 시간과 비용이 육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더 소요된다.

감귤, 월동채소류 등 제주산 농산물은 육지부 농산물과의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차별화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농산물 재배 및 생산 여건상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시장에 출하되어 계절적 편중과 해상운송에 따른 부패 및 중량감소 등 신선도 유지에 따른 위험 부담률이 다른 지역보다 크다

## 2. 감귤산업 생산·유통의 문제점

### 1) 생산 구조적 문제

#### 가. 불규칙한 생산량으로 수급불안정

감귤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소비자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지감귤의 적정생산량은 상품 45만M/T, 가공 11만M/T, 자가소비 2만M/T 등 58만M/T으로 제시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제주대학교, 2004).

그러나 연도별 노지감귤 생산량을 보면 2002년 738,530M/T, 2007년 677,770M/T, 2008년 520,350M/T, 2009년 655,046M/T, 2010년 480,565M/T 등 적정생산량 대비 많게는 +27% 적게는 -17%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생산량 편차는 상당히 좁혀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감귤원 1/2간벌, 열매숙기 등 적정생산 노력 없이는 아직도 과잉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농가별 감귤재배 규모는 0.5ha이하를 재배하는 농가비율이 53%, 1.0ha이하 80%, 전업농 규모인 1.0ha이상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는 20%에 불과하며, 조생온주 및 노지감귤 위주의 재배형태는 시기적으로 시장수요를 초과하는 홍수출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나. UPOV 대응 등 신품종 육성미흡

현재 제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온주밀감, 만감류 등 대부분의 감귤품종은 일본에서 육성되어 도입된 품종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대학교 등에서 감귤신품종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하레조생 등 일부 품종은 농가에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UPOV 대응 및 새로운 품종을 요구하는 소비자 기호를 고려 할 때 아직까지는 농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다. 조생온주 노지 위주의 재배형태

2010년 감귤재배면적 기준 온주밀감이 전체감귤 재배면적의 91.8%를 점유하며, 이중 노지재배가 94.1%를 차지하여 홍수출하의 원인이 되고 있고, 만감류 등 시

실 재배면적은 전체면적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나 감귤의 연중 생산·출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온주밀감의 노지 재배면적을 상당부분 낮출 필요가 있다.

## 2) 유통 구조적 문제

### 가. 유통조직 및 품질관리 체계 미흡

감귤이 시장출하는 농협·감협(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생산자단체(직영, 작목반), 상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개별출하 체계로 되어 있다.

현재의 개별 출하시스템은 중앙통제 기능이 없어 시장별 적정출하 유도가 어렵고 소비시장별 중복출하로 출하충돌이 발생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광센서 선과기가 보급되고 있으나, 현재 대부분 드럼식 선과기로 선과되고 있으며, 품질별 등급 차별화가 미흡하여 소비시장에서 품질에 따른 가격차별에 어려움이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 나. 감귤 2차 가공 인프라 부족

신선감귤 수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가공제품의 개발과 생산·유통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주도내 감귤가공은 농축액을 생산하는 1차 가공생산 위주이며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2~3차 가공 시설은 현재 감귤초콜릿 공장 등 그 종류와 생산규모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등 가공제품 생산 인프라가 부족하다.

### 다. 브랜드 난립 소비자 신뢰하락 및 시장개방 확대에 경쟁 불가피

현재 감귤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불로초, 황제, 천상천하, 곱들락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농·감협, 작목반, 유통인 등 산지유통 조직별로 대부분 각기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 시장에서 브랜드 충돌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중소브랜드로 출하되는 감귤은 상대적으로 품질관리가 잘 되지 않아 전체감귤 이미지를 하락시킬 우려도 있다. 또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오렌지 등 외국산 신선과일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과종별로 수입이 연중체제로 전환되면서 소비시장에서 감귤과 수입산 과일의 경쟁이 불가피 하다(제주도, 2011d)

### 3) 수출의 문제

현재 농협, 감협 등 수출업체에서 개별적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생산량 등 국내가격에 따라 수출물량 증·감폭이 크며, 국내 유통 중심 물류시스템으로 수출인프라가 부족하다.

대외적 문제점으로는 농업생산기술 발달로 전체과일 생산량 증가, 국가별 수출 우선정책 추진에 따라 치열해진 국가간의 경쟁, 국민의 건강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역체계가 강화되고 있고, 유류가격 상승 등 물류비 증가도 수출확대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다(제주도, 2011c).

## 3. 제주농업의 문제점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분석

### 1) 농업인의 의식 및 농업에 대한 인식조사

#### 가. 제주농업의 향후 전망

제주농업이 향후 어떻게 변화 할 것인지 발전전망에 대하여 묻는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3명 중 매우 밝다가 27명 26.7%, 최소한 현재와 같을 것이다가 56명으로 54.4%로 전체 응답자 중 83명인 80.6%가 향후 제주의 농업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보다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농업의 전망에 대하여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20명인 19.4%로 나타났는데, 이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수입농산물 증가로 제주농업이 현재보다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사료된다.

#### ○ 제주농업의 향후전망

구 분	계	매우 밝다	현재와 같을 것이다	기대하기 어렵다
응답자(명)	103.0	27.0	56.0	20.0
비 율(%)	100.0	26.2	54.4	19.4

#### 나. 농업인이 농정시책 참여의식 형태

감귤원 1/2간별, 휴식년제 등 농정시책에 참여의식 형태를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 103명 중 감귤산업 등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한다고 답변한 농업인은 14명으로 13.6%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의 의식개혁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등 다른 농업인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눈치껏 마지못해 참여하는 농업인이 37명으로 35.9%이며, FTA기금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감귤하우스 시설 등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가 38명으로 36.9%, 무임승차하는 농업인도 14명 13.6%로 나타났다.

##### ○ 농업인이 농업시책 참여의식 형태

구 분	계	적극참여	눈치껏 참여	무임승차	지원목적 참여
응답자(명)	103.0	14.0	37.0	14.0	38.0
비 율(%)	100.0	13.6	35.9	13.6	36.9

89명인 86.4%가 농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농가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농정시책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다. 제주농업이 네덜란드, 일본과 같이 선진화 가능성

제주농업이 네덜란드나 일본처럼 선진화될 수 있는가를 묻는 설문에 반드시 된다가 11명 10.7%, 노력하면 가능하다가 75명 72.8%, 어렵다가 17명 16.5%로 응답하였다.

##### ○ 제주농업이 네덜란드, 일본과 같이 선진화 될 수 있는가

구 분	계	반드시 된다	노력하면 가능	어렵다
응답자(명)	103.0	11.0	75.0	17.0
비 율(%)	100.0	10.7	72.8	16.5



여기서 반드시 된다, 노력하면 가능하다가 86명으로 83.5%를 차지하고 있어 제주농업의 미래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라. 제주농정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는**

농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농업분야를 묻는 설문에는 전체 74명 71.8%가 감귤분야로 응답하였고 일반작물 8명 7.8%, 채소분야 7명 6.8%, 화훼분야 3명 2.9%로 그동안 감귤에 대한 도정의 열의를 짐작하게 할 수 있다.

○ 제주농정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분야는

구 분	계	감귤분야	화훼분야	채소분야	일반작물	없 음
응답자(명)	103.0	74.0	3.0	7.0	8.0	11.0
비 율(%)	100.0	71.8	2.9	6.8	7.8	10.7

그리고 농정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농업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농업인도 11명 10.7%인데 이는 농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사료 된다

**마. 제주농업정책에 대한 만족도**

제주농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3명 중 매우만족이 6명 5.8%, 만족이 11명 10.7%, 그저 그렇다 74명으로 71.9%, 미흡(불만족)이 12명으로 11.6%로 조사되었다.

○ 제주농업정책에 대한 만족도

구 분	계	매우만족	만 족	그저 그렇다	미흡(불만족)
응답자(명)	103.0	6.0	11.0	74.0	12.0
비 율(%)	100.0	5.8	10.7	71.9	11.6

제주농정에 만족을 나타낸 응답자는 17명으로 16.5%로 그저 그렇다와 불만족을 나타낸 86명 83.5%을 고려하면 현재의 제주농정 패러다임은 반드시 농가의 요구를 만족 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바. 제주농정시책 중 가장 잘된 시책**

최근 제주도가 추진한 농정시책 중 가장 잘된 시책을 묻는 설문에 1/2간벌, 휴식년제 등 감귤적정생산에 72명 69.9%, 양배추 매취사업에 12명 11.6%, 밭농업 직불제에 7명 6.8%였고 해당 사항이 없다가도 7명이었다.

○ 제주농업시책 중 가장 잘된 시책

구 분	계	양배추 매취	감귤적정생산	밭농업	직불제	봄배추 폐기	없 음
응답자(명)	103.0	12.0	72.0	7.0	5.0	7.0	
비 율(%)	100.0	11.6	69.9	6.8	4.9	6.8	

1/2간벌, 휴식년제 등 감귤적정생산이 제주도가 추진한 시책 중 가장 잘된 시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 감귤가격 안정에 따라 농업인 소득이 증가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 투자우선 순위**

제주농업발전을 위해 투자우선 순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전체 유통분야에 우선투자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42명으로 40.8%, 생산분야에 우선 투자가 30명 29.1%, 홍보분야가 17명 16.5%, 가공분야가 14명 13.6%로 유통분야에 우선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 투자우선 순위

구 분	계	생산분야	유통분야	가공분야	홍보분야
응답자(명)	103.0	30.0	42.0	14.0	17.0
비 율(%)	100.0	29.1	40.8	13.6	16.5

이는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나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된 고품질의 농산물이 시장별 수요에 맞는 적정출하를 위한 유통 및 홍보 등 마케팅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 아. WTO/DDA, FTA 등에 제주농업 정책이 대응능력

WTO/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제주농업 정책의 대응능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가 4명으로 3.8%, 보통으로 대응한다가 41명 39.9%, 대응이 미흡하다가 51명인 49.5%,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가 7명인 6.8%로 나타났다.

##### ○ WTO/DDA, FTA 등에 제주농업 정책이 대응능력

구 분	계	빠르게 대응	대응 보통	대응 미흡	전혀 대응 못함
응답자(명)	103.0	4.0	41.0	51.0	7.0
비 율(%)	100.0	3.8	39.9	49.5	6.8

대응이 미흡하다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58명으로 56.3%로 응답자 절반이상이 제주농정이 WTO/DDA, FTA 등에 능동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농업인에게는 FTA로 인한 피해 등 부정적 시각이 어느 분야보다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한·미 FTA에 따른 오렌지 수입확대를 우려하는 농업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 차. 감귤의 고품질 안정생산 시책추진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0년 4월 1~20일까지이며, 노지감귤 작목반장, 독농가 등을 대상으로 97부의 유효표본을 확보하고 분석하였다.

고품질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감귤원 폐원, 1/2간벌, 인위적 휴식년제(격년결과), 감귤 열매숙기 등 시책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잘했다 45명 46.4%, 보통이다 39명 40.2%, 잘못했다 12명 12.4%, 무응답 1명으로 잘했다와 보통이다 등 긍정적 평가가 84명 86.8%로 대부분의 농업인이 고품질 적정생산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시책 평가

구 분	계	잘 했다	보통이다	잘못했다	무 응 답
응답자(명)	97.0	45.0	39.0	12.0	1.0
비 율(%)	100.0	46.4	40.2	12.4	1.0

고품질감귤 적정생산 시책 중 1/2간벌이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품질감귤 적정생산 시책별 평가 순서는 1순위 1/2간벌, 2순위 인위적 격년결과(휴식년제), 3순위 폐원, 4순위 열매숙기, 5순위 전정이다.

나무에 달린 감귤열매를 전부 따내는 인위적 휴식년제(격년결과)는 잘했다가 36명, 보통이다 37명 등 75.2%가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21.7%인 21명이 잘못했다고 평가하였고, 무응답이 3명이다.

○ 고품질감귤 인위적 휴식년제 시책 평가

구 분	계	잘 했다	보통이다	잘못했다	무 응 답
응답자(명)	97.0	36.0	37.0	21.0	3.0
비 율(%)	100.0	37.1	38.1	21.7	3.1

감귤원 1/2간벌을 선호도가 높은 것은 간벌을 통하여 감귤원 환경이 개선되어, 감귤원 관리가 편리해지고, 나무사이 공간 확보로 수광율이 향상, 고품질 적정생산으로 가격안정에 기여도가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4. 제주지역 농정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분석

##### 1)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제주농업의 향후 전망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제주농업의 향후 전망,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농업정책 대응, 제주지역 농산물의 해외수출 가능성, 제주농업의 선진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미 FTA에 따른 제주농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를 1점,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로 분석하였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농업정책 대응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를 1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로 분석하였으며, 제주산 농산물의 해외수출 가능성과 제주농업의 선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를 1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를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로 분석하였다 (표 31).

분석결과, 한·미FTA에 따른 제주농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평균 1.76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앞으로 한·미 FTA에 따라 제주농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농업정책 대응은 3.72점, 제주지역 농산물의 해외수출 가능성은 3.64점, 제주농업의 선진화 가능성도 3.38점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표 31 >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제주농업에 대한 전망

(5점 만점)

항 목	학 계	언 론	생산자	공무원	농업인	전 체
1. FTA에 따른 제주농업 전망	1.70	1.40	1.60	2.50	1.60	1.76
2. FTA에 대한 정책 대응	2.50	3.80	3.40	4.80	4.10	3.72
3. 농산물의 해외수출 가능성	3.40	3.60	3.50	4.10	3.60	3.64
4. 선진농업화의 가능성	3.30	3.30	3.40	3.70	3.20	3.38

한·미 FTA 등에 따라 제주농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언론(1.40점)과 생산자 단체(1.60점), 농업인(1.60점), 학계(1.70점) 모두 2점 이하로 매우 어렵다는 인식을 보인 반면, 공무원은 2.50점으로 비교적 높은 전망을 보여 집단별 차이를 보였다.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농업정책 대응에 대해서는 학계만 2.50점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인 반면, 공무원은 4.8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주었고, 다음으로 농업인 4.10점, 언론 3.80점, 생산자단체 3.40점 순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앞장에서 분석한 제주농업의 문제점 설문조사에서는 FTA 대응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농업인(임의선정)이 56.3%를 차지하였으나, 전문가 그룹의 농업인 대표는 FTA에 대한 정책 대응을 잘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표 31).

제주 농산물의 해외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4.10점으로 매우 높은 가능성을 보이고, 다음으로 언론과 농업인이 각각 3.60점, 생산자 단체 3.50점, 학계 3.40점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농업의 선진화 가능성은 공무원이 3.70점으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고, 생산자단체 3.40점, 학계와 언론 3.30점, 농업인 3.20점 순으로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따라서 한·미 FTA 등에 따라 제주농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FTA에 대한 농업정책 대응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농산물의 해외수출과 선진농업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해외수출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조사한 결과, 1순위 농산물은 감귤(29명)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당근(3명)과 월동채소(3명), 화훼류(3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마늘, 백합, 브로콜리, 양배추, 유기농감귤, 파프리카, 한라봉, 허브식물 의견도 있었다.

2순위에서도 감귤(9명)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월동채소(7명), 화훼류(6명), 양배추(4명), 당근(4명), 마늘(3명), 돼지고기(2명), 채소류(2명), 파프리카(2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감자, 무, 유기농, 참다래, 콩, 특용작물, 한라봉 의견도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해외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농산물은 감귤과 월동채소, 화훼류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농산물에 대한 해외수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농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14명)을 가장 우선적 과제로 지

적하였고, 다음으로 농업인들의 의식개혁과 선진화, 자립의지 확보를 위한 교육(12명), 경쟁력 있는 작물(특작화, 유기농, 아열대작물)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정책(7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32).

< 표 32 > 제주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선결과제

순위	내 용	빈도(명)
1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생산 및 안정적인 유통 인프라구축	14
2	농업인 의식교육(개혁, 의식 선진화, 자립의지 확보)	12
3	경쟁력 있는 작물 연구 및 보급(특작화, 유기농, 아열대 등)	7
4	생산자 단체의 역할 강화, 구조조정	6
	고품질 규모화 농업	6
6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 확대	5
	전문인력 육성 및 영농기술 전문화	5
8	단기대책을 지양하고 정확한 분석과 이에 따른 장기전략 수립	4
9	기후 온난화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	2
	규격 생산 및 공동 브랜드화	2
10	경쟁력 약화시키는 행정적 지원 중단	2

그 외 생산자 단체의 구조조정과 역할분담, 고품질 및 규모화 농업으로의 전환,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영농기술 전문화, 장기전략 수립,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 규격생산 및 브랜드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 2) 제주농업 정책에 대한 평가

### 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정책 평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을 1점,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로 분석하였다(표 33).

분석결과, 제주 농업정책에 대해서 3.00점으로 중간적 평가를 보였는데, 공무원(3.60점)과 농·감협 등 생산자 단체(3.10점)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인(3.00점)은 중간적 태도를, 그리고 학계(2.80점)와 언론(2.50점)은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3 > 제주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5점 만점)

항 목	학 계	언 론	생산자	공무원	농업인	전 체
제주농업 정책에 대한 평가	2.80	2.50	3.10	3.60	3.00	3.00

<표 34>에서와 같이 제주도의 농업정책 평가한 항목 중 불만족으로 평가한 이유를 보면, 감귤대체 작물 개발과 아열대 기후에 필요한 작물 개발 부족, 농산물의 일시적 가격안정 정책, 농업발전 장기전략이 농업인 기대에 미치지 못함,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체계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보통으로 평가한 이유는 대부분 불만족 이유로서 중장기 투자계획의 기대에 못 미치고, 농가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부족, 정체된 농업정책, 선진농업에 대한 분석 부족, 농정실행에 과도한 관(官)의 개입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감귤 대체작목에 대한 육성 및 보급 부족, 농업인과 함께하는 정책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과잉 생산된 채소류 문제 해결과 감귤 이외의 농작물 생산체계에 대한 지원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만족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배추 매취사업과 양파 산지폐기 등 농산물 가격안정 노력, 감귤원 1/2간벌사업 등을 통한 가격안정, 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 계약출하 사업 추진, FTA기금 사업 지원, 감자 등 밭작물의 월동재배 가능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상의 이유를 종합하면 만족하는 이유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따른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인식을 보이고, 불만족 이유는 가격안정에만 치우친 단기 정책으로 장기적 정책의 미흡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4 > 제주농업 사안별 평가 이유

구 분	평 가 이 유
불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발전 장기 전략이 농업인 기대에 미치지 못함</li> <li>· 실질적으로 제시된 감귤 대체작목이 없음</li> <li>· 농정방향이 단기적인 농산물 가격안정에 주력</li> <li>·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 미흡</li> <li>· 새로운 감귤품종 개발과 아열대 기후에 적합한 품종 보급 미진</li> <li>· 제시되는 농업정책에 대한 농가 호응도가 낮음</li> <li>· 지원농가 선정기준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는 지원받기 어려움</li> <li>· 농가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어려움</li> <li>· 제주농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의 부족</li> <li>·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음</li> </ul>
보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산업 중심의 농정추진 등 체계적인 투자계획 미흡</li> <li>· 농가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등 부족</li> <li>· 지원을 받은 정책 수혜자들의 농정에 대한 불만 표출</li> <li>· 감귤 대체작목에 대한 육성 및 보급 기대에 못 미침</li> <li>· 농가를 모두 만족시키는 농업정책 없음</li> <li>· 시장개방 확대 등 향후 경쟁력 강화 준비 부족</li> <li>· 실제 변화된 내용이 없는 반복된 농업정책 추진</li> <li>· 농업인과 함께 하는 정책 제시가 어려움</li> <li>· 생산과 유통이 연관되지 못함</li> <li>· 선진 농업에 대한 분석 부족 및 고도화된 농업 전문인력 부족</li> <li>· 농정 실천에 대한 과도한 관의 개입으로 농가실천 의지 미약</li> <li>· 농업정책에는 농업인이 공감하는 일관성이 필요</li> </ul>
만 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잉생산된 채소류의 문제 해결과 가뭄 해결 노력</li> <li>· 감귤이외의 농작물 생산·유통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li> <li>· 현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농업인 의식을 고려할 때 최선의 노력</li> <li>· 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과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FTA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꾸준한 농업정책 추진</li> <li>·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씨감자의 안정적 공급 및 발작물의 월동채배 가능으로 소득 향상</li> <li>· 양배추 매취사업과 양파산지 폐기 등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li> <li>· 농산물 계약출하 사업 및 감귤에 대한 FTA 지원사업 확대</li> <li>· 채소류 가격안정 및 감귤가격이 매년 6천억 원 이상으로 좋아 농가 경제 안정 등</li> </ul>

## 나. 선진 농업화를 위한 노력

제주농업의 선진화를 위해 누가 가장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58.0%(29명)은 농업인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16.0%(8명)은 기타, 14.0%(7명)은 생산자 단체가 12.0%(6명)는 제주도정이 노력해야 한 다로 나타났다(표 35).

세부적으로 보면, 학계는 농업인(50.0%), 생산자 단체(30.0%), 제주도정(20.0%) 순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언론은 농업인(40.0%)과 기타(40.0%), 제주도정(20.0%),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70.0%), 제주도정(10.0%)과 기타(10.0%), 공무원은 농업인(80.0%)과 생산자 단체(20.0%), 농업인은 농업인(50.0%), 기타(30.0%), 제주도정(10.0%)과 생산자 단체(10.0%)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5 > 제주농업 선진화를 위한 노력 주체

(단위 : %)

구	분	제주도정이 노	생 산 자 단체가 노력	농 업 인 스스로 노력	기 타	계
학	계	20.0	30.0	50.0	0.0	100.0
언	론	20.0	0.0	40.0	40.0	100.0
생	산자단체	10.0	10.0	70.0	10.0	100.0
공	무 원	0.0	20.0	80.0	0.0	100.0
농	업 인	10.0	10.0	50.0	30.0	100.0
	계	12.0	14.0	58.0	16.0	100.0

특히, 학계의 50.0%와 언론의 40.0%, 생산자 단체의 70.0%, 공무원의 80.0%, 농업인의 50.0%는 농업인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농업인 스스로 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제주 농업정책을 실행하는 주요시책이 농업인 중심의 시책인지에 대해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32.0%는 농업인을 위한 시책이라 응답하였다.

농업인 중심 시책으로는 영농지도, 유기질 비료보조, 하우스시설 지원, 매취사업, 산지폐기,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지원, 월동채소 수급조절 사업, 주요 작물별 가격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을 농업인 중심시책 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농업인 중심의 시책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중은 44.0%로서 현실성이 떨어

지는 감귤대체작목 개발, 농업인 이해가 어려우며 농업기술 보급,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기준은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선정기준, 일방적인 농정추진, 농업인과의 대화부족 등을 농업인 중심의 시책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다.

#### 다. 농업분야 지원 우선순위

제주농업에 정책적 지원 우선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48.0%(24명)는 유통분야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22.0%(11명)가 인력양성 분야, 12.0%(6명) 생산분야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6).

세부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학계는 유통분야(50.0%)와 가공분야(40.0%), 인력양성분야(10.0%), 언론은 유통분야(50.0%), 홍보(20.0%)와 인력양성분야(20.0%), 생산분야(10.0%), 생산자 단체는 유통(30.0%)과 생산(30.0%), 인력양성분야(30.0%), 기타분야(10.0%), 공무원은 유통분야(50.0%), 인력양성분야(40.0%), 생산분야(10.0%), 농업인은 유통분야(60.0%), 홍보(10.0%)와 인력양성분야(10.0%), 기타분야(10.0%) 순으로 나타났다.

< 표 36 > 제주농업 정책 지원의 중요 분야

(단위 : %)

구 분	유통 분야	생 산 분야	홍 보 분야	가 공 분야	인력양성 분야	기 타 분야	계
학 계	50.0	0.0	0.0	40.0	10.0	0.0	100.0
언 론	50.0	10.0	20.0	0.0	20.0	0.0	100.0
생산자단체	30.0	30.0	0.0	0.0	30.0	10.0	100.0
공 무 원	50.0	10.0	0.0	0.0	40.0	0.0	100.0
농 업 인	60.0	10.0	10.0	0.0	10.0	10.0	100.0
계	48.0	12.0	6.0	8.0	22.0	4.0	100.0

특히, 유통분야는 학계(50.0%)와 언론(50.0%), 공무원(50.0%), 농업인(60.0%), 생산자 단체(30.0%)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공분야는 학계(40.0%), 생산분야는 생산자 단체(30.0%), 홍보분야는 언론(20.0%), 인력양성분야는 공무원(40.0%)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농업정책 변화를 위한 해결과제

<표 37>과 같이 제주농업 정책 변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수립한 농업정책에 대하여 농협·감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자주적이고 창의성 있는 방향으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38.0%(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평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18.0%)과 지금까지의 지원시책이 물리적 투자 위주의 유형적 형태에서 제도개혁, 지원방식 개선 등 무형적 부분을 중시함으로써 행정지원이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18.0%), 제주도정은 정책개발과 시장기능 등 생산과 유통의 원활을 위한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16.0%), 모든 농업인을 동질적으로 보고 획일적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10.0%) 순으로 나타났다(표 37).

< 표 37 > 제주농업 정책변화를 위한 해결과제

(단위 : %)

구분	농업정책 실행주체 생산자 단체	생산과 유통 지원	동질적 회일적 지원개선	수평적 역할 분담	무형적 지원 실질적 혜택	계
학계	30.0	20.0	0.0	20.0	30.0	100.0
언론	40.0	10.0	20.0	0.0	30.0	100.0
생산자단체	40.0	0.0	10.0	40.0	10.0	100.0
공무원	40.0	10.0	20.0	20.0	10.0	100.0
농업인	40.0	40.0	0.0	10.0	10.0	100.0
계	38.0	16.0	10.0	18.0	18.0	100.0

특히, 학계(30.0%)와 언론(40.0%), 생산자 단체(40.0%), 공무원(40.0%), 농업인(40.0%) 모두가 농업정책의 실행 주체는 생산자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산과 유통의 원활한 지원은 농업인(40.0%)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평적 역할 분담은 생산자 단체(40.0%)가, 유형적 지원에서 무형적 지원으로 변경하여 실질적 혜택으로의 전환은 학계(30.0%)와 언론(30.0%)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정책의 실행은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창의성 있는 농정 방향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등 새로운 정책의 도입 필요성

새로운 정책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5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점으로 환산한 평균점수로 분석하였다(표 38).

세부적인 제주농업 정책 대안으로는 과잉생산구조를 갖고 있는 월동채소류 등과 같은 농작물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작부체계(Cropping System) 개선”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품목별 조합인 생산자 단체에서 재배농가에 강제력을 일부 발동하는 “휴경공유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감귤의 생산예상량 관측조사와 유사한 “농산물 관측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동일한 가치관을 갖는 집단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생활요구를 만족시키기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를 농업에 접목하여 지역별로 새로운 형태의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산물 관측조사의 필요성은 4.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필요성 4.14점, 작부체계 개선의 필요성 4.10점, 휴경공유제의 도입 필요성 3.32점으로 나타나 4가지의 농업정책 대안에 대해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표 38 > 새로운 농업정책의 도입 필요성

(5점 만점)

항 목	학 계	언 론	생산자	공무원	농업인	전 체
1. 작부체계 개선의 필요성	4.20	4.20	4.10	4.40	3.60	4.10
2. 휴경공유제 도입의 필요성	3.50	3.60	2.70	3.70	3.10	3.32
3. 농산물 관측조사의 필요성	4.10	4.50	4.60	4.00	4.10	4.26
4.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필요성	4.50	4.20	3.80	4.10	4.10	4.14

작부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공무원(4.40점)이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다음으로 학계(4.20점)와 언론계(4.20점), 생산자 단체(4.10점), 그리고 농업인(3.60점) 순으로 나타났다.

휴경공유제 도입에 대해서도 공무원(3.70점)이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다음으로 언론(3.60점), 학계(3.50점), 농업인(3.10점) 순으로 높은 필요성을 보였으나, 생산자 단체는 2.70점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농산물 관측조사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4.60점)가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다음으로 언론(4.50점), 학계(4.10점)와 농업인(4.10점), 공무원(4.0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에 대해서는 학계(4.50점)가 가장 높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다음으로 언론(4.20점), 공무원(4.10점)과 농업인(4.10점), 생산자 단체(3.80점) 순으로 높은 필요성을 보였다.

따라서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작부체계의 개선, 휴경공유제 도입, 농산물 관측조사,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필요하다는데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도입하여 공동체 사업(마을회사)으로 생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을 통해 수익사업을 실시한다면, 어떤 작물과 어떤 수익사업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39).

분석한 결과, 농산물 이벤트와 관련된 사업은 감귤 품종별 축제, 감귤꽃 축제, 비상품 감귤을 이용한 감귤축제 등과 같은 감귤관련 축제와 약용작물 축제, 고사리 축제, 야생화 축제, 맥주축제, 마늘 축제 등 작물을 이용한 축제, 그리고 말과 당근, 감자 등의 농축산물과 한치, 갈치, 고등어 등의 수산물을 올레길과 연계한 축제, 코스메틱 벨리사업과 연계한 축제 등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지역 특산물 활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생산과 공동판매, 흑색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관광, 약초마을 및 감귤 촌 건설, 1마을 1특산물 명품화 전략, 선인장 활용, 올레 관광객 활용, 마늘 가공제품 개발 건강상품화 등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주요 특산물별 소규모 가공공장 시설로 제품생산, 건강과 기능성을 중시한 차별화된 작물선정, 지역별, 품목별 유통회사 설립, 잡곡류 생산회사 설립 등이 있었다.

반대의견으로는 보조금에 의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은 경쟁력 없고, 작물별 가공품, 이벤트 등 이미 많은 방안이 강구되었으며, 시장원리에 따라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 표 39 >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물과 사업

구 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농산물 이벤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을 이용한 계절별 축제 이벤트 (노지감귤 꽃, 하우스감귤 꽃, 감귤 꽃 향기를 이용한 이벤트, 감귤 청과, 감귤 수확, 감귤 먹기 대회 등)</li> <li>· 토마토 축제와 같이 감귤 비상품을 이용한 이벤트</li> <li>· 제주의 청정성을 강조한 약용작물 축제(약령시장 개설)</li> <li>· 제주 농작물 꽃 및 야생화 축제</li> <li>· 마늘축제, 맥주맥을 활용한 맥주축제</li> <li>· 농산물, 감귤 등 가공식품과 박물관을 연계한 축제</li> <li>· 농업(말, 당근, 감자)+수산(한치, 갈치, 고등어)+올레길 축제</li> <li>· 코스메틱벨리(첨단건강산업)사업과 연계한 화장품 개발</li> </ul>
지역 특산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특산물 이용한 가공제품 생산과 공동판매</li> <li>· 두류와 서류를 연계한 가공제품 개발 및 생산·유통</li> <li>· 흑색 농산물(검은콩 등)을 활용한 음식관광</li> <li>· 제주 약초마을 건설(청정약초를 매개로 한 관광자원화)</li> <li>· 감귤(생산, 수확, 유통, 가공을 연계한 관광화)촌 건설</li> <li>· 1마을 1특산물 명품화 전략</li> <li>· 선인장 활용한 새로운 상품개발 및 관광 상품화</li> <li>· 올레관광객을 활용한 농산물 및 가공품홍보 및 판매</li> <li>· 마늘 가공제품 개발 건강상품화</li> </ul>
기 반 시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투잔 없이 기존의 농촌 기반시설을 활용한 사업</li> <li>· 지원은 제안서나 사업계획서를 통해 선정 후 지원</li> <li>· 주요 특산물별 소규모 가공공장 시설로 제품생산</li> <li>· 건강과 기능성을 중시된 차별화된 작물선정 재배</li> <li>· 지역별 품목별 유통회사 설립 후 마케팅 강화</li> <li>· 잡곡류 생산·유통회사 설립 지역특성화</li> </ul>
반 대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 주도 보조금에 의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은 경쟁력 없음</li> <li>· 작물별 가공품, 이벤트 등 이미 많은 방안이 강구되었음</li> <li>· 행정에서 작물과 유형을 설정하지 말고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하도록 해야 함</li> <li>· 시장원리에 따라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설계되어야 함</li> </ul>

#### 바. 2010년산 감귤가격이 좋았던 이유

2010년산 감귤 가격이 좋았던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40>과 같이 60.0%(30명)은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등 감산시책으로 적정생산으로 시장수요에 맞는 수급조절이 가능해서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34.0%(17명)는 기후 등 기상조건이 좋아서, 6.0%(3명)은 감귤을 살려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토양피복재배(타이백) 등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이 도입되어서(0.0%)

와 비상품 시장출하 차단 등 유통단속을 잘해서(0.0%)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학계, 언론, 생산자단체 등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특히, 학계의 70.0%와 언론의 60.0%, 생산자 단체의 70.0%, 공무원의 90.0%는 감산시책으로 적정생산이 가능해서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농업인은 감산시책에 대해서는 10.0% 의견을 보인 반면, 기후 등 기상조건이 좋아서가 80.0%로 나타나 농업인과 그 외 전문가 집단과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의 80.0%가 응답한 기상조건이 좋아서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학계는 20.0%, 언론은 40.0%, 생산자 단체는 20.0%에 비해 공무원은 10.0%만 의견을 보여 농업인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간의 인식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 표 40 > 2010년산 감귤가격이 좋았던 이유

(단위 : %)

구	분	기상조건 좋아서	감산시책으로 적정생산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도입	위기의식 때문	유통단속 의 성공	계
학	계	20.0	70.0	0.0	10.0	0.0	100.0
언	론	40.0	60.0	0.0	0.0	0.0	100.0
생	산자단체	20.0	70.0	0.0	10.0	0.0	100.0
공	무원	10.0	90.0	0.0	0.0	0.0	100.0
농	업인	80.0	10.0	0.0	10.0	0.0	100.0
	계	34.0	60.0	0.0	6.0	0.0	100.0

#### 사. 향후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책 추진주체

앞으로 고품질 감귤의 안정생산 시책을 누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41>과 같이 60.0%(30명)은 생산자 단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24.0%(12명)는 농업인 스스로, 10.0%(5명)은 행정기관, 6.0%(3명)은 기타 의견을 보였다.

특히, 학계의 60.0%와 언론의 50.0%, 공무원의 80.0%, 농업인의 80.0%가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당사자인 생산자 단체는 30.0%만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생산자 단체는 40.0%가 농업인이 스스로 해야 한다. 30.0%는 행정기관이라는 의견을 보였는데,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학계와 공무원은 0.0%, 농업인과 언론은 10.0% 의견을 보였다는 점에서 생산자 단체 스스로



행정기관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41 > 향후 고품질 감귤 안정시책 추진주체

(단위 : %)

구분	행정기관	생산자 단체	농업인스스로	기타	계
학계	0.0	60.0	40.0	0.0	100.0
언론	10.0	50.0	20.0	20.0	100.0
생산자단체	30.0	30.0	40.0	0.0	100.0
공무원	0.0	80.0	20.0	0.0	100.0
농업인	10.0	80.0	0.0	10.0	100.0
계	10.0	60.0	24.0	6.0	100.0

또한 농업인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학계와 생산자 단체는 각각 40.0%, 언론과 공무원은 각각 20.0% 의견을 보였으나, 농업인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농업인 스스로가 고품질 감귤 안정시책의 주체가 되려는 의사는 보이지 않고 있다.

#### 아. 감귤분야 세부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제주도의 감귤분야 세부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위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만족도, 감귤유통 명령제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 감귤원 폐원사업의 감귤 경쟁력 강화 기여도, 감귤원 간벌사업의 감귤 경쟁력 강화 기여도, 감귤열매를 전부 따내는 인위적 휴식년제(격년결과)가 감귤 경쟁력 강화 기여도, 감귤복합 가공처리공장 운영의 감귤경쟁력 강화 기여도, FTA 대응 감귤산업 종합대책 만족도,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책에 대한 참여정도에 대해 5점을 척도로 점수화 하여 분석하였다(표 42).

분석결과, 감귤원 간벌사업의 감귤 경쟁력 기여도가 4.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감귤복합가공처리 공장 운영의 감귤 경쟁력 강화 기여도가 3.96점, 감귤 휴식년제 사업의 감귤 경쟁력 강화 기여도 3.98점, 감귤원 폐원사업의 감귤 경쟁력 강화 기여도 3.90점,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책에 대한 참여정도 3.70점, 감귤유통명령제의 성과 만족도 3.42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만족도 3.26점, FTA 대응 감귤산업 종합대책 만족도 3.20점 순으로 나타났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계(3.60점)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언론(3.40점)과 생산자 단체(3.40점), 공무원(3.10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농업인은 2.80점으로 불만족 의견이 더 많았다.

감귤유통명령제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도 학계(3.70점)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언론(3.60점), 공무원(3.50점), 생산자 단체(3.30점), 농업인(3.00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감귤원 폐원사업의 감귤 경쟁력 강화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공무원(4.60점)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농업인(4.20점), 학계(4.00점), 언론(3.50점), 생산자 단체(3.20점)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 표 42 > 감귤분야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

(5점 만점)

항 목	학 계	언 론	생 산 자	공 무 원	농 업 인	전 체
1.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만족도	3.60	3.40	3.40	3.10	2.80	3.26
2. 감귤유통명령제의 성과 만족도	3.70	3.60	3.30	3.50	3.00	3.42
3. 감귤원 폐원사업의 경쟁력 기여도	4.00	3.50	3.20	4.60	4.20	3.90
4. 감귤원 간벌사업의 경쟁력 도움	4.10	4.10	4.00	4.70	4.50	4.28
5. 감귤 휴식년제 사업의 경쟁력 기여도	3.80	3.60	3.70	4.50	4.30	3.98
6. 감귤복합가공처리공장 운영의 경쟁력 기여도	3.80	4.20	3.50	4.60	3.70	3.96
7. FTA 대응 감귤산업 종합 대책 만족도	3.30	2.60	2.90	3.60	3.60	3.20
8.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책에 대한 참여정도	3.60	4.10	3.90	3.40	3.50	3.70

감귤원 간벌사업의 감귤 경쟁력 강화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공무원(4.70점)이 가장 높은 도움정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농업인(4.50점), 학계(4.10점)와 언론(4.10점), 생산자 단체(4.00점)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감귤열매를 전부 따내는 인위적 휴식년제(격년결과) 사업의 감귤 경쟁력 강화 기여도에 대해서는 공무원(4.50점)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농

업인(4.30점), 학계(3.80점), 생산자 단체 (3.70점), 언론(3.60점) 순으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감귤복합가공처리공장 운영의 감귤 경쟁력 강화 기여도에 대해서는 공무원(4.60점)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언론(4.20점), 학계(3.80점), 농업인(3.70점), 생산자 단체(3.50점)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FTA 대응 감귤산업 종합대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공무원(3.60점)과 농업인(3.60점)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학계(3.30점)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자 단체는 2.90점, 언론은 2.60점으로 낮게 나타나 FTA 대응 감귤산업 종합대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시책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도에 대해서는 언론(4.10점)이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생산자 단체(3.90점), 학계(3.60점), 농업인(3.50점), 공무원(3.40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되었던 감귤관련 정책에 대해 성과가 높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감귤 관련 정책에 대한 시정(是正) 의견

#### 가.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감귤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제주인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감귤의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감귤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감귤조례는 감귤에 대한 문제는 제주도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의지 표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감귤산업은 보호하고 육성하겠다는 법적제도라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품규격은 크기를 선별하는 드럼식 선과기에 초점을 맞춘 규정이다. 그러나 광센서 선과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크기뿐만 아니라 당도, 산도까지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시장의 적정수요를 감안하여 현재의 크기와 중량에 따른 상품규정 기반위에 과일의 크기 또는 중량별로 당도, 산도 등 품질을 추가하는 상품규정으로 전

환하여 소비자의 구매성향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 감귤조례에 대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의견들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표 43).

첫째는 상품규격에 대한 재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둘째 조례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셋째 생산과 유통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표 43 >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

구 분	의 건
조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지 감귤에 대한 상품규격(크기, 중량)의 재조정</li> <li>· 출하연합회 구성 및 운영규정 강화</li> <li>· 감귤 유통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강제규정 신설 추가 등</li> <li>· 감귤 농업인에 대한 지원강화내용 필요</li> <li>· 1번과와 9번과 등 시장출하 금지 규정 강화</li> <li>· 1번과와 9번과 수출 가능토록 수출 규격에 대한 규격 조정</li> <li>· APC에서 선과한 감귤은 당도 기준 확실 유통명령 대상에서 제외</li> <li>· 상품규정 크기 위주에서 품질(당산비) 기준으로 전환</li> <li>· 하우스 감귤에 대한 상품 규정 별도마련</li> <li>· 제주도, 농식품부 2개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귤관측조사 일원화</li> <li>· 규제성격 조례를 임무부여 규정으로 변경(생산자단체의 책임과 역할 강화)</li> </ul>
조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계통출하 금지, 도매시장 상장 금지 등)</li> <li>· 과태료 부과 벌칙이외 행·재정상 제재 필요(지원 금지)</li> <li>· FTA 대응 비상품 감귤범위 확대 시장출하 감귤 품질고급화 필요</li> <li>· 공평한 집행시스템 구축(무임승차자, 조례위반자에 대한 법적대응)</li> <li>· 비상품 감귤 격리를 위한 규정 강화</li> <li>· 제주시 생산 감귤 서귀포시산 둔갑 포장 금지규정 추가</li> </ul>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에서 구매되는 감귤은 소비자들의 의향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함</li> <li>· 감귤조례로 비상품 단속이 완벽히 되지 않고 있음</li> <li>· 조례에 의한 감귤정책은 감귤농가들이 적정생산 및 유통에 대한 책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가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음</li> <li>· 시장원리에 따라 생산, 유통되어야 경쟁력이 생김</li> <li>· 감귤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시장원리에 따른 생산과 유통 필요</li> <li>· 국제적 추세가 자율에 의한 유통체제이므로 폐지</li> </ul>

#### 나. 농산물(감귤) 유통조절명령제

감귤 유통조절명령제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표 44).

첫째는 유통명령제가 발령되어도 일부에서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 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발령되지만 다른 지역 지자체의 지원 및 국비지원이 없어서 효율적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농산물을 규제하는 것이 문제로서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감귤조례와 차별성이 거의 없으므로 발령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종합할 수 있다.

< 표 44 > 감귤 유통명령제에 대한 의견

구 분	감귤 유통조절 명령제에 대한 문제점
강한 규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명령제가 발동되어도 비상품을 지속적으로 출하하는 유통인이 있음</li> <li>· 과잉생산시 유통조절 능력 상실(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상품 유통)</li> <li>· 감귤수급 조절로 가격이 안정되었지만 비상품 유통은 여전한</li> <li>·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을 위한 보다 강한 제재를 이한 규정이 필요</li> <li>· 과태료 장기 체납으로 행정불신 요인으로 대두</li> <li>· 택배를 통한 비상품 유통시 지도·단속에 어려움 있어 대책 필요</li> <li>· 비상품 출하자와 단속반의 의견차이로 상호불신 초래</li> <li>· 비상품 유통 도외 유통인, 상인, 판매자에 대한 규제에 어려움</li> </ul>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유통명령제 발령시 타시도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결여</li> <li>· 감귤 1번과 상품으로 둔감 출하되고 있어 상품규정 제고 필요</li> <li>· 매년 발효가 아니라 장기적 발효가 중요</li> <li>· 발효 시스템이 복잡하므로 지자체가 그 권한을 갖도록 함</li> <li>· 타도시의 협조가 미흡 및 상품규격 개선 필요</li> </ul>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에 대해 규제하는 그자체가 문제</li> <li>· 시장원리에 따라 유통되도록 자율에 맡겨야 함</li> <li>· 전국적 발령이지만 실행은 감귤조례와 크게 다르지 않음</li> <li>· 외국에서도 유통명령제는 거의 발령치 않음</li> <li>· 가격안정에 기여하나 대과나 소과가 생산되지 않은 재배기술 교육 미비</li> <li>· 감귤조례와 다른 점을 농가에서 잘 알지 못함.</li> <li>· 정부는 가격폭락 방지와 물가안정 목적이지만 제주도 차원에서는 적정 가격 유지 및 고소득 창출 방편으로 발령</li> </ul>

#### 다. 감귤원 폐원사업

감귤원 폐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시한 의견은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표 45).

첫째는 감귤원 폐원지에 식재할 대체작물 개발이 미비하여 월동채소류 과잉생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폐원 사업비 지원에 따른 관리기간(10년)이

종료되면 또다시 감귤나무를 식재 할 수 있다는 점, 셋째는 감귤에만 특정한 지원 등 타작목과 형평성의 문제이다.

< 표 45 > 감귤원 폐원사업에 대한 의견

구 분	감귤원 폐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대 체 작 부 물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원 후 감귤소득을 대체할 작물개발이 없어 또다시 감귤식재 우려</li> <li>· 감귤재배면적 감소로 적정생산에 도움이 되나 타 농산물 재배면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채소류 재배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 우려 등)</li> <li>· 망고, 아페모아 등 일부 대체작목은 주로 열대작물로 식재를 위해서는 하우스 시설 등이 필요하며 영세농인 경우 자금 확보에 어려움</li> <li>· 감귤처럼 재배가 용이하고 생산량과 수익이 높은 경쟁력 있는 대체 작물개발 시급</li> <li>· 제주지역 기후 등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작물 개발 필요</li> </ul>
개선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원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 감소 등 조절이 필요(간별)</li> <li>· 지원에 의한 폐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타 작물에는 지원되지 않음) 농업인 스스로 폐원추진</li> <li>· 행정 중심의 폐원 추진은 농업인 참여 저조 등 한계가 있음</li> <li>· 폐원에 대한 직접 보조보다는 폐원농가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보상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함</li> <li>· 지속적으로 감귤원이 조성되듯이 폐원도 농가자율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li> <li>· 무조건적인 폐원보다는 감귤농가의 경영규모를 고려한 폐원 추진</li> </ul>

감귤원 폐원사업에 대한 개선점으로 제시한 주요 의견으로는 농업인 스스로 폐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으로 종합할 수 있다.

#### 라. 감귤원 간별사업

감귤원 간별사업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표 46).

첫째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자율성 부족으로 인해 행정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간별 사업비를 감귤에만 지원하는 문제로서 타 작목과의 형평성, 간별 참여농가와 비참여 농가와의 이익공유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별은 행정의 지원이 있어야 실천 한다는 행정주도사업 인식 등으로 인한 농업인 자율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으로 종합할 수 있다.

< 표 46 > 감귤원 간벌사업에 대한 의견

구 분	감귤원 간벌사업에 대한 문제점
행정 지원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벌면적은 매년 확대할 필요가 있음</li> <li>· 밀식원 기준을 설정하여 의무적 또는 지속적 감귤추진</li> <li>· 밀식원 파악 및 품질, 수량, 모니터링 강화로 간벌실천</li> <li>· 농가 스스로 해야 하지만 자율참여 의지 부족하므로 간벌에 소요되는 작업비 현실화 등 간벌여건 조성 등 적극 지원</li> <li>· 행정에서 지원에 의한 간벌은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 스스로의 자발적 간벌 유도</li> <li>· 자발적 간벌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보상 및 감독 강화</li> <li>· 인센티브는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엄격히 적용</li> <li>· 실제 간벌 면적과 보고된 간벌실적 수치간의 불일치 등으로 농가와 행정 상호간의 불신 초래</li> <li>· 간벌에만 사업비 지원으로 채소류 등 타 농산물 재배농가 상대적 소외감</li> <li>· 기계톱, 파쇄기 등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로 불안전성 언제나 상존</li> </ul>
자율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재정 지원 없이 농가 스스로 간벌해야 함</li> <li>· 지원에 의한 실천에서 농가 자율 실천으로 전환하여 부족한 농가의 자율의지 보충</li> <li>· 행정주도의 간벌정책으로 농가의 수동적 참여 및 농가의 의존심리 심화로 위기에 능동적 대응의식 부족, 지원사업 대상자 대기이해 참여</li> <li>· 고령화로 인해 농민 자발적 참여부족</li> <li>· 감귤가격이 좋았을 경우 간벌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농가는 이득(가격 상승시 참여농가와 비참여 일정액 공유)</li> <li>· 행정지원 없이 농가자율에 의한 간벌실천은 어려움이 있음</li> </ul>

**마. 감귤열매를 모두 따내는 인위적 휴식년제(격년결과)**

감귤원 휴식년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표 47).

첫째는 행정지원 문제로서 휴식년제에 따른 재배기술 개발필요, 휴식년제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 지원액의 현실화 문제이다.

둘째는 관리의 문제로서 휴식년제 감귤원 관리가 힘들다는 점과 열매가 많이 열린 과원의 참여저조, 더운 여름에 작업인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초기 사업으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효과에 대한 홍보강화 필요, 열매가 많이 안달린 감귤원(농가)만 참여, FTA 지원사업 가산점을 받기 위한 수동적 참여 등 자율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 표 47 > 감귤 휴식년제 사업에 대한 의견

구 분	감귤 휴식년제 사업에 대한 문제점
행 정 지 문 원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열매 따기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 필요</li> <li>· 휴식년제 실천을 위해 열매따기 등 휴식년제 방법개발 필요</li> <li>· 감귤의 적정생산을 위하여 강한 추진이 필요</li> <li>· 사업비는 생산자 단체에 일부지원 필요(생산자 단체는 자체자금 및 농업인 부담금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li> <li>· 휴식년제 지원액의 현실화 필요</li> <li>· 휴식년제에 따른 재배기술 미비하고 초기 사업으로 지원과 인센티브가 있어야 농업인이 동참</li> </ul>
관 리 의 문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매는 없으나 생육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지출</li> <li>· 휴식년제 감귤원은 열매달린 감귤원과 별도의 관리를 해야 함</li> <li>· 생산자 단체별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사후관리 등 추진필요</li> <li>· 열매 달린 과수원에 비해 관리가 안됨</li> <li>· 적과 후 여름 순이 강하여 이듬해 낙과량이 많거나 가을 순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이듬해 적정착과가 안될 농가에 대한 대책이 없음</li> <li>· 더운 여름철에 작업을 해야 함으로 인력 동원이 쉽지 않음(착과량이 많을 경우 많은 작업시간과 여름에 따내야 하는 문제)</li> </ul>
농 가 자 문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과량이 부족한 감귤원들을 대상으로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li> <li>· 인력동원이 많고 현실적으로 열매가 많지 않은 농가만 참여(열매를 다 따버리면서 동참하려는 농업인 의지 부족)</li> <li>· 농가 스스로 실천해야 감귤원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수 있으나 현재 여건상 일부 농업인 실천의지 부족(전체면적에 비해 참여 실적 저조)</li> <li>· FTA 지원사업 등에 가산점을 받기 위한 수동적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및 인센티브 없으면 참여하지 않음</li> <li>· 농업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이가도록 홍보 등 대농업인 교육 강화 필요</li> </ul>

**바. 감귤복합가공공장 운영**

감귤복합가공공장 운영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표 48).

첫째는 연중 가동 문제로서 노지감귤 생산시기에만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가공용 감귤 구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농가소득과 연계되어, 비상품 유통 차단에 도움 된다는 의견과 고품질 생산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제품에 대한 문제로서 다양한 제품 개발이 부족하며, 1차 가공에서 탈피하여 2차, 3차 가공제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표 48 > 감귤복합가공공장 운영에 대한 의견

구분	감귤복합가공공장에 대한 문제점
연중가동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지감귤 생산시기에만 가공공장이 가동 운영되고 있음</li> <li>· 가공공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중 가동체제 구축이 필요</li> <li>· 노지감귤 뿐만 아니라 하우스감귤, 한라봉 등 만감류에 대한 가공시스템 시설 필요</li> <li>· 감귤이외 타농산물 가공설비도 시설하여 가공되어야 함</li> </ul>
가격현실화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이 현실화되면 비상품 감귤 시장 출하 등 음성적 유통차단으로 시장출하 가뭄 품질고급화 도모</li> <li>· 가공용 감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이 될 경우 적과 등 적정생산 및 고품질 생산 저해 우려</li> <li>· 가공용 감귤 가격현실화로 감귤농가 소득향상 필요</li> <li>· 가공감귤 수매단가 상승에 따른 가공제품의 경쟁력 고려 필요</li> </ul>
제품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농축액 등 주로 1차 가공제품 생산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2차, 3차 가공제품 생산 등 가공제품 다양화 부족</li> <li>· 농축액 착즙시 감귤생산 지역별로 구분 착즙으로 품질차별화 유도</li> <li>· 비상품이라는 용어 사용 자제로 가공제품의 품질고급 이미지 강화</li> <li>· 한-미 FTA 등 농축액 관세철폐에 따른 제주산 농축액 생산단가 절감 및 제품 개발 등 새로운 활용방안 마련</li> <li>· 농축액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 덜익은 감귤 등 저급품은 수매거부 등 제품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li> <li>· 감귤농축액과 감귤분말 등을 2차 가공품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축액 해외수출 확대 필요</li> </ul>

**사. FTA 대응 감귤산업 종합대책**

FTA 대응 감귤산업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표 49).

첫째는 감귤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사업비 문제로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실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로서 감귤생산에 초점을 둔 대책, 농업인 의식개혁 대책 필요, 실질적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부족, 해외 마케팅 방안 필요, 공격적 감귤산업 육성책 미비, 하우스 재배면적 확대 초래, 대형 농업인에 대한 지원확대로 부익부, 빈익빈 확대 등에 대한 문제이다.

< 표 49 > FTA 대응 감귤산업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구 분	FTA 대응 감귤산업 종합대책에 대한 문제점
사업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비 확보대책이 없음</li> <li>· 한-EU FTA 대응에 10년간 2조 5,590억원 투자할 계획인데 재원마련 가능 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투자액) 확보가 어려울 것임</li> <li>- 사업비가 확보되어도 실행 주체인 농업인 의식이 선행되어야 함</li> </ul> </li> <li>· 기반사업 투자보다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직불제 등 투자계획 부족</li> </ul>
현실적 내용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산업종합대책이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을 보완 정리한 사항도 포함 되어있으며, 농가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 부족함</li> <li>· 수시로 변화하는 농업환경 등 FTA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생산,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가 필요</li> <li>· 수출확대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방안 필요</li> <li>· 4년 전에 작성된 계획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농가 의식개혁을 위한 대책도 필요</li> <li>·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공격적 감귤산업 육성책 미비함</li> <li>· 소규모 농가지원 대책 및 친환경 재배농가 지원대책 필요</li> <li>· 하우스 등 시설재배면적을 4천ha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우스 시설재배면적은 너무 많이 확대되고 있음</li> <li>· 하우스 지원을 보면 지원 받았던 사람이 계속 지원받고 있어 농가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농업에도 나타나고 있음(대규모 농업인은 하우스 시설을 계속 지원받아 하우스 면적이 확대)</li> <li>· 향후 한중일 FTA, 한-중, 한-일 FTA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이 필요함</li> <li>· 선과장 대형화만 추구하는데 소규모 선과장에 대한 육성방안도 필요</li> </ul>

**아. 농업인이 고품질 감귤 적정생산 시책 불참 이유**

농업인들이 고품질 감귤 적정생산 시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요약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표 50).

가장 큰 문제는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로서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고품질 감귤적 적정생산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소득감소 우려, 참여하면 손해라는 의식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둘째는 농업인 스스로 내가 최고라는 잠재적 의식에 기인한 행정 불신으로 변화하려 하지 않는 관행농업과 인센티브 부재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책에 참여할 경우의 성공사례 발굴과 농업인 의식교육,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표 50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책 불참 이유

구 분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책 불참 이유
무임승차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농가에서 다른 농가의 실천여부에 대하여 눈치를 보면서 안정생산 시책참여를 결정</li> <li>· 소규모 감귤원 경영 농가인 경우 안정생산 참여시 생산량이 감소하여 조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li> <li>· 안정생산 시책은 대농위주로 실천해야 된다는 의식으로 다른 농가가 1/2 간벌 등 안정생산 실천해주기를 바람</li> <li>· 안정생산 시책에 참여치 않아도 감귤생산 및 판매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농가 이기주의와 좋은 가격 기대심리 팽배</li> <li>· 안정생산 시책에 참여하는 농가만 손해라는 행정불신 및, 관행적인 무임승차 의식</li> <li>· 고품질이 아니어도 판매에 어려움이 없다는 생산자 위주의 사고</li> <li>· 고령의 농민들은 새로운 방법에 대한 부담</li> <li>· 포전(밭떼기) 거래로 인한 안전생산 무관심</li> <li>·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식</li> <li>· FTA 피해 가능성에 대한 무관심 및 참여하면 자기만 손해 본다는 의식</li> </ul>
행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자 선정 등 인센티브 점수 확보를 위해 참여</li> <li>·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고품질 생산을 위한 비용부담</li> <li>·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 이외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없음</li> <li>· 고품질 감귤 생산 실천이 어려워 포기 농가 속출</li> <li>· 고품질 기술, 자본, 인력 부족 및 행정 중심 정책에 대한 반발</li> </ul>

#### 4) 시장원리에 따른 감귤산업 육성방안

시장원리에 따른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를 5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으로 환산한 5점 평균값으로 <표 51>과 같이 분석하였다. 시장원리에 맞는 감귤산업 육성방안은 감귤생산량을 농림수산식품부(농안법) 또는 제주도로 조사를 일원화하는 방안, 품질검사 및 출하조절은 생산자 단체, 유통인 단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정부조성 자조금 이외에 제주도 자체 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방안, 감귤분야 지원사업 지역 단위별 균등 지원을 성과중심 차등 지원(APC 중심)하는 방안, 영세감귤농가 소득안정 제도 마련(가격 하락시 차액 보전 등), 작목반 등 감귤생산·유통조직 APC중심 재편, 감귤육종 및 농가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강화방안, 수출창구 단일화 및 수출 자조금 조성방안, 감귤 출하량 목표제 실시, 산지유통시설 개혁 및 가공산업의 육성방안, 브랜드 강화 등 산지유통시스템 조직 계열화 및 공동마케팅 추진, 감귤

산업 주체별 역할 분담, 해외바이어 제주현지 감귤유통시설 투자 및 도외·해외에 대형물류창고 시설 등 총 13개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브랜드 강화 등 산지유통시스템 조직 계열화 및 공동마케팅 추진 방안이 4.56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감귤육종 및 농가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강화방안 4.38점, 작목반 등 감귤생산·유통조직 APC중심 재편 4.32점, 수출창구 단일화 및 수출 자조금 조성방안 4.30점, 감귤분야 지원사업 지역 단위별 평가 및 성과중심의 지원(APC 중심) 확대하는 방안은 4.20점, 산지유통시설 개혁 및 가공산업의 육성방안 4.04점, 품질검사 및 출하조절은 생산자 단체, 유통인 단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4.00점, 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분담, 해외바이어 제주현지 감귤유통시설 투자 및 도외·해외에 대형물류창고 시설 마련 방안 3.74점, 정부조성 자조금 이외에 제주도 자체의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3.46점, 영세감귤농가 소득안정 제도마련(가격 하락시 차액 보전 등) 3.42점, 감귤 출하량 목표제 실시 3.40점, 감귤생산량을 농림수산식품부(농안법) 또는 제주도로 조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3.28점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방안에 대해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문가들을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안별로 보면, 감귤생산량을 농림수산식품부(농안법), 또는 제주도로 조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계와 농업인이 각각 3.5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고, 공무원과 언론도 각각 3.4점으로 나타났으나, 생산자 단체는 2.6점으로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품질검사 및 출하조절은 생산자 단체, 유통인 단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4.5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학계와 언론이 각각 4.4점, 농민은 4.0점으로 높은 필요성을 보였으나, 생산자 단체는 2.9점으로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정부조성 자조금 이외에 제주도 자체의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민이 4.0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3.8점, 언론 3.4점, 학계 3.3점으로 나타났으나, 생산자 단체는 2.8점으로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감귤분야 지원사업 지역 단위별 평가 및 성과중심의 지원 확대하는 방안에 대

해서는 공무원이 4.5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농업인 4.4점, 언론 4.3점, 학계 4.1점, 생산자 단체 3.7점 순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영세감귤농가 소득안정 제도마련(가격 하락시 차액 보전 등)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3.7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공무원 3.6점, 학계와 생산자 단체가 각각 3.3점, 언론 3.2점 순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작목반 등 감귤생산·유통조직 APC중심 재편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4.7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언론 4.4점, 학계와 생산자 단체가 각각 4.2점, 농업인 4.1점 순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감귤육종 및 농가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학계가 4.7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언론과 공무원이 각각 4.4점,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이 각각 4.2점 순으로 나타나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수출창구 단일화 및 수출 자조금 조성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4.8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언론과 생산자 단체가 각각 4.3점, 농업인 4.2점, 학계 3.9점 순으로 나타나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감귤 출하량 목표제 실시에 대해서는 학계가 4.0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3.8점, 생산자 단체 3.5점 순으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농업인은 2.9점, 언론은 2.8점으로 불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산지유통시설 개혁 및 가공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학계는 4.4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언론 4.3점, 공무원 4.1점, 생산자 단체 3.8점, 농업인 3.6점 순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강화 등 산지유통시스템 조직 계열화 및 공동마케팅 추진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4.8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학계와 공무원이 각각 4.6점, 언론과 생산자 단체 각각 4.4점으로 나타나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4.5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농업인 4.3점, 언론 4.2점, 학계와 생산자 단체는 각각 4.0점으로 나타나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바이어 제주현지 감귤유통시설 투자 및 도외·해외에 대형물류창고 시설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생산자 단체가 4.0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보였으며, 다

음으로 공무원과 농업인이 각각 3.9점, 언론 3.5점, 학계 3.4점 순으로 나타나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 표 51 > 시장원리에 맞는 감귤산업 육성방안 필요성

(5점 만점)

항 목	학 계	언 론	생산자	공무원	농업인	전 체
1. 감귤생산량 조사 농식품부 (농안법) 또는 제주도로 일원화	3.5	3.4	2.6	3.4	3.5	3.28
2. 품질검사 및 출하조절은 생산자 단체, 유통인 단체 중심으로 전환	4.4	4.4	2.9	4.5	4.0	4.00
3. 정부조성 자조금 이외에 제주도 자체의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	3.3	3.4	2.8	3.8	4.0	3.46
4. 감귤분야 지원사업 지역 단위별 평가 및 성과중심의 지원(APC 중심지원) 확대	4.1	4.3	3.7	4.5	4.4	4.20
5. 영세감귤농가 소득안정 제도마련(가격하락시 차액 보전 등)	3.3	3.2	3.3	3.6	3.7	3.42
6. 작목반 등 감귤생산·유통 조직 APC중심 재편	4.2	4.4	4.2	4.7	4.1	4.32
7. 감귤육종 및 농가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강화	4.7	4.4	4.2	4.4	4.2	4.38
8. 수출창구 단일화 및 수출 자조금 조성	3.9	4.3	4.3	4.8	4.2	4.30
9. 감귤 출하량 목표제 실시	4.0	2.8	3.5	3.8	2.9	3.40
10. 산지유통시설 개혁 및 가공 산업의 육성	4.4	4.3	3.8	4.1	3.6	4.04
11. 브랜드 강화 등 산지유통 시스템 조직 계열화 및 공동 마케팅 추진	4.6	4.4	4.4	4.6	4.8	4.56
12. 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분담	4.0	4.2	4.0	4.5	4.3	4.20
13. 해외바이어 제주현지 감귤 유통시설 투자 및 도외·해외 대형물류창고 시설	3.4	3.5	4.0	3.9	3.9	3.74

따라서 감귤생산량 조사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제주도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품질검사 및 출하조절을 생산자 단체와 유통인 단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정부조성 자조금 외에 제주도 자체의 자조금 조성 운영 방안에 대해서만 생산자

단체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 나머지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 집단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13개 방안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로 질문한 결과, <표 52>와 같이 1순위는 작목반 등 감귤생산·유통조직의 APC 중심으로 개편이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감귤육종 및 농가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강화(18.0%)와 브랜드 강화 등 산지유통시스템 조직 계열화 및 공동마케팅 추진(18.0%)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 대해서는 브랜드 강화 등 산지유통시스템 조직 계열화 및 공동마케팅 추진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감귤분야 지원사업 지역 단위 별 평가 및 성과중심으로의 지원(18.0%)과 작목반 등 감귤생산·유통조직 APC중심 재편(18.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순위에 대해서는 감귤육종 및 농가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강화가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지유통시설 개혁 및 가공산업의 육성(14.0%)과 브랜드 강화 등 산지유통시스템 조직 계열화 및 공동마케팅 추진(14.0%)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모두 종합한 복수응답 결과는 브랜드 강화 등 산지유통시스템 조직 계열화 및 공동마케팅 추진이 56.0%로 가장 응답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작목반 등 감귤생산·유통조직 APC중심 재편이 46.0%, 감귤육종 및 농가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강화방안 42.0%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브랜드 강화 등 산지유통시스템 조직 계열화 및 공동마케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작목반 등 감귤생산·유통조직 APC중심 재편과 감귤육종 및 농가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감귤산업은 제주에서 지역농업의 영역을 넘어서 6차 산업으로 발전하였고, 농가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데 대하여 이견(異見)이 없을 것이다. 즉 감귤산업의 영역은 고품질 감귤의 생산·유통을 통한 단순한 농가의 소득창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감귤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발전시켜 환경보전, 일자리 창출, 가공산업의 육성, 선진화된 농산물 물류시스템의 구축, 관광산업 육성 등 제주전통 문화의 보전과 창달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역경제 안정에 중추적인 기여를 하는데 그

목표와 방향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표 52 > 시장원리에 맞는 감귤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우선순위

(단위 : %)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1. 감귤생산량 조사 농림수산물부(농안법) 또는 제주도로 일원화	2.0	0.0	0.0	2.0
2. 품질검사 및 출하조절은 생산자 단체, 유통인 단체 중심으로 전환	12.0	4.0	12.0	28.0
3. 정부조성 자조금 이외에 제주도 자체의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	0.0	2.0	2.0	4.0
4. 감귤분야 지원사업 지역 단위별 평가 및 성과중심으로의 지원(APC 중심지원)	2.0	18.0	8.0	28.0
5. 영세감귤농가 소득안정 제도마련(가격 하락시 차액 보전 등)	4.0	2.0	8.0	14.0
6. 작목반 등 감귤생산·유통조직 APC중심 재편	22.0	18.0	6.0	46.0
7. 감귤육종 및 농가의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 강화	18.0	6.0	18.0	42.0
8. 수출창구 단일화 및 수출 자조금 조성	4.0	8.0	4.0	16.0
9. 감귤 출하량 목표제 실시	0.0	2.0	6.0	8.0
10. 산지유통시설 개혁 및 가공산업의 육성	10.0	6.0	14.0	30.0
11. 브랜드 강화 등 산지유통시스템 조직 계열화 및 공동마케팅 추진	18.0	24.0	14.0	56.0
12. 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분담	8.0	10.0	2.0	20.0
13. 해외바이어 제주현지 감귤유통시설 투자 및 도외·해외에 대형물류창고 시설	0.0	0.0	6.0	6.0
계	100.0	100.0	100.0	300.0

그러나 감귤농업인을 비롯한 감귤산업 종사자 구성원이 다양하고 제주인의 감귤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은 만큼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의 정책추진이 요구되는 것이다.



## 5. 제주지역 농업과 농정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제주지역의 농업은 1960년대 식량작물과 특용작물, 1970년대 감귤산업, 1980년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작물, 1990년대 시설감귤·화훼·채소류 등 시설농업, 2000년대는 한라봉·천혜향 등 틈새·특화농업 등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전환되어왔는데, 향후 제주지역농업과 농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트렌드 욕구에 맞는 건강·웰빙 등 기능성과 감성농업과 이를 육성할 수 있는 농정방향이 요구되는 것이다.

### 1) 제주농업의 관행적 전통적 고정관념의 획기적 개혁

제주인은 지역농업과 농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과 믿음은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과 환경적 조건 등 그동안 제주인이 외세와 또는 외국문화에 동화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굳건히 살아온 역사성과도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주인의 긍정적인 의식으로는 첫째로 독립심과 개인주의, 두 번째 협동심과 공동체적 연대의식, 세 번째 즈냥정신, 네 번째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미래지향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 의식으로는 이기주의, 지연·학연의 연고주의, 폐쇄 또는 배타주의 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제주대동아시아연구소, 1996).

이러한 제주인의 의식은 제주농업과 농정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생산된 농산물은 어떤 경우라도 전량 유통되거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자기의사 결정에 따른 영농 등 부정적 요소로도 일부 작용할 수도 있는데 제주농업과 농정의 발전을 위해 전통적 고정관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 가. 관용과 타협을 통한 협동하는 새로운 사고

농가 대부분은 오랜 영농경험으로 농업과 농정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감귤분야 농업인은 내가 최고라는 자기 우월의식과 자신감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의 의식은 농업에 대한 애착 등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새로운 변화된 농업정책 시행을 위하여 농가동참을 유발하는데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용과 타협을 통한 협동하는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나.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농업구조의 체질개선

농업발전을 위해 아무런 노력이 없다면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될수록 농가와 제주농업 그리고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농업은 국제경쟁력이 없으므로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반드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김, 2005).

그러나 이제 시장개방 확대의 흐름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서 우리가 이익이 되는 전략적인 농산물 개방조치를 통하여 제주농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농업인 스스로가 농업구조 체질개선에 주체가 될 때 제주농업을 강하게 할 수 있다.

#### 다.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제주의 미래 희망산업

농업의 특성상 농작물을 생산·수확·유통 등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농업은 관광,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하여 자본회전과 성장속도가 느리며, 농업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도 상대적으로 낮다.

즉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으나 산업간 소득차가 커지면서 상대적 빈곤 속에서 농업은 영위되고 있어 사양산업으로 인식하기 쉽다.

직업으로서의 농업은 정년이 없고 조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없다. 또한 농업에 생명과학 기술의 접목이 가능해졌고, 농업인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경영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이 많아지고 있다.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산업이다.

#### 라. 시장개방은 세계시장을 개척으로 경제영토를 확장 할 수 있는 기회

WTO/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제주농업의 피해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방수위 만큼 상대국의 시장도 함께 열리는 것이다.

오렌지 등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것을 제주감귤과 농업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하여 배척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잘못된 사고일

것이다. 시장개방으로 감귤을 비롯한 제주농업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기 보다는 넓은 세계시장을 어떻게 개척하여 소비자를 확보할 것인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품목을 내수만 하던지 또는 수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수와 수출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

외국 농산물의 수입은 사료곡물이나 열대과일처럼 구조적 환경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 있을 수 있고, 쌀과 같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품목, 육류 등과 같이 가격경쟁에서 밀려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수입과 수출구조 체계를 제주의 청정성, 따뜻한 기후 등 장점을 살려 내수와 수출을 조화롭게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국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수출 유통시스템 확충, 검역체계 구축, 국가별·품목별 수출전담 작목반 육성과 수출전용 부두 건설 등 물류시스템 개선도 필요한 사항이다.

#### 마. 감귤은 제주의 경제작물

감귤문제에 대하여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접근하여 해결하여왔기 때문에 농업인은 행정에 의존적 사고를 갖게 되었고, 농업인 스스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여 왔다는 것이 감귤산업 종사자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감귤가격 폭락이 순수한 경제영역을 넘어서 지역전체가 먹고사는 생존과 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정치적인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나,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적 논리 접근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감귤에 대한 행정의 지나친 관심 등 정치화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제주감귤이 경제작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농업인, 유통인 등이 주체가 되어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고 제주의 경제작물로 육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2) 제주농업·농촌개혁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세계의 농산물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 지 오래다. 따라서 제주농업의 내적·외적환경을 경쟁중심으로 변화되도록 농업정책의 방향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정책은 행정(도, 행정시, 농업기술원 등) 중심형으로 행정은 독자

적 의사결정과 농업 전 분야에 포괄적 개입을 하고 있으며, 획일적으로 유형적 지원을 중시하고 있어 제주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제주농업정책의 변화의 방향으로는 첫째 농업의 주체는 농업인 등 생산자단체에서 자주적인 의사와 창의성에 의해 주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행정의 개입범위가 지금처럼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업의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 없다.

농업주체별 각자의 역할에 따라 행정은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손을 떼고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선택적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 농업인은 개별적 능력에 많은 차이가 난다. 모든 농업인을 동질적으로 보고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형태, 경지규모, 연령 등 개인별 영농에 따른 경영능력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농업정책 결정을 행정 독주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수평적 역할 분담을 통한 의사결정으로 농업인의 참여도와 수혜의 폭이 넓도록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지금까지 지원시책이 물질적인 투자 위주의 유형적 형태에서 제도개혁, 지원방식 개선 등 무형적 부분을 중시함으로써 지원 등 실질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 3) 통일을 대비한 농업육성

제주와 북한의 농산물을 통한 협력관계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난 1999년 1월 20일 1998년산 감귤 100M/T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에 조건 없이 보내면서 시작되어 1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2010년 천안함 사건과 2011년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중단되었다.

남북관계는 정부의 대북 방침에 따라 고려될 수밖에 없는 분야로서 남북이 상호주의 원칙을 기조로 추진해야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상호 호혜성이 무시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 지원 또는 지원요구는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국민이나 도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또한 어렵게 된다.

북한의 농가인구는 전체인구 2,405만명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식량사정은 잦은 자연재해의 발생,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취약, 비료·농약·종자·농기계·에너지 등 농자재 부족, 집단농장 체제로 생산의욕 저조로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김, 2005; 최 등, 2011).

제주와 북한과의 농업교류도 우리의 요구만으로 성사될 수 없는 사항으로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으나, 제주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소비시장 확대 등 경제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향후 북한이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을 요구할 때 제주는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계절별로 필요한 감귤, 월동채소, 농산물 가공제품 등 농산물이 북한의 수요를 충족하는 생산기지로서의 역할과 북한을 우리의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북한과 농산물 교역 등 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교역기구 설치 및 운영 등 미래의 통일시대에 제주농업의 역할 준비가 필요하다.

#### 4) 적정생산 및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관측제도 도입

2000년대 들어 농산물 소득증가에 편승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투기성 농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감귤원 폐원지에 일반작물 재배는 농산물의 과잉생산 요인으로 작용하여 산지폐기 등 유통처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과잉생산 구조를 갖고 있는 월동채소류 등 농작물에 대하여 육지부와 출하시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수확시기 조절 등 제주 발농업의 “작부체계 개선”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품목별 조합인 생산자단체에서 재배농가에 강제력을 일부 발동하는 “휴경공유제”를 도입하여 윤작체계 확립이 요구 된다.

또한 감귤인 경우 연간 3차례에 생산예상량 관측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조절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그 외 농산물은 체계적인 관측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근, 무,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 감자 등 주요 작물에 대하여 파종기, 생육기, 수확기 등을 구분하여 생산량과 품질에 대한 “농산물 관측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단계에서 적정생산과 원활한 유통처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입이 필요하다.

#### 5)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농업 육성

농업의 문제에 대하여 모든 문제를 행정주도로 해결하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농업인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별, 지역별로 활용하지 않는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이용 농업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김, 2007).

이를 위하여 동일한 가치관을 갖는 집단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생활요구를 만족시키기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농업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 6) 제주농업, 파트너십에 의한 유기적 생산·유통체계 구현

농산물은 자연조건(토양, 기상, 일조 등), 재배방법, 품종 등에 의하여 품질이 결정 된다. 그리고 시장수요에 맞는 고품질 출하가 가격안정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꾸준한 연구와 이에 따른 실천이 필요하다. 행정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주농업과 농정이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농협·감협 등 생산자단체에서는 이를 실행하며, 농업인과 유통인은 자발적인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행정,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농업인, 유통인 등 농업분야 종사자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 7) 농업인구 증가 등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귀농정책 강화

최근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농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정주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변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직장생활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제 2의 여생을 즐기려는 귀농·귀촌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수요예측 등 효율적 귀농과 귀농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 8) 제주농업의 역사와 특성에 맞는 농업지역 브랜드 전략 추진

지역브랜드란 특정지역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이미지를 개발하여 상품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제주농업은 깨끗한 자연, 독특한 문화 등 차별화된 이미지는 또 하나의 자산이다. 이러한 유·무형적 가치를 제주농업의 발전을 위

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가 개발되어도 농업인과 농업발전에 실질적인 이윤이 없으면 안되는 것이다. 브랜드가 성공적인 제주농업의 발전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실질적인 주체가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지역농업의 주체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 9) 친환경 농업확대,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헬스 투어리즘 등 새로운 소득창출 방안 모색

제주지역의 환경을 최대로 이용한 친환경농업 확대로 농산물 차별화해나가고, 농업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달과 육성,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농업과 연계시키는 헬스투어리즘, 지역농업 브랜드 창조와 브랜드경영,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젊은 농업인 영농정착 방안 마련 및 전업농 육성, 영농경영의 규모화, 직불제도 확대, 작물간의 균형재배, 상업농업 의식 고취, 농산물 가공식품 산업 육성, 종자산업 기지화, 소비자의 트렌드 욕구에 맞는 건강·웰빙 등 기능성과 감성농업 육성 등 기존에 도출된 문제에 대한 착실한 실천과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제주농업의 경쟁력강화가 요구된다(제주도, 2003).

## IV. 결 론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 농가의 인적구성, 농업경영규모, 제주농업의 연대별 특성, 주요 농작물의 연도별 재배면적·생산량·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조사·분석하여 농작물의 재배변천 현상을 진단하였다.

또한 WTO/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주농업과 농정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03부의 유효표본을 확보, 분석하여 농업인의 의식과 제주농업과 농정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다.

농업인 설문조사로 도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를 위하여 농업전문가(연구·학계, 행정, 생산자단체, 언론사, 농업인 대표 등 50명)의 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고찰(考察)하였다. 제주지역 농작물의 현상 진단을 통한 재배전망과 농업인의 설문조사 및 농업전문가 의견조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제주도 주요 농작물의 재배 변천 현상

미곡류 중 논벼(水稻)는 재배조건이 불리하여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밭벼(陸稻)는 농지의 윤작체계와 쌀 자급자족을 위해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맥류(쌀보리, 맥주맥)와 잡곡류 중 조, 수수, 서류인 고구마, 유지작물인 참깨, 유채 등은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잡곡류 중 메밀, 옥수수, 두류의 콩, 팥, 녹두 등은 웰빙 등 건강식단 요구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거나 현상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농산물 제 2의 소득 작물인 감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일정면적 재배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채소류는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밭작물 재배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귤 재배면적은 현재 보다 다소 감소가 전망되나, 소비자의 고품질 요구로 시설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감귤 위주의 소득체계 개선을 위해 키위 등 기존의 과종과 용과, 아메모아, 망고 등 열대과일 재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제주농업과 농정의 발전방향 고찰(考察) 및 제언

농업인은 제주농업이 FTA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보다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정시책 참여는 인센티브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고, 제주농업이 네덜란드와 같이 선진화 가능성에 대하여는 긍정적이며, 감귤은 제주농정이 가장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작목이고, 최근 추진한 농정시책 중 감귤원 간벌 등 고품질감귤 적정생산이 가장 효과적인 시책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전문가는 제주농업정책 추진에 대하여는 중간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로 제주농업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준비 등 대응책이 요구된다.

제주농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구노력과 물류시스템 개선 등 농산물 유통분야에 최우선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정부, 지방정부가 수립한 농업정책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확실한 실행 주체가 되어 자주적 의사와 창의성에 의거 지역농업 육성이 필요하다.

감귤가격이 좋은 이유에 대하여는 농업인과 전문가 집단간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커 상호간의 이해를 통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과 UPOV 대응 육종분야 강화, 산지 유통조직의 혁신 및 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확대 그리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제주지역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해 ①관용과 타협을 통한 협동하는 새로운 영농사고 ②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 ③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제주의 미래 희망산업으로 인식 ④시장개방은 세계시장 개척 경쟁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등 전향적 사고로 관행적 전통적 고정관념의 영농의식의 획기적 개혁과 ①행정은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손을 떼고 시장기능 원활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선택적 개입 ②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획일적 기준적용이 아니라 영농형태, 경영규모, 연령별 등

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 ③농업정책 결정을 행정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참여하는 수평적 역할 분담을 통한 의사 결정 ④물질적 투자 위주에서 제도개혁, 지원방식 개선 등 무형적 부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지원 등 제주농업·농촌개혁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이 요구되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시장 개척을 위한 준비와 월동채소류 등 농산물의 적정생산 및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관측제도 도입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차별화, 제주농업, 파트너십에 의한 유기적 생산·유통체계 구현, 농업 인구 증가 등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귀농정책 강화, 소비자의 트렌드 욕구에 맞는 건강·웰빙 등 기능성과 감성농업 육성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를 농업에 도입 지역농업 육성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헬스투어리즘 등 새로운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경선. 2004. 지역·해외농업의 발전정책. 제주대학교 출판부. pp.76~79.
- 김기수. 2011. 지역브랜드 전략. (사)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부설 향부속. pp.33~40.
- 김영욱. 2005. 농업의 미래 한국의 선택. 교우사. pp.62~66.
- 김재수. 2005. 미국농업 정책과 한국농업의 미래. 벽산출판사. pp.58~65.
- 농림수산물식품부. 2009.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 농림수산물식품부. pp.46~51.
-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주요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 농수산물 유통공사. pp.679~685.
- 제주농협지역본부, (사)제주감귤연합회 2010. 감귤유통처리 실태분석. 제주농협 지역본부, (사)제주감귤연합회. pp.55~56.
- 제주대동아시아연구소. 1996. 제주인의 정신과 제주정신 정립(긍정적인 의식과 부정적 의식). 한국방송공사 제주방송총국. pp.110~112.
- 제주대학교. 2007.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감귤산업의 영향분석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제주감귤클러스터혁신위원회. pp.391~392.
- 제주대학교. 2008. 감귤산업발전사. 제주감귤클러스터혁신위원회. pp.106~114.
- 제주대학교. 2010.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종합평가 보고서. (사)제주감귤연합회. pp.44~245.
- 제주특별자치도. 1957~2010. 통계연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1993. 제주도지 2권. 제주특별자치도. pp.631~639.
- 제주특별자치도. 2003. 제주생물산업기술발전 10년 계획(제2권). 제주도. pp.85~132.
- 제주특별자치도. 2004.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 조례 해설집. 제주특별자치도. pp.14~20.
- 제주특별자치도. 2006. 제주도지(4권). 제주특별자치도. pp.125~212.

-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감귤 HIGH-UP을 위한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과 ACTION PLAN. 제주특별자치도. pp.8~10.
- 제주특별자치도. 2009. 한·미, 한·EU 등 FTA 대응전략. 제주특별자치도. pp.30~38.
- 제주특별자치도. 2011a. 2009~2010 도정 백서. 제주특별자치도. pp.40~47.
- 제주특별자치도. 2011b. 주요농축산현황. 제주특별자치도. pp.9~32.
- 제주특별자치도. 2011c.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진흥 전략. 제주특별자치도. pp.5~6.
- 제주특별자치도. 2011d. 한·중·일 FTA 추진동향. 제주특별자치도. pp.6~9.
- 제주특별자치도. 2011e. 환경백서. 유한출판기획. pp.59~6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11. 발작물 정책 이대로 좋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도개선 연구회. pp.14~15.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0. 제주토양원색도감. 일신옵셋. pp.11~157.
- 최근진. 2011.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에 따른 권리실시. 국립종자원. pp.3~20.
- 최춘흠, 서명구, 박갑수, 김중호, 이세진. 2011. 남북관계지식. 통일부. pp.20~2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주대학교. 2004. 감귤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시장조사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pp.100~10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감귤산업 대응방안 연구. (사)제주감귤연합회. pp.66~72.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http://news.nate.com> (종자전쟁시대)
- <http://blog.chosun.com> (종자전쟁)
- <http://blog.naver.com> (커뮤니티비지니스로 지역을 살리자)
- <http://cafe.naver.com>(커뮤니티비지니스의 정의)
- <http://cafe.naver.com> (커뮤니티비지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 부 록

### 농업인 농정시책 참여정도 등 제주농업발전을 위한 설문조사표

#### □ 설문조사 개요

◆ 농업인의 농정시책 참여정도, 농정 만족도 등 제주농업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키 위해 설문조사

- 조사기간 : 2011. 8 ~ 9월
- 조사대상 : 제주도내 거주 농업인(103명)
- 조사방법 : 설문지에 의한 면담방식
- 대상선정 : 도내 거주 농업인 임의선정 농가방문
- 설문내용 : 농업인 농정참여 정도 등 제주농업발전을 위한 내용

#### □ 설문 조사 내용

- 본 설문은 제주농업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농업인에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입니다.
- 바쁘시겠지만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보내주신 의견 및 개인정보는 조사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 )안에 기입하거나 해당되는 번호에 ○ 또는 √ 표하여 주십시오.

1. 선생님의 연령은 ?

(가) 30대 (나) 40대 (다) 50대 (라) 60대이상

2. 선생님의 성별은 ? (가) 남 (나) 여

3. 선생님의 거주하는 지역은(읍면, 동에 ○표) ?

(가) 제주시(읍면, 동) (나) 서귀포시(읍면, 동)

4. 선생님의 어떤 농사를 경작 하십니까 ?

(가) 밭작물 (나) 과수 (다) 밭작물+과수 (라) 기타(화훼, 축산 등)

5. 제주농업의 향후 전망(비전)은 어떻게 봅니까 ?

(가) 전망이 매우 밝다 (나) 그저 그렇다  
(다) 전망을 기대하기 어렵다 (라) 비관적이다

6.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 투자우선 순위는 《1에서 4까지 ( )에 기재》 ?

(가) 생산분야 ( ) (나) 유통분야 ( ) (다) 가공분야 ( ) (라) 홍보 마케팅 분야( )

7. 제주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를 선택하면 ?

(가) 시장변화 대응부족 (나) 정책의 정체(변화가 없음)  
(다) 젊은 영농인력 부족 (라) 열악한 자연환경

8. 제주농정에 대한 만족도는 ?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그저 그렇다 (라) 불만족

9. 농업관련 공무원들의 근무 열성도는 ?

(가) 매우 열심히 근무 (나) 보통이다  
(다) 그저 그렇다 (라) 근무 열기가 부족하다

10. 농업정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최우선 분야(작목)는 ?

(가) 감귤 (나) 화훼 (다) 채소류 (라) 일반작물

11. 제주농정이 시장개방 확대 등에 대응능력은 ?

(가) 매우 빠르게 대응 (나) 보통이다 (다) 대응이 미흡하다 (라) 전혀 대응치 못한다

12. 제주농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

(가) 감귤정책( ) (나) 화훼류 정책( )  
(다) 채소류 정책( ) (라) 일반작물 정책( )

13. 최근 제주농정에서 가장 잘된 시책순위 《1에서 4까지 ( )에 기재》 ?

- (가) 양배추 매취사업 ( ) (나) 감귤원 1/2간벌, 휴식년제( )  
(다) 밭농업 직불제( ) (라) 봄배추 산지폐기( )

14. 자기 역할을 가장 잘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

- (가) 도(농업부서) (나) 행정시(농업부서)  
(다) 농업기술원 (라) 농업기술센터  
(마) 농·감협 (바) 농업인단체

15. 자기 역할을 가장 잘못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

- (가) 도(농업부서) (나) 행정시(농업부서)  
(다) 농업기술원 (라) 농업기술센터  
(마) 농·감협 (바) 농업인단체

16. 제주농업도 네덜란드, 일본 등과 같이 선진 농업국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

- (가) 반드시 된다 (나) 노력하면 될 수 있다  
(다) 도민 성격상 어렵다 (라) 불가능 하다

17. 현재 농업인의 농정시책 참여 의식 형태는 ?

- (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  
(나) 눈치껏 마지못해 참여한다  
(다) 말만 앞세우고 참여는 남이 하는 것이다  
(라) 지원사업 등 목적이 있을 때 만 참여한다

본 설문은 제주농업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에 사용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지감귤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설문조사표

### □ 설문조사 개요

◆ '09년도에 추진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책에 대한 도민 의식을 조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점은 앞으로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0. 4. 1 ~ 4. 20(20일간)
- 조사대상 : 감귤 독농가 등
- 조사인원 : 97명
- 조사방법 : 설문지에 의한 면담방식

### □ 설문 조사 내용

- '09년산 감귤은 해거리 현상에 의한 최대 풍작이 예상됨에 따라 과잉생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시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한 결과 134천톤을 감산하여 안정생산과 가격안정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시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감귤재배 농업인은 물론 많은 사회단체, 농업인단체, 군인, 경찰, 각 기관단체와 어린학생에 이르기까지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한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 설문은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시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조사내용은 조사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래 질문은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시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감귤관련시책에 반영하여 나가기 위한 설문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 )안에 기입하거나 해당되는 번호에 ○ 또는 √ 표하여 주십시오.

□ 선생님의 영농 상황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의 연령은 ?

(가) 40세 이하 (나) 41-50세 (다) 51-60세 (라) 61세 이상

2. 선생님의 성별은 ? (가) 남 (나) 여

3. 선생님의 주소지는 ? (가) 제주도 (나) 서귀포시

4. 선생님의 노지감귤 영농 규모는 ?

(가) 1ha(3,000평)미만 (나) 1ha - 2ha(3,000~6,000평)

(다) 2ha - 3ha(6,000~9,000평) (라) 3ha(9,000평)이상

□ 선생님께서 감귤산업 관련 민원처리 시 느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 접수에서 처리 시까지 담당공무원은 친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매우 친절하였다. (나) 친절하긴 편이다. (다) 그저 그렇다

(라) 불친절하긴 편이다. (마) 매우 불친절하다.

2. 민원 접수에서 처리 시까지 담당공무원은 공정하게 민원처리하였습니까?

(가) 매우 공정하였다. (나) 공정한 편이다. (다) 그저 그렇다

(라) 불공정한 편이다. (마) 매우 불공정하다.

3. 민원 처리 시 담당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접대한 적이 있습니까?

(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였다. (나) 그렇지 않다. (다) 기타( )

□ '09년에 추진한 감귤원 1/2간벌사업, 감귤 안정생산 직불제, 감귤 열매숙기, 감귤원 폐원, 강 전정 등 감산시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09년산 감귤 감산시책에 참여 하였습니까 ?

(가) 참여 하였다.

(나) 참여하지 않았다.

1-2. 감귤 감산시책에 참여 하였다면 면적은 ?

- 간벌                      m<sup>2</sup>(              평),    - 직불제                      m<sup>2</sup>(              평),

- 열매숙기                      m<sup>2</sup>(              평),    - 기    타                      m<sup>2</sup>(              평)

1-3. 감산시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대규모 감귤원만 하고, 영세 감귤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나) 감산을 해도 유통처리에 크게 영향이 없다.

(다) 내가 실천을 해도 다른 농가가 실천을 안 할 것이다.

(라) 안정생산 보다는 기후 등 자연조건이 가격을 결정한다.

(마) 감산시책에 매년 참여했는데도 도움이 안 되었다.

(바) 기타 이유(    )

2. 지난해 감귤 감산시책 전체를 평가한다면 ?

(가) 아주 잘했다    (나) 잘한 편이다.    (다) 보통이다.

(라) 잘못된 편이다.    (마) 아주 잘못했다.

2-1. 감귤 감산시책이 좋았다면 어떤 사업을 가장 좋았는지 잘 한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세요?

(가) 감귤원 1/2간벌(      ).    (나) 감귤 안정생산 직불제(      ).

(다) 감귤 열매숙기(      ).    (라) 감귤원 폐원(      ).    (마) 전    정(      )

2-2. 감귤 감산시책이 잘못했다면, 어떤 사업을 가장 잘못했는지 잘 못한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주세요?

- (가) 감귤원 1/2간벌(     ).       (나) 감귤 안정생산 직불제(     ).  
 (다) 감귤 열매숙기(     ).   (라) 감귤원 폐원(     ) (마) 전 정(     )

3. 감귤 감산시책 중 안정생산 직불제에 대한 선생님 생각은?

- (가) 아주 잘했다.       (나) 잘한 편이다.       (다) 보통이다.  
 (라) 잘못된 편이다.   (마) 아주 잘못했다.

3-1. 감귤 안정생산 직불제에 참여하였다면 면적 비율은 ?

- (가) 노지감귤 재배면적 대비 30%이상  
 (나) 노지감귤 재배면적 대비 20% 이상 ~ 30% 미만  
 (다) 노지감귤 재배면적 대비 10% 이상 ~ 20% 미만  
 (라) 노지감귤 재배면적 대비 10% 미만  
 (마) 직불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4. '09년산 감귤 가격이 기대 이상 좋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

가장 큰 이유 순으로 순위를 (   )안에 숫자로 기재해주세요?

- (가) 감산시책 등으로 적정생산해서(     )  
 (나) 타이백시설 등 고품질감귤 생산시설을 해서(     )  
 (다) 유통조절명령제 등 유통단속을 잘해서(     )  
 (라) 기후 등 자연 조건이 좋아서(     )  
 (마) 감귤을 살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

5. 감귤 감산시책 중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순위를 (   )안에 숫자로 기재해주세요?

- (가) 감귤원 1/2간벌(     ),   (나) 감귤 안정생산 직불제(     )  
 (다) 감귤 열매숙기(     ),   (라) 감귤원 폐원(     )

앞으로 감귤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입니다.

○ 2011년산 노지감귤도 해거리 현상 등으로 대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산시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감귤 안정생산시책 추진은 어디서 주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행정      (나) 생산자단체(농·감협)      (다) 감귤재배 농업인

2. 감산시책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기재해 주세요?

(1순위) 시책명 :

(2순위) 시책명 :

(3순위) 시책명 :

끝으로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에 대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 행정의 역할 :

○ 연구지도기관의 역할 :

○ 생산자단체(농·감협)의 역할 :

○ 감귤재배 농업인의 역할 :

○ 농업인단체 회원의 역할 :

○ 소비자 단체의 역할 :

○ 기관단체, 군경, 학생, 도민의 역할 :

끝까지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내주신 의견 및 개인정보는 조사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주지역 농업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I. 제주의 농업에 대한 전망

1.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최근 미국과의 FTA체결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농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려울 것이다          ② 약간 어려울 것이다    ③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④ 앞으로 약간 좋아질 것이다   ⑤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2. 제주도정의 농업정책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② 대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③ 그럭저럭 대응하고 있다  
④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        ⑤ 잘 모르겠다

3. 앞으로 제주지역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가능성이 없다            ② 가능성이 없는 편이다   ③ 노력하기 달렸다  
④ 가능성이 있는 편이다        ⑤ 가능성이 매우 높다

3-1. 만약 제주지역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농산물,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이 있다면 어떤 작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4. 제주농업이 네덜란드나 일본과 같은 선진농업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가능성이 없다            ② 가능성이 없는 편이다   ③ 노력하기 달렸다  
④ 가능성이 있는 편이다        ⑤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제주농업 선진 농업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II. 제주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6. 현재 제주도의 농업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7. 제주도의 농업정책에 대해 위 6번 항목과 같이 평가하신 이유에 대해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8. 제주농업이 네덜란드나 일본과 같이 선진농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가장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도청
- ② 농업관련 단체
- ③ 농민 스스로
- ④ 기타( )

9. 현재 제주도의 농업정책은 농업인 중심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인 중심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대표적인 농업인 중심의 정책을 소개해주시고, 농업인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10. 현재 제주도의 농업정책 지원우선 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통분야
- ② 생산분야
- ③ 홍보분야
- ④ 가공분야
- ⑤ 인력양성 분야
- ⑥ 기타( )

11. 현재 제주도의 농업정책을 변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업정책의 주체를 도정에서 생산자단체로 변경하여 자주적이고 창의성있는 정책으로 유도해야 한다

- ② 제주도는 시장기능 등 생산과 유통의 원활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 모든 농업인을 동질적으로 보고 획일적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 ④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평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 ⑤ 지금까지의 지원시책이 물리적 투자 위주의 유형적 형태에서 제도개혁, 지원방식 개선 등 무형적 부분을 중시함으로써 행정지원이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12. 과잉생산구조를 갖고 있는 월동채소류 등과 같은 농작물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작부체계(Cropping System)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불필요하다    ④ 전혀 불필요하다    ⑤ 모르겠다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품목별 조합인 생산자 단체에서 재배농가에 강제력을 일부 발동하는 “휴경공유제”를 도입하여 윤작체계를 확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불필요하다    ④ 전혀 불필요하다    ⑤ 모르겠다

14. 감귤은 연간 3차례의 생산예상량 관측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조절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관측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불필요하다    ④ 전혀 불필요하다    ⑤ 모르겠다

15. 동일한 가치관을 갖는 집단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생활요구를 만족시키기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를 농업에 접목하여 지역별 새로운 형태의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불필요하다    ④ 전혀 불필요하다    ⑤ 모르겠다

16. 만약 제주의 농업지역에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를 도입하여 공동체 사업(마을회사)가 생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을 통해 수익사업을 실시한다면, 어떤 작물과 어떤 수익사업이 좋겠습니까?





21. 감귤유통명령제가 지금까지 6번 발효되었는데 그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22. 현재의 감귤유통명령제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 감귤원 폐원사업은 감귤 경쟁력 강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도움 ② 도움된 편 ③ 보통 ④ 도움안됨 ⑤ 오히려 역효과

24. 감귤원 폐원사업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5. 감귤원 간벌사업은 감귤 경쟁력 강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도움 ② 도움된 편 ③ 보통 ④ 도움안됨 ⑤ 오히려 역효과

26. 감귤원 간벌사업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7. 감귤 휴식년제 사업은 감귤 경쟁력 강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도움 ② 도움된 편 ③ 보통 ④ 도움안됨 ⑤ 오히려 역효과

28. 감귤 휴식년제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9. 감귤복합가공처리 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귤 경쟁력 강화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큰 도움    ② 도움된 편    ③ 보통    ④ 도움안됨    ⑤ 오히려 역효과

30. 감귤복합가공처리 공장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1. 2007년 5월에 수립된 FTA 대응 감귤산업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32. 감귤산업 종합대책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3. 제주의 감귤농업인들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책(감귤원 1/2간벌사업, 감귤 안정생산 직불제, 감귤 열매숙기, 감귤원 폐원 등)에 대한 참여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②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참여하고 있는 편이다  
④ 적극 참여하고 있다    ⑤ 모르겠다

34. 만약 감귤농업인들이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시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V. 시장원리에 맞는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37. 시장원리에 맞는 감귤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항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순위까지 적어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① 감귤생산량을 농림수산식품부(농안법) 조사로 일원화해야 한다
- ② 품질검사 및 출하조절은 생산자 단체, 유통인 단체 중심으로 전환
- ③ 정부조성 자조금 이외에 제주도 자체의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
- ④ 감귤분야 지원사업 지역 단위별 평가 및 성과중심으로의 지원(APC 중심지원)
- ⑤ 영세감귤농가 소득안정 제도마련(가격하락시 차액 보전 등)
- ⑥ 작목반 등 감귤생산·유통조직 APC중심 재편
- ⑦ 감귤육종 및 농가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강화
- ⑧ 수출창구 단일화 및 수출자조금 조성
- ⑨ 감귤 출하량 목표제 실시
- ⑩ 산지유통시설 개혁 및 가공산업의 육성
- ⑪ 브랜드 강화 등 산지유통시스템 조직 계열화 및 공동마케팅 추진
- ⑫ 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분담
- ⑬ 해외바이어 제주현지 감귤유통시설 투자 및 도외·해외에 대형물류창고 시설
- ⑭ 기타

38. 시장원리에 맞는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필요정도를 표시해주십시오.

육성 방안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필요 없음
1. 감귤생산량 조사 농식품부 (농안법) 또는 제주도로 일원화	①	②	③	④	⑤
2. 품질검사 및 출하조절은 생산자 단체, 유통인 단체 중심으로 전환	①	②	③	④	⑤
3. 정부조성 자조금 이외에 제주도 자체의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	①	②	③	④	⑤
4. 감귤분야 지원사업 지역 단위별 평가 및 성과중심의 지원(APC 중심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5. 영세감귤농가 소득안정 제도마련 (가격하락시 차액 보전 등)	①	②	③	④	⑤
6. 작목반 등 감귤생산·유통 조직 APC중심 재편	①	②	③	④	⑤
7. 감귤육종 및 농가의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강화	①	②	③	④	⑤
8. 수출창구 단일화 및 수출 자조금 조성	①	②	③	④	⑤
9. 감귤 출하량 목표제 실시	①	②	③	④	⑤
10. 산지유통시설 개혁 및 가공 산업의 육성	①	②	③	④	⑤
11. 브랜드 강화 등 산지유통 시스템 조직 계열화 및 공동 마케팅 추진	①	②	③	④	⑤
12. 감귤산업 주체별 역할 분담	①	②	③	④	⑤
13. 해외바이어 제주현지 감귤유통시설 투자 및 도외·해외 대형물류창고 시설	①	②	③	④	⑤

V. 일반적 사항

SQ1. 귀하의 소속은?

- ① 행정기관 ② 생산자 단체 ③ 연구 및 학계 ④ 언론기관 ⑤ 기타( )

SQ2. 농업관련 분야 경력은?

- ① 5년 미만 ② 6~10년 ③ 11~20년 ④ 21년 이상

많은 시간 할애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표 3 > 연도별 주요작물 10a당 수량

(단위 : kg)

연도	벼	밭벼	쌀보리	맥주맥	밀	조	메밀	피	수수	옥수수	콩	팥	녹두	고구마	감자	면화	유채	참깨	들깨	땅콩
'57	142	26	84	65	42	35	23	17	31	28	29	25	23	762	1,313	-	-	25	16	-
'58	189	70	75	74	39	68	38	17	41	52	53	42	44	718	890	18	-	35	17	-
'59	156	29	116	87	70	38	24	15	32	40	34	30	28	933	804	38	-	31	25	55
'60	152	56	110	87	57	62	27	15	35	45	40	30	28	1,024	791	8	-	20	21	41
'61	181	79	113	90	55	61	30	19	47	55	50	34	33	948	834	30	75	30	17	42
'62	228	81	139	222	144	63	30	16	-	37	40	38	24	1,193	917	35	107	51	29	-
'63	245	80	35	101	61	92	57	41	27	-	49	41	35	1,139	858	25	36	33	47	45
'64	206	43	93	108	111	93	49	33	42	41	40	38	33	1,437	943	29	77	46	52	-
'65	332	84	145	218	154	50	39	34	63	45	37	33	31	1,298	1,005	36	86	52	55	-
'66	213	72	157	150	87	64	33	26	43	48	42	32	27	1,596	1,298	40	94	52	82	47
'67	326	43	192	163	103	56	29	21	32	38	34	29	23	1,182	1,096	48	100	48	57	35
'68	232	85	205	192	158	94	37	26	43	30	59	40	40	569	294	80	121	53	60	38
'69	292	94	163	148	126	108	44	59	49	44	58	42	50	554	333	77	99	159	-	46
'70	214	67	189	189	109	81	21	50	35	-	42	32	35	540	362	74	93	29	37	71
'71	258	98	216	207	149	80	32	29	50	-	48	37	36	513	336	85	126	44	31	41
'72	330	131	121	136	71	110	40	30	43	67	60	46	40	640	302	86	109	39	53	36
'73	321	139	171	184	-	116	43	37	38	60	58	44	43	547	332	85	131	31	66	-
'74	344	98	219	137	-	122	43	42	32	50	92	57	38	625	318	87	134	41	53	-
'75	369	127	219	231	-	140	50	-	32	-	101	30	45	766	369	88	131	53	60	34
'76	379	70	249	255	-	155	49	-	32	-	101	69	45	739	355	85	135	53	58	41
'77	415	139	223	216	-	159	64	-	32	-	108	61	47	806	360	91	130	55	78	-
'78	393	81	258	243	-	162	58	-	32	56	108	60	46	803	260	90	118	45	66	42
'79	380	141	279	289	-	158	62	-	-	51	100	79	54	765	223	81	199	26	48	-
'80	320	125	259	262	-	151	57	-	120	60	94	52	42	667	321	77	192	20	23	-
'81	308	187	281	269	-	144	41	-	50	101	67	51	49	627	271	81	185	46	78	89
'82	344	154	254	272	-	163	64	-	102	65	138	96	65	619	327	109	181	49	59	115
'83	336	124	214	215	-	104	53	-	101	54	54	60	53	753	238	107	135	50	53	107
'84	336	162	291	296	-	156	57	-	123	62	116	74	53	774	281	107	168	56	53	120
'85	361	172	246	276	-	139	48	-	117	66	112	42	49	754	295	93	157	25	46	96
'86	231	144	283	288	-	147	55	-	118	64	97	74	53	741	322	93	172	33	40	127
'87	335	148	269	272	-	140	53	-	123	111	124	96	51	700	334	83	171	28	40	147
'88	419	181	279	279	-	152	62	-	114	87	187	136	96	772	439	85	185	65	50	177
'89	397	192	278	283	-	144	62	-	119	82	177	118	92	758	356	-	179	59	83	148
'90	369	184	259	281	-	142	67	-	83	92	190	109	99	761	359	-	180	62	72	-
'91	348	180	231	277	-	137	65	-	81	92	157	95	83	733	256	-	178	44	72	118
'92	363	193	301	345	-	155	67	-	91	94	200	95	85	717	382	-	190	60	71	116
'93	333	184	270	364	-	125	62	-	93	93	142	93	65	643	426	-	186	14	-	78
'94	351	173	263	392	-	120	64	-	89	98	199	121	77	693	403	-	188	38	-	124
'95	387	-	326	414	-	167	67	-	97	97	199	118	90	792	448	-	196	54	83	122
'96	427	135	321	412	-	133	67	-	-	96	177	105	87	758	412	-	198	58	-	101
'97	444	-	261	348	-	95	55	-	100	95	129	77	60	585	409	-	144	55	-	151
'98	430	233	-	272	-	111	50	-	93	96	136	69	68	2,296	1774	-	121	76	77	251
'99	418	170	464	488	-	33	54	-	-	71	99	49	13	2,644	1764	-	151	24	-	139
'00	472	194	362	495	-	103	50	-	102	206	128	61	76	2,514	1624	-	154	72	75	276
'01	469	252	447	509	-	230	70	-	-	274	153	76	75	2,839	2420	-	143	83	74	254
'02	389	208	367	463	-	60	80	-	-	277	103	55	101	2,575	2117	-	94	32	-	155
'03	388	247	363	456	-	104	74	-	-	85	99	53	70	2,436	1905	-	77	28	62	107
'04	444	275	285	346	295	80	87	-	60	360	168	75	55	2,364	2016	-	167	70	69	167
'05	418	229	315	386	278	107	93	-	-	259	168	78	96	2,105	2165	-	153	72	-	153
'06	433	245	234	331	-	109	240	-	-	364	149	107	97	2,064	2264	-	121	62	85	121
'07	382	243	32	350	-	74	88	-	-	364	100	112	92	1,907	2026	-	63	50	-	63
'08	465	280	283	371	-	111	96	-	-	380	184	100	92	2,049	2145	-	150	44	91	150
'09	472	298	260	334	162	115	103	-	-	384	192	103	101	2,043	2099	-	151	36	59	151

자료 : 제주도, 제주도통계연보, 각년도, 고구마·감자 : 조곡기준('57~'67, '98이후)

<부표 4 > 감귤 기본통계 현황

감귤재배 일반 현황(총괄)

연 도	재배면적 (ha)	생 산 량 (천톤)	농 가 수 (호)	조 수 입 (억원)
1980	14,094	187	19,996	545
1990	19,414	493	25,616	3,151
2000	25,796	563	36,590	3,708
2001	25,408	646	36,296	3,617
2002	25,207	789	35,078	3,165
2003	24,560	646	33,957	4,706
2004	22,048	596	31,233	6,105
2005	21,430	662	30,659	6,006
2006	21,382	631	30,747	6,603
2007	20,965	747	31,005	4,319
2008	20,938	592	31,027	6,313
2009	20,898	741	31,200	6,011
2010	20,747	569	30,905	6,685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조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85,858	627,904	621,381	693,342	457,406	656,238	626,865	704,392
감 귤	470,415	610,491	600,639	660,288	431,883	631,325	601,113	668,484
노 지	337,932	447,062	446,271	470,239	251,523	415,454	353,518	405,205
하 우 스	73,644	68,604	65,905	63,202	78,013	71,941	72,445	74,507
월 동	12,831	25,646	18,140	34,214	18,531	36,101	43,171	29,958
만 감 류	46,008	69,179	70,323	92,634	83,816	107,829	131,979	158,814
기타과수류	15,443	17,413	20,742	33,054	25,523	24,913	25,752	35,908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 노지감귤 숙기별 생산량

(단위 : ha, 톤)

연 도	계		조 생		보 통		만 감 류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2001	22,840.5	600,613	21,802.5	544,423	1,985.9	55,717	52.1	473
2002	23,496.3	739,539	21,674.9	663,766	1,781.2	75,500	40.2	273
2003	22,471.2	597,515	20,709.0	556,676	1,747.0	40,697	15.2	142
2004	19,771.8	537,147	18,991.0	519,180	734.0	17,488	46.8	479
2005	19,413.0	600,986	18,371.0	581,429	714.9	19,082	57.1	475
2006	19,082.6	569,404	18,345.9	550,553	688.7	18,367	48.2	484
2007	18,575.3	678,129	17,876.6	656,149	658.4	21,621	40.3	359
2008	18,491.0	520,811	17,818.4	504,778	638.2	15,572	34.4	461
2009	18,329.4	655,662	17,789.4	639,068	489.6	15,978	50.4	616
2010	17,994.8	481,514	17,433.3	465,827	487.5	14,738	74.0	949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 하우스감귤 숙기별 생산량

(단위 : ha, 톤)

연 도	계		조기재배(온주)				월동재배(온주)		만 감 류	
			가 온		무 가 온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2001	1,567.3	45,410	463.7	25,320	48.3	1,838	248.0	7,595	807.3	10,657
2002	1,711.3	48,855	466.0	24,955	49.7	2,091	261.0	9,038	934.6	12,771
2003	1,752.2	48,047	441.0	25,736	21.0	884	245.0	7,249	1,380.8	14,203
2004	2,247.0	57,909	417.5	25,389	12.0	514	400.3	10,833	1,417.2	21,173
2005	2,287.0	60,662	392.7	23,046	16.0	705	465.6	13,090	1,412.7	23,821
2006	2,293.3	6,1782	336.3	19,675	15.8	666	495.4	14,338	1,445.8	27,103
2007	2,384.8	69,105	318.4	20,411	40.6	2,484	559.7	17,322	1,466.1	28,888
2008	2,444.9	71,265	282.7	20,344	29.9	2,012	634.8	17,826	1,497.5	31,083
2009	2,568.9	85,352	273.7	20,556	30.4	2,080	741.7	24,420	1,523.1	38,296
2010	2,751.9	86,964	278.8	19,428	33.5	2,174	812.9	23,485	1,626.7	41,877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품종별 생산 현황(총괄)

(단위 : ha, 톤)

연도	구분	계	온주밀감				만감류		
			소계	노지	하우스	월동	소계	노지	하우스
2001	면적	25,407.8	24,548.4	23,788.4	512.0	248.0	859.4	52.1	807.3
	생산량	646,022	634,892	600,140	27,157	7,595	11,130	473	10,657
2002	면적	25,248.2	24,273.4	23,456.1	515.7	301.7	974.8	40.2	934.6
	생산량	789,413	776,369	739,266	27,046	10,057	13,044	273	12,771
2003	면적	24,560.0	23,192.1	22,456.0	462.0	274.1	1,396.0	15.2	1,380.8
	생산량	645,587	631,883	597,373	26,620	7,890	14,345	142	14,203
2004	면적	22,048.2	20,584.2	19,725.0	429.5	429.7	1,464.0	46.8	1,417.2
	생산량	595,591	573,939	536,668	25,903	11,368	21,652	479	21,173
2005	면적	21,430.1	19,960.3	19,085.9	408.7	465.6	1,469.8	57.1	1,412.7
	생산량	661,992	637,696	600,511	23,751	13,434	24,296	475	23,821
2006	면적	21,382.4	19,888.4	19,034.6	352.1	501.3	1,494.0	48.2	1,445.8
	생산량	631,324	603,737	568,920	20,341	14,476	27,587	484	27,103
2007	면적	20,965.0	19,458.6	18,535.0	359.0	564.6	1,506.4	40.3	1,466.1
	생산량	747,376	718,129	677,770	22,895	17,464	29,247	359	28,888
2008	면적	20,938.7	19,406.8	18,456.6	312.6	637.6	1,531.9	34.4	1,497.5
	생산량	592,160	560,616	520,350	22,356	17,910	31,544	461	31,083
2009	면적	20,898.2	19,324.8	18,279.0	304.1	741.7	1,573.4	50.3	1,523.1
	생산량	741,014	702,102	655,046	22,636	24,420	38,912	616	38,296
2010	면적	20,746.7	19,046.0	17,920.8	312.3	812.9	1,700.7	74.0	1,626.7
	생산량	568,478	525,652	480,565	21,602	23,485	42,826	949	41,877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노지감귤(온주) 재배

연도	면적 (ha)	생산량 (톤)	조수입 (백만원)	재배농가 (호)	kg당 가격 (원)
2001	23,788.4	600,140	251,082	31,245	418
2002	23,456.1	738,530	205,621	30,215	278
2003	22,456.0	596,732	337,932	29,186	566
2004	19,725.0	536,668	447,062	25,374	833
2005	19,085.9	600,511	446,271	24,673	907
2006	19,034.6	568,920	470,239	24,605	827
2007	18,535.0	677,770	251,523	24,786	371
2008	18,456.6	520,350	415,454	24,817	798
2009	18,279.0	655,046	353,518	24,884	540
2010	17,920.8	480,565	405,205	24,097	843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 하우스감귤(온주) 재배

연 도	면 적 (ha)	생 산 량 (톤)	조 수 입 (백만원)	재배농가 (호)	kg당 가격 (원)
2001	512.0	27,157	69,254	1,546	2,550
2002	515.7	27,046	64,639	1,573	2,390
2003	462.0	26,620	73,644	1,422	2,767
2004	429.5	25,903	68,604	1,323	2,648
2005	408.7	23,751	65,905	1,227	2,775
2006	352.1	20,341	63,202	1,051	3,107
2007	359.0	22,895	78,013	1,048	3,407
2008	312.6	22,356	71,941	954	3,218
2009	304.1	22,636	72,445	912	3,200
2010	312.3	21,602	74,507	929	3,449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 월동감귤(온주) 재배

연 도	면 적 (ha)	생 산 량 (톤)	조 수 입 (백만원)	재배농가 (호)	kg당 가격 (원)
2001	248.0	7,595	11,124	795	1,465
2002	261.0	10,057	6,809	759	677
2003	246.0	7,890	12,831	667	1,626
2004	429.6	11,368	25,646	850	2,256
2005	465.6	13,434	18,140	948	1,350
2006	501.3	14,476	34,214	989	2,363
2007	564.6	17,464	18,531	1,149	1,061
2008	637.6	17,910	36,101	1,216	2,016
2009	741.7	24,420	43,171	1,164	1,768
2010	812.9	23,485	29,958	1,337	1,276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만감류 재배 현황(총괄)

(단위 : ha, 톤)

구 분	계	유 자	금 감	하갈	청 견	공 내 이예감	네 블 오렌지	부지화	세미놀	진지향	남향	기타	
'96	면 적	427.5	89.0	147.0	36.0	39.0	19.0	52.0	7.0	5.9	-	-	32.6
	생산량	5,197	548	2,665	275	697	15	574	277	41	-	-	105
'97	면 적	539.9	106.8	136.3	30.0	83.1	16.5	51.8	82.5	5.9	1.5	0.5	25.0
	생산량	6,618	748	2,278	352	1,197	227	1,042	465	75	12	-	222
'98	면 적	611.0	102.1	125.0	25.5	125.8	15.7	45.3	134.6	7.4	5.1	0.5	24.0
	생산량	6,154	610	1,844	241	1,418	149	696	841	76	63	7	209
'99	면 적	650.8	93.5	129.9	24.2	146.6	13.7	57.3	150.2	9.4	12.7	0.5	12.8
	생산량	7,317	478	2,482	162	1,897	130	822	1,091	88	80	7	80
'00	면 적	664.9	30.5	131.9	2.4	120.9	9.8	49.3	264.9	7.4	26.5	1.5	19.8
	생산량	10,617	156	4,791	25	2,434	106	725	1,935	206	177	14	48
'01	면 적	859.4	24.7	136.4	1.7	113.7	5.3	46.3	485.5	7.6	24.1	1.2	12.9
	생산량	11,130	107	3,029	20	2,491	62	863	3,901	173	348	18	118
'02	면 적	974.8	12.2	122.7	1.0	110.6	4.6	44.5	621.0	7.7	28.7	1.2	20.6
	생산량	13,044	51	2,318	10	2,360	69	646	6,869	150	474	14	83
'03	면 적	1,396.0	12.2	144.0	-	123.0	3.2	29.9	973.0	5.1	29.3	1.2	75.1
	생산량	14,345	32	2,716	-	1,591	50	307	8,636	68	841	21	83
'04	면 적	1,464.0	5.1	90.0	-	96.6	6.3	20.8	1,100.6	2.3	35.0	1.2	106.1
	생산량	21,652	118	2,805	-	2,412	59	789	13,363	29	993	17	1,067
'05	면 적	1,469.8	5.6	91.5	-	97.4	8.8	22.0	1,103.8	3.8	34.5	1.2	101.2
	생산량	24,296	120	3,036	-	2,501	98	548	15,300	52	1,048	19	1,574
'06	면 적	1,494.0	5.1	95.2	-	94.0	2.8	18.5	1,128.2	5.6	34.5	1.2	108.9
	생산량	27,587	105	3,027	-	2,235	39	528	18,280	76	1,022	27	2,248
'07	면 적	1,506.4	5.3	95.9	-	95.0	3.3	12.8	1,136.6	3.1	34.5	0.7	119.2
	생산량	29,247	71	2,818	-	1,890	56	265	20,210	51	1,057	14	2,815
'08	면 적	1,531.9	4.8	79.5	-	77.0	0.5	9.1	1,188.2	3.2	33.1	-	136.5
	생산량	31,544	69	2,853	-	1,620	13	132	22,199	53	1,027	-	3,578
'09	면 적	1,573.4	4.8	61.1	-	66.6	-	9.2	1,241.6	2.7	31.0	-	156.4
	생산량	38,912	68	2,347	-	2,663	-	180	27,251	113	1,542	-	4,748
'10	면 적	1,700.7	4.8	55.6	-	76.8	-	7.4	1,291.9	2.4	28.8	-	233.0
	생산량	42,826	90	2,248	-	2,244	-	160	30,070	89	1,450	-	6,475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만감류(하우스) 재배

(단위 : ha, 톤)

구분	계	유자	금감	하갈	청 건	궁 이 예 감	네 블 오 렌지	부지화	세미놀	진지향	남향	기타
'96	면 적	207.5	-	134.0	-	13.0	5.0	44.0	7.0	4.5	-	-
	생산량	3,913	-	2,309	-	697	15	574	277	41	-	-
'97	면 적	317.7	1.0	128.0	-	63.6	2.0	42.3	74.3	4.5	1.5	0.5
	생산량	4,588	7	2,171	-	1,049	40	849	417	43	12	-
'98	면 적	391.8	1.0	112.0	-	106.6	2.9	37.8	120.9	5.0	5.1	0.5
	생산량	4,487	1	1,694	-	1,278	45	618	737	44	63	7
'99	면 적	444.9	1.0	112.6	-	127.5	-	48.4	140.2	5.0	9.7	0.5
	생산량	6,664	10	1,993	-	1,915	-	906	1,674	51	100	15
'00	면 적	593.9	0.8	126.4	-	120.5	0.7	48.2	263.8	5.5	26.3	1.5
	생산량	10,190	9	4,753	-	2,424	16	710	1,934	148	177	14
'01	면 적	807.3	1.0	131.0	-	112.0	-	45.2	484.4	5.5	24.1	1.2
	생산량	10,657	5	3,451	-	2,061	-	558	3,898	148	518	18
'02	면 적	934.6	-	122.2	-	108.6	-	44.5	614.6	3.9	28.7	1.2
	생산량	12,771	-	2,314	-	2,340	-	646	6,868	88	474	14
'03	면 적	1,380.8	8.5	144.0	-	122.5	-	29.7	969.0	2.8	29.3	1.2
	생산량	14,203	-	2,716	-	1,586	-	305	8,623	39	841	21
'04	면 적	1,417.2	0.3	86.8	-	94.8	0.5	20.4	1,082.4	-	33.8	1.2
	생산량	21,173	10	2,725	-	2,403	-	785	13,275	-	993	17
'05	면 적	1,412.7	0.3	88.3	-	96.1	3.2	21.8	1,072.0	1.5	33.8	1.2
	생산량	23,821	10	2,959	-	2,495	38	546	15,195	22	1,043	19
'06	면 적	1,445.8	0.3	92.0	-	94.0	2.7	18.3	1,098.7	3.1	33.8	1.2
	생산량	27,103	-	2,947	-	2,235	37	528	18,100	37	1,015	27
'07	면 적	1,466.1	-	92.7	-	95.0	2.7	12.0	1,113.6	2.9	34.5	0.7
	생산량	28,888	-	2,736	-	1,890	37	251	20,100	50	1,057	14
'08	면 적	1,497.5	-	79.5	-	75.4	-	8.5	1,169.1	2.4	33.1	-
	생산량	31,083	-	2,853	-	1,595	-	118	22,012	44	1,027	-
'09	면 적	1,523.1	-	61.1	-	65.0	-	8.6	1,206.3	1.8	31.0	-
	생산량	38,296	-	2,347	-	2,638	-	166	26,868	96	1,542	-
'10	면 적	1,626.7	-	55.6	-	76.6	-	6.8	1,231.2	1.6	28.8	-
	생산량	41,877	-	2,248	-	2,241	-	143	29,359	73	1,450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주요 기타과수 생산

(단위 : ha, 톤)

연도	파인애플		바나나		참다래		단감		배		포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5	6.0	3.4	-	-	-	-	-	-	-	-	-	-
1976	6.0	56.3	-	-	-	-	-	-	-	-	-	-
1977	9.0	90.0	-	-	-	-	-	-	-	-	-	-
1978	22.0	318.0	-	-	-	-	-	-	-	-	-	-
1979	42.0	579.1	-	-	-	-	-	-	-	-	-	-
1980	69.0	1,063.0	-	-	-	-	-	-	-	-	-	-
1981	92.0	2,015.0	-	-	-	-	-	-	-	-	-	-
1982	93.0	2,620.0	-	-	-	-	-	-	-	-	-	-
1983	87.0	1,653.0	-	-	-	-	-	-	-	-	-	-
1984	89.0	3,172.0	13.3	319.0	71.5	62.0	-	-	-	-	-	-
1985	105.0	3,522.0	58.2	1391.0	123.4	88.0	-	-	-	-	-	-
1986	116.0	3,680.0	167.6	3,316.0	142.0	126.0	-	-	-	-	-	-
1987	163.0	4,225.0	358.0	10,014.0	156.0	99.0	-	-	-	-	-	-
1988	222.0	6,963.0	414.0	18,408.0	153.0	231.0	35.8	75.0	-	-	3.4	34.0
1989	272.0	8,126.0	443.0	20,881.0	166.0	487.0	11.1	16.0	-	-	4.1	16.0
1990	226.0	8,691.0	440.0	21,770.0	157.0	901.0	-	-	-	-	-	-
1991	106.0	3,332	295.0	12,270.0	170.0	1,089.0	32.2	77.0	-	-	6.7	23.0
1992	83.5	2,308.0	65.0	1,931.0	170.0	1,164.0	37.1	81.0	-	-	6.8	53.0
1993	63.0	2,430.0	-	-	190.0	1,502.0	37.8	120.0	-	-	10.3	100.0
1994	64.0	2,817.0	0.2	11.0	207.0	1,615.0	50.6	125.0	-	-	7.3	63.0
1995	58.0	2,737.0	0.4	22.0	211.4	2,092.0	69.4	207.0	-	-	8.5	95.0
1996	58.6	2,420.0	0.4	20.0	234.0	2,979.0	110.0	224.0	-	-	12.8	135.0
1997	51.7	2,076.0	0.4	20.0	203.7	3,313.0	142.2	384.7	1.5	-	15.3	281.0
1998	33.9	1,310.0	0.4	20.0	194.6	2,843.0	228.2	714.0	7.8	-	18.0	253.0
1999	31.9	1,206.0	-	-	189.6	3,039.0	227.2	1,755.0	11.8	34.0	16.6	192.0
2000	28.8	1,136.0	-	-	178.4	2,566.0	243.3	1,989.0	28.2	50.0	14.4	216.0
2001	18.1	364.0	-	-	165.6	2,795.0	239.2	2,296.0	32.9	123.0	13.2	184.0
2002	18.9	357.0	-	-	148.6	2,138.0	223.2	1,914.0	37.1	214.0	12.9	158.0
2003	14.6	268.0	-	-	141.3	2,210.0	213.3	1,711.0	31.9	283.0	9.4	156.0
2004	10.7	194.0	-	-	168.1	2,914.0	173.8	1,578.0	25.2	329.0	8.1	163.0
2005	7.8	133.0	-	-	188.6	3,686.0	146.5	1,595.0	22.7.0	248.0	7.6	159.0
2006	6.1	104.0	-	-	220.2	3,167.0	114.0	1,677.0	19.1	229.0	5.6	118.0
2007	6.1	107.0	1.6	23.0	223.7	3,871.0	105.0	1,323.0	18.3	236.0	4.8	92.0
2008	5.4	93.0	1.6	23.0	240.6	4,050.0	87.5	1,017.0	7.8	128.0	3.6	69.0
2009	-	-	1	19	238.4	5,074.0	58.4	647.0	2.6	35.0	2.8	64.0
2010	0.3	5	1.3	21	260.7	6,251	65.4	923	1.6	25	2.5	47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 전국 주요과실 생산량

(단위 : 천ha, 천톤)

연 도	품 목	계	감 귤	사 과	포 도	복숭아	단 감	배
1985	면 적	102.8	17.0	37.7	16.2	13.1	9.8	9.0
	생 산	1,433.4	394.3	532.6	149.9	131.5	97.0	128.1
1990	면 적	117.8	19.4	48.8	14.9	12.3	13.3	9.1
	생 산	1,622.0	492.7	628.9	131.3	114.6	95.2	159.3
1992	면 적	124.7	22.4	53.0	14.9	10.6	13.5	10.3
	생 산	1,967.9	718.9	694.8	146.3	115.8	118.6	173.5
1994	면 적	138.5	21.4	52.1	19.8	10.2	22.4	12.6
	생 산	1,823.4	549.0	616.5	211.9	114.8	167.5	163.7
1995	면 적	148.6	21.6	50.1	26.0	10.2	25.0	15.7
	생 산	2,149.6	614.8	715.9	316.4	129.6	194.6	178.3
1996	면 적	146.6	25.8	43.8	27.1	10.0	21.7	18.2
	생 산	2,002.4	479.9	651.4	357.2	127.5	167.1	219.3
1997	면 적	149.6	25.8	40.0	28.3	10.9	22.6	22.0
	생 산	2,330.3	693.2	651.8	393.2	146.8	185.1	260.2
1998	면 적	150.6	25.9	34.7	29.9	12.0	23.5	24.6
	생 산	2,021.7	543.9	459.0	397.8	151.3	210.0	259.7
1999	면 적	149.9	25.8	31.1	30.5	12.9	23.9	25.7
	생 산	2,229.1	638.7	490.2	470.1	157.2	213.8	259.1
2000	면 적	147.9	25.7	29.1	29.2	13.9	23.8	26.2
	생 산	2,249.5	563.4	488.9	475.6	170.0	227.4	324.2
2001	면 적	141.2	25.4	26.3	26.8	14.4	22.8	25.5
	생 산	2,284.3	646.0	403.6	453.6	166.3	197.6	417.2
2002	면 적	139.5	25.2	26.2	26.0	15.6	21.1	25.4
	생 산	2,417.6	788.7	433.2	422.0	187.5	199.9	386.3
2003	면 적	135.4	24.6	26.4	24.8	15.9	19.6	24.1
	생 산	2,056.4	645.6	365.4	376.4	189.4	163.0	316.6
2004	면 적	128.8	22.1	26.7	22.9	15.6	18.5	23.0
	생 산	2,168.5	595.6	357.2	367.9	200.5	195.4	451.9
2005	면 적	124.5	21.5	26.9	22.1	15.0	17.2	21.8
	생 산	2,313.8	662.0	367.5	381.4	223.7	235.9	443.3
2006	면 적	120.4	21.4	28.3	19.3	13.4	17.3	20.7
	생 산	2,200.9	631.3	407.6	330.1	193.8	206.6	431.5
2007	면 적	118.6	21.0	29.4	18.8	13.2	16.3	19.9
	생 산	2,371.2	747.4	435.7	328.7	184.5	207.5	467.4
2008	면 적	116.2	20.9	30.0	18.2	12.6	16.2	18.3
	생 산	2,269.3	592.0	470.9	330.6	189.1	216.0	470.7
2009	면 적	114.3	20.9	30.5	18.0	13.0	14.8	17.1
	생 산	2,377.8	741	494.5	332.0	198.3	195.1	418.4
2010	면 적	114.6	20.8	30.9	17.6	13.9	15.2	16.2
	생 산	1,961.5	568.5	460.3	305.5	138.6	180.8	307.8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주요국가 감귤류 생산량

(단위 : 천톤)

국 가	계	오렌지	탄제린, 만다린 등	레몬, 라임	그레이프 후르츠	기 타
계	124,414.07	67,601.64	30,587.77	13,949.60	4,496.86	7,778.20
중 국	25,064.16	4,054.12	17,772.59	1,017.16	662.54	1,557.75
브 라 질	20,725.24	18,340.24	1,273.00	1,040.00	72.00	0.00
미 국	10,740.15	8,280.78	401.88	827.35	1,182.97	47.17
멕시코	7,502.92	4,306.63	469.04	2,224.38	394.87	108.00
인 도	7,168.70	4,396.70	-	2,429.00	187.00	156.00
스 페 인	5,480.14	2,779.60	2,026.20	620.30	-	54.04
이탈리아	3,916.90	2,478.20	880.50	522.70	7.50	28.00
이 란	4,022.25	2,300.00	702.00	620.00	54.00	346.25
나이지리아	3,400.00	-	-	-	-	3,400.00
이집트	3,295.00	2,200.00	760.00	330.00	2.50	2.50
터 키	3,513.77	1,689.92	846.39	783.58	190.97	2.91
아르헨티나	2,726.00	766.00	520.00	1,260.00	180.00	0.00
파키스탄	2,495.50	1,721.00	640.00	98.50	-	36.00
인도네시아	2,102.56	2,102.56	-	-	-	0.00
남 아 공	2,172.12	1,445.30	-	214.42	370.41	141.99
일 본	1,292.25	65.00	1,066.00	5.25	-	156.00
모 로 코	1,271.00	780.00	450.00	22.00	1.00	18.00
콜롬비아	1,206.19	353.00	28.89	74.30	-	750.00
태 국	1,130.00	350.00	670.00	82.00	22.00	6.00
시 리 아	1,082.88	689.75	26.22	140.65	-	226.26
그 리 스	1,013.60	800.00	120.00	86.00	6.50	1.10
페 루	809.36	377.67	165.97	211.15	4.55	50.02
기 타	12,283.38	7,325.17	1,769.09	1,340.86	1,158.05	690.21

※ 자료 : FAO 통계(2009년 기준)



감귤 유통처리 현황(총괄)

(단위 : 톤)

연 도	처리량 %		처 리 실 태									
			상 품 용						가공처리		기 타	
			계		계통출하		일반출하		처리량	%	처리량	%
			처리량	%	처리량	%	처리량	%				
'75	81,105	100	70,309	86.7	10,188	12.6	60,121	74.1	6,807	8.4	3,989	4.9
'80	187,470	100	154,046	82.2	14,068	7.5	139,978	74.7	23,798	12.7	9,626	5.1
'81	247,780	100	205,922	83.1	26,215	10.6	179,707	72.5	22,740	9.2	19,118	7.7
'82	323,420	100	264,620	81.8	61,430	19.0	203,190	62.8	44,602	13.8	14,198	4.4
'83	345,900	100	295,311	85.4	107,269	31.0	188,042	54.4	33,059	9.6	17,530	5.1
'84	261,000	100	222,332	85.2	28,553	10.9	193,779	74.2	23,810	9.1	14,858	5.7
'85	394,300	100	313,041	79.4	80,688	20.5	232,353	58.9	65,659	16.7	15,000	4.0
'86	333,100	100	278,808	83.7	60,087	18.0	218,721	65.7	41,458	12.4	12,834	3.9
'87	464,391	100	372,581	80.2	97,906	21.1	274,675	59.1	78,310	16.9	13,500	2.9
'88	412,660	100	329,694	79.9	78,769	19.1	250,925	60.8	64,374	15.6	18,592	4.5
'89	746,400	100	549,914	73.7	200,859	26.9	349,055	46.8	172,686	23.1	23,800	3.2
'90	492,700	100	354,326	71.9	100,430	20.4	253,896	51.5	115,718	23.5	22,656	4.6
'91	556,350	100	433,911	78.0	131,549	23.6	302,362	54.3	76,543	13.8	45,896	8.2
'92	718,700	100	528,861	73.6	234,886	32.7	293,975	40.9	136,239	19.0	53,600	7.5
'93	619,000	100	520,886	84.1	220,121	35.6	300,765	48.6	68,727	11.1	29,387	4.7
'94	548,945	100	460,881	84.0	183,513	33.4	277,368	50.5	30,727	5.6	57,337	10.4
'95	614,770	100	525,298	85.4	266,781	43.4	258,517	42.1	47,227	7.7	42,245	6.9
'96	479,980	100	438,357	91.3	234,629	48.9	203,728	42.4	11,733	2.4	29,890	6.2
'97	693,200	100	617,747	89.1	376,326	54.3	241,421	34.8	13,785	2.0	61,668	8.9
'98	543,980	100	512,586	94.2	321,200	59.0	191,386	35.2	5,012	0.9	26,382	4.8
'99	638,740	100	567,041	88.8	376,322	58.9	190,719	29.9	33,142	5.2	38,557	6.0
'00	563,341	100	430,617	76.4	321,619	57.1	108,998	19.3	27,468	4.9	105,256	18.7
'01	646,023	100	527,326	81.7	391,021	60.6	136,305	21.1	47,445	7.3	71,252	11.0
'02	788,679	100	531,081	67.3	400,708	50.8	130,373	16.5	112,359	14.3	145,239	18.4
'03	645,587	100	477,523	74.0	257,409	39.9	220,114	34.1	120,333	18.6	47,731	7.4
'04	595,591	100	415,338	69.7	261,602	43.9	153,736	25.8	100,517	16.9	79,736	13.4
'05	661,992	100	491,260	74.2	305,094	46.1	186,166	28.1	125,343	18.9	45,389	6.9
'06	631,324	100	450,087	71.3	271,422	43.0	178,665	28.3	109,496	17.3	71,741	11.4
'07	747,376	100	513,746	68.7	344,021	46.0	169,725	22.7	138,782	18.6	94,848	12.7
'08	592,160	100	427,669	72.2	288,874	48.8	138,795	23.4	88,664	15.0	75,827	12.8
'09	741,014	100	519,423	70.1	376,896	50.9	142,527	19.2	123,551	16.7	98,040	13.2
'10	568,478	100	385,456	67.8	293,350	51.6	92,106	16.2	81,117	14.3	101,905	17.9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노지감귤 유통처리

(단위 : 톤, 백만원)

연 도	계	도외상품	수 출	가 공	군 납	기 타	조수입
1996	479,980	438,357	-	11,733	-	29,890	607,932
1997	665,739	579,788	3,329	13,785	977	67,860	315,785
1998	515,058	482,327	5,881	5,012	1,262	20,576	449,022
1999	594,188	531,040	5,650	33,142	1,649	22,707	251,969
2000	518,154	398,675	5,722	27,468	1,857	84,432	302,563
2001	600,140	491,801	6,224	47,445	1,823	52,847	251,082
2002	738,530	491,240	9,074	112,359	2,118	123,739	205,621
2003	596,732	437,660	7,806	120,333	2,028	28,905	337,932
2004	536,668	374,285	5,206	100,517	1,526	55,134	447,062
2005	601,511	446,935	3,363	124,855	158	25,200	446,271
2006	568,920	405,120	2,746	109,496	822	50,736	470,239
2007	677,770	459,738	4,170	138,782	1,180	73,900	251,523
2008	520,350	374,405	1,357	88,561	462	55,565	415,454
2009	655,046	459,586	2,713	123,496	1,258	67,993	353,518
2010	480,565	335,694	1,544	80,888	1,029	61,410	405,205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 감귤 가공처리

(단위 : 톤, 백만원)

연 도	생 산 량 (톤)	가공처리량 (톤)	가 공 율	수매단가 (원/kg)	비 고
1971	5,972	238	4%		
1972	11,441	344	3%		
1973	26,231	3,057	12%		
1974	30,618	4,172	14%		
1975	81,105	6,807	8%	133	
1976	50,432	3,884	8%	187	
1977	115,500	8,168	7%	200	
1978	125,950	15,833	13%	227	
1979	172,150	11,869	7%	234	
1980	187,470	23,798	13%	224	240, 208
1981	247,780	22,740	9%	228	214, 227, 242
1982	323,420	44,602	14%	229	256, 202
1983	345,900	33,059	10%	197	
1984	261,000	23,810	9%	246	213, 235, 256
1985	394,300	65,659	17%	216	240, 192
1986	333,100	41,458	12%	272	264, 280
1987	464,391	78,310	17%	272	264, 280
1988	412,660	64,374	16%	325	307, 328, 340
1989	746,400	172,686	23%	284	326, 312, 267, 230
1990	492,700	115,718	23%	374	347, 382
1991	556,350	76,543	14%	366	334, 374, 387
1992	718,700	136,239	19%	250	267, 220, 240
1993	619,000	68,727	11%	267	
1994	548,945	30,727	6%	220	
1995	614,770	47,227	8%	220	
1996	479,980	11,733	2%	220	
1997	693,200	13,785	2%	154	
1998	543,980	5,012	1%	145	
1999	638,740	33,142	5%	72	
2000	563,341	27,468	5%	89	130, 100, 80
2001	646,023	47,445	7%	80	
2002	788,679	112,359	14%	80	
2003	645,587	120,333	19%	100	
2004	595,591	100,517	17%	105	
2005	661,992	125,343	19%	100	
2006	631,324	109,496	17%	100	
2007	747,376	138,782	19%	80	
2008	592,160	88,664	15%	80	
2009	741,014	123,551	17%	83	
2010	568,478	81,117	14%	120	

※ 수매단가는 수매 당해연도 평균 수매가격임.(비고는 수매 당해연도 가격변동 내역임)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업체별 가공용 감귤 구매

(단위 : 톤)

구 분	1995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47,227	4,262	2,617	32,505	26,526	47,445	112,359	120,333	100,517	125,343
감귤복합가공공장 (제1,제2)	-	-	-	-	10,808	25,149	42,702	46,290	47,357	49,651
롯데	18,081	1,600	-	2,191	820	680	29,808	30,011	21,669	28,738
해태음료	16,238	-	-	-	-	-	-	-	-	-
고려식품	-	-	-	350	150	-	-	-	-	-
서라벌식품	4,495	-	-	-	-	-	-	-	-	-
신 과학	-	-	-	17,121	4,255	-	-	-	-	-
삼진식품	-	-	-	1,114	-	-	-	743	555	-
일 해	200	-	-	-	-	17,912	35,959	38,041	26,891	45,080
화남산업	-	-	-	685	72	-	-	-	-	-
생명나무	-	-	-	-	-	-	-	-	-	-
설정식품	-	-	-	1,029	668	1,118	617	799	549	-
군인공제회	1,026	1,262	1,000	-	1,032	1,487	1,546	1,351	1,573	-
조 치 원	-	-	-	115	-	-	-	-	-	-
롯데삼강	2,400	-	-	-	-	-	-	-	-	-
매일유업	1,500	-	-	-	5,299	-	-	-	-	-
옴니허브	-	-	-	-	-	-	-	-	-	-
제일제당	287	-	-	-	-	-	-	-	-	-
동아오토카	800	-	-	-	-	-	-	-	-	-
수석농산	-	1,400	1,617	9,341	2,288	-	-	-	-	-
서울우유	2,000	-	-	-	-	-	-	-	-	-
삼미식품	-	-	-	-	999	1,030	800	2,550	1,000	954
삼 무	-	-	-	-	-	-	-	-	-	281
진양농산	-	-	-	-	-	-	-	-	-	268
기 타	200	-	-	559	135	69	927	548	923	371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단위 : 톤)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09,496	138,782	88,664	123,551	81,117
감골복합가공 공장(제1,제2)	45,106	60,472	32,625	44,845	24,891
롯데	26,058	35,310	19,876	32,437	19,165
해태음료	-	-	-	-	-
고려식품	-	-	-	-	-
서라벌식품	-	-	-	-	-
신과학	-	-	-	-	-
삼진식품	18	-	-	-	-
일해	35,353	40,205	33,973	44,007	34,438
화남산업	-	-	-	-	-
생명나무	56	-	-	-	-
설정식품	147	-	-	-	-
군인공제회	1,120	1,024	608	464	-
조치원	-	-	-	-	-
롯데삼강	-	-	-	-	-
매일유업	-	-	-	-	-
옴니허브	55	-	-	-	-
제일제당	-	-	-	-	-
동아오트카	-	-	-	-	-
수석농산	-	-	-	-	-
웰팜	-	-	-	118	34
삼미식품	950	1,300	700	1,453	1,099
삼무	30	-	-	-	-
청암농산	-	-	-	131	-
기타	603	516	882	96	1,49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감귤 군납

(단위 : 톤, 백만원)

연 도	계 획	실 적	수매가격 (원/kg)
1993	2,609	2,420	701
1994	2,700	1,828	771
1995	2,098	1,044	980
1996	1,699	757	991
1997	1,492	977	1,075
1998	5,000	1,262	822
1999	3,000	1,649	919
2000	2,000	1,857	1,202
2001	2,000	1,823	771
2002	2,000	2,118	1,009
2003	3,000	2,028	798
2004	2,437	1,526	840
2005	1,000	158	1,103
2006	1,000	822	1,246
2007	2,000	1,180	1,338
2008	1,000	462	1,645
2009	2,000	1,258	1,485
2010	2,000	1,029	1,529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 감귤 수출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계	캐나다	미국	일본	러시아	대만	싱가폴	말련	인니	홍콩	괌	사이판	기타
'90	수출량	179	162	-	-	-	17	-	-	-	-	-	-
	수출액	113	101	-	-	-	12	-	-	-	-	-	-
'93	수출량	1,133	983	-	-	150	-	-	-	-	-	-	-
	수출액	956	856	-	-	100	-	-	-	-	-	-	-
'94	수출량	1,032	926	-	5	50	-	-	51	-	-	-	-
	수출액	825	711	-	15	40	-	-	59	-	-	-	-
'95	수출량	1,121	808	43	70	200	-	-	-	-	-	-	-
	수출액	1,069	635	45	274	115	-	-	-	-	-	-	-
'96	수출량	744	420	214	51	50	-	-	-	-	9	-	-
	수출액	927	496	271	100	50	-	-	-	-	10	-	-
'97	수출량	3,413	910	1,183	132	1,034	-	99	-	46	9	-	-
	수출액	3,628	1,049	1,489	474	485	-	73	-	49	9	-	-
'98	수출량	6,277	4,128	31	2,015	19	-	-	42	18	22	2	-
	수출액	6,403	3,482	31	2,796	7	-	-	39	20	26	2	-
'99	수출량	6,524	4,813	377	1,059	75	-	37	-	61	76	9	17
	수출액	8,417	4,062	377	3,781	42	-	32	-	37	66	8	12
'00	수출량	6,663	2,367	233	3,748	102	-	30	19	69	63	20	12
	수출액	7,653	1,610	186	5,629	54	-	25	16	57	48	18	10
'01	수출량	7,306	3,589	1,434	1,061	798	71	123	76	64	43	32	5
	수출액	10,891	3,615	1,800	4,319	526	272	124	77	65	46	31	9
'02	수출량	9,454	4,826	1,601	449	2,216	50	-	148	70	14	35	3
	수출액	7,382	3,259	1,813	1,111	949	9	-	76	56	15	75	8
'03	수출량	7,928	5,091	-	124	2,041	-	-	105	11	37	3	516
	수출액	4,985	3,482	-	358	809	-	-	78	30	108	10	110
'04	수출량	5,794	4,223	12	403	381	17	111	147	260	38	175	-
	수출액	6,092	4,039	15	787	289	17	117	136	152	53	430	-
'05	수출량	3,641	2,489	-	226	418	-	9	112	68	79	94	11
	수출액	2,470	1,448	-	412	265	-	-	105	39	29	27	-
'06	수출량	2,813	665	-	146	1,429	1	137	61	181	88	86	10
	수출액	1,906	429	-	121	922	1	88	40	117	57	119	7
'07	수출량	4,212	407	-	22	3,442	-	68	42	147	5	67	-
	수출액	1,869	180	-	20	1,411	-	66	31	78	5	66	-
'08	수출량	1,371	438	39	5	703	8	45	7	12	21	47	-
	수출액	867	242	25	18	366	7	61	7	22	28	57	-
'09	수출량	2,725	784	-	-	1,473	17	55	16	100	32	81	-
	수출액	1,543	360	-	-	674	17	84	16	88	32	105	-
'10	수출량	1,548	200	-	-	1,039	-	22	16	32	9	61	3
	수출액	1,586	201	-	-	1,017	-	34	20	53	11	94	7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감귤류 수입

(단위 : 톤, 천불)

구 분	MMA물량	수 입 현 황			업체별 수입량		
		수입량	수입액	kg당 단가(\$)	제주감협	일반업체	
'95	계	16,258	16,649	15,443	-	15,233	1,416
	오렌지	15,000	15,402	13,389	0.869	13,986	1,416
	기타감귤류	1,258	1,247	2,054	1.646	1,247	-
'96	계	21,020	20,835	22,538	-	19,326	1,509
	오렌지	19,669	19,678	20,800	1.057	18,169	1,509
	기타감귤류	1,351	1,157	1,738	1.501	1,157	-
'97	계	26,444	39,319	31,723	-	23,981	15,338
	오렌지	25,000	37,832	29,963	0.79	22,537	15,295
	기타감귤류	1,444	1,487	1,760	1.184	1,444	43
'98	계	29,753	38,230	29,644	-	27,857	10,373
	오렌지	28,215	36,659	28,355	0.773	26,320	10,339
	기타감귤류	1,538	1,571	1,289	0.820	1,537	34
'99	계	33,272	30,955	26,844	-	14,598	16,357
	오렌지	31,641	30,853	26,736	0.866	14,598	16,255
	기타감귤류	1,631	102	108	1.063	-	102
'00	계	37,320	99,552	63,832	-	37,320	62,232
	오렌지	35,596	99,107	63,361	0.640	37,320	61,697
	기타감귤류	1,724	535	471	0.880	-	535
'01	계	41,862	92,541	77,278	-	-	-
	오렌지	40,045	92,483	77,200	0.835	27,351	65,132
	기타감귤류	1,817	58	78	1.345	-	58
'02	계	46,961	102,712	88,150	-	-	102,712
	오렌지	45,051	102,653	88,088	0.858	-	102,653
	기타감귤류	1,910	59	62	1.051	-	59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구분	MMA물량	수입현황			업체별 수입량		
		수입량	수입액	kg당 단가(\$)	제주감협	일반업체	
'03	계	52,685	144,880	112,631	-	-	144,880
	오렌지	50,682	144,880	112,631	0.777	-	144,880
	기타감귤류	2,003	-	-	-	-	-
'04	계	59,114	159,746	146,034	-	-	159,746
	오렌지	57,017	154,444	136,744	0.885	-	154,444
	기타감귤류	2,097	5,302	9,290	1.752	-	5,302
'05	계	59,114	128,898	127,687	-	-	128,898
	오렌지	57,017	123,048	120,377	0.974	-	123,048
	기타감귤류	2,097	5,850	7,310	1.249	-	5,850
'06	계	59,114	127,662	127,618	-	-	127,662
	오렌지	57,017	124,495	123,064	0.988	-	124,495
	기타감귤류	2,097	3,167	4,554	1.437	-	3,167
'07	계	59,114	85,110	123,887	-	-	85,110
	오렌지	57,017	77,671	108,013	1.391	-	77,671
	기타감귤류	2,097	7,439	15,874	2.134	-	7,439
'08	계	59,114	107,887	110,941	-	-	107,887
	오렌지	57,017	107,887	110,941	1,028	-	107,887
	기타감귤류	2,097	-	-	-	-	-
'09	계	59,114	71,221	79,200	1,112	-	71,221
	오렌지	57,017	71,221	79,200	1,112	-	71,221
	기타감귤류	2,097	-	-	-	-	-
'10	계	59,114	110,055	130,944	1,190	-	110,055
	오렌지	57,017	110,055	130,944	1,190	-	110,055
	기타감귤류	2,017	-	-	-	-	-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오렌지 수입

(단위 : %, 톤)

연 도	MMA 물량(A)	수 입 량			일반업체 관세율	비고	
		계(B)	B/A	제주감협 (MMA)			일반업체
계	690,018		1,348,428	154	160,281	1,134,960	-
1995	15,000	15,402	103	13,986	1,416	94.1	
1996	19,669	19,678	100	18,169	1,509	89.2	
1997	25,000	37,832	151	22,537	15,295	84.3	
1998	28,215	36,659	130	26,320	10,339	79.4	
1999	31,641	30,853	98	14,598	16,255	74.5	
2000	35,596	99,107	279	37,320	61,697	69.6	
2001	40,045	92,483	231	27,351	65,132	64.7	공매
2002	45,051	102,712	228	-	102,653	59.8	공매
2003	50,682	144,880	286	-	144,880	54.9	공매
2004	57,017	154,444	270	-	154,444	50.0	
2005	57,017	123,048	216	-	123,048	50.0	
2006	57,017	124,495	218	-	124,495	50.0	
2007	57,017	77,672	136	-	77,672	50.0	
2008	57,017	107,887	189	-	107,887	50.0	
2009	57,017	71,221	125	-	71,221	50.0	
2010	57,017	110,055	193	-	57,017	50.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기타 감귤류(만다린) 수입

(단위 : %, 톤)

연 도	MMA 물량(A)	수 입 량			일반업체 관세율	비고	
		계(B)	B/A	제주감협 (MMA)			일반업체
계	29,356.9		27,974	-	5,385	22,589	-
1995	1,258.0	1,247	99	1,247	-	158.4	
1996	1,351.2	1,157	98	1,157	-	156.8	
1997	1,444.4	1,487	100	1,444	43	155.2	
1998	1,537.7	1,571	100	1,537	34	153.6	
1999	1,630.9	102	6	-	102	152.0	공매
2000	1,724.1	535	27	-	535	150.4	
2001	1,817.3	58	3	-	58	148.8	공매
2002	1,910.5	59	3	-	59	147.2	공매
2003	2,003.8	-	-	-	-	145.6	
2004	2,097.0	5,302	252	-	5,302	144.0	공매
2005	2,097.0	5,850	278	-	5,850	144.0	공매
2006	2,097.0	3,167	151	-	3,167	144.0	공매
2007	2,097.0	7,439	355	-	7,439	144.0	공매
2008	2,097.0	-	-	-	-	144.0	
2009	2,097.0	-	-	-	-	144.0	
2010	2,097.0	-	-	-	-	144.0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 오렌지 농축액 수입

(단위 : 톤, 천불)

연 도	수 입 량				수 입 액			
	계	브라질	미 국	기 타	계	브라질	미 국	기 타
1985	3,176	1,417	1,181	578	6,743	2,993	2,590	1,160
1986	2,659	1,525	1,112	22	3,841	2,137	1,673	31
1987	5,258	2,234	2,811	213	9,046	3,833	4,789	424
1988	8,458	4,486	3,940	32	20,109	10,303	9,750	56
1989	20,598	11,561	8,833	204	46,309	25,335	20,559	415
1991	38,279	32,325	5,954	-	61,273	49,835	11,438	-
1992	44,812	39,274	4,060	1,478	84,275	72,236	9,163	2,876
1993	44,372	34,267	9,557	548	57,106	41,534	14,509	1,063
1994	56,932	44,234	12,698	-	76,765	57,118	19,647	-
1995	59,230	46,277	12,840	113	88,047	67,331	20,548	168
1996	41,882	30,062	11,693	127	68,799	47,034	21,540	225
1997	49,855	39,394	10,297	164	62,062	46,944	14,813	305
1998	31,703	24,254	6,940	509	40,251	28,739	10,560	952
1999	39,163	28,845	9,836	482	56,655	39,924	15,889	842
2000	39,531	32,728	6,624	179	51,231	39,394	11,574	263
2001	43,335	35,538	7,365	432	42,831	31,832	10,598	401
2002	47,465	36,779	9,968	718	59,754	43,000	15,438	1,316
2003	40,748	30,013	10,087	648	56,099	39,552	15,575	972
2004	38,534	29,145	9,076	313	45,941	33,841	11,619	481
2005	34,068	26,303	7,658	107	36,899	26,973	9,695	231
2006	32,839	25,347	7,021	471	43,443	31,264	11,231	948
2007	31,082	20,824	5,329	4,959	68,838	42,818	16,058	9,962
2008	25,655	14,168	4,188	7,299	56,928	32,005	11,579	13,344
2009	24,101	13,865	5,188	5,048	44,067	24,214	11,445	8,408
2010	26,547	19,200	4,897	2,450	43,144	25,934	12,393	4,817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감귤선과장 현황

구	분	선과장 (개소)	처리능력별 선과기 수				
			계	1톤 이하	1-4톤	4-7톤	7톤 이상
계	계	626	652	63	480	76	33
	농 협	197	205	5	168	31	12
	감 협	119	121	3	92	20	5
	유통인	269	271	53	189	17	12
	법 인	41	45	2	31	8	4
제주 시	소 계	216	223	-	194	29	-
	농 협	71	77	-	67	10	-
	감 협	61	61	-	46	15	-
	유통인	73	73	-	71	2	-
	법 인	11	12	-	10	2	-
서귀 포 시	소 계	410	429	63	286	47	33
	농 협	126	138	5	101	21	12
	감 협	58	60	3	46	5	5
	유통인	196	198	53	118	15	12
	법 인	30	33	2	21	6	4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과수 종자업 등록 현황

허 가 상 황					등 록 품 종
상 호	대표자	허가번호	허가 일자	영업장 소재지 휴 대 폰	
제 주 감귤농협	조합장	18-2000-20-02	'84.12.26	서귀포 강정동155	홍진,삼보,부지화,상야, 이시지,세또까,아마쿠사, 사세보,하레히메,히고, 하루까,히노아께보노,하 야까,히로시마7호
				(T)739-5401~4	
제주종묘	양시우	18-2000-20-03	'87.03.24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562-1	궁천,부지화,일남1호
				(H)011-9664-4495	
천도종묘	고경구	18-2000-20-05	'90.12.10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91-7	성진,세또까,하루미
				(H)016-689-7937	
제일종묘	양충웅 외1	18-2002-20-06	'02.11.07	서귀포 서흥동 378-16	부지화,사세보,세또까, 히노아께보노
				(H)011-694-2290	
서귀종묘	전상욱	18-2002-20-07	'02.11.07	서귀포 동흥동 470-1	부지화,세또까,하루미, 사세보,히노아께보노
				(H)016-693-1336	
석파농산	강문신 외1	18-2003-20-08	'03.02.25	서귀포시 동흥동482-13 남양맨션 C동 301호	부지화,상야,하루미, 일남1호,사세보,세또까, 히노아께보노,이시지, 히로시마7호
				(H)016-699-2355	
자원종묘	고윤원	18-2003-20-09	'03.07.15	서귀포시 강정동170-2	부지화,하루미,세또까, 이시지,일남1호,상야, 남향,사세보,히노아께보노, 히로시마7호,유레카레몬
				(H)016-691-1883	
제 주 우리농원	장신평	18-2004-20-11	'04.05.12	서귀포시 서귀동280-7	부지화,사세보,일남1호
				(H)010-7211-7075	
제 주 특산종묘	김태주	18-2004-20-12	'04.11.20	제주시 도련1동 2213	부지화,하루미
				(H)016-689-1513	
한라종묘	문형택 외1	18-2005-20-13	'05.03.02	서귀포시 상호동1457-2	부지화,상야,히고
				(H)016-639-0864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허 가 상 황					등 록 품 종
상 호	대표자	허가번호	허가일자	영업장 소재지 휴 대 폰	
한농바이오 산업(주)	김시현	18-2005-20-16	'05.07.11	제주시 도련1동 2705-1 (H)011-690-7067	부지화,아떼모아
금지계 종묘사	한봉길	18-2006-20-18	'06.07.18	제주시 이도2동 1169-2 (H)010-3691-3308	부지화,상야,세또카, 성진,히고,유레카레몬, 하루미,히노아게보노
록산영농 조합법인	김찬식	18-2007-20-19	'07.02.27	제주시 용담2동 2625-1 (H)010-5755-6000	사세보,세미노루
삼정농원	고태운	18-2007-20-20	'07.08.16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506-2 (H)010-2634-2161	아떼모아
(주)제농	김태형 외1	18-20-2009-21	'09.06.19	제주시 도련1동 2705-1 (H)011-691-8977	품종미등록
중 문 종묘사	김창남	18-20-2009-22	'09.06.23	서귀포시 중문동 1241-1 (H)016-464-3183	품종미등록
봉성종묘 생산영농 조합법인	이복자	18-20-2010-23	'10.02.19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120-21 (H)011-690-2453	상고
돌담농원	고태만	18-20-2010-24	'10.05.07	서귀포시 하효동 609 (H)016-697-3915	과수(아떼모아)
한라참다래 종묘	고봉주	18-20-2010-25	'10.06.23	제주시 도련1동 2226 (H)011-699-4841	과수(참다래)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